

광주문화재단 백서 2011

광주문화재단 백서 2011

GCF Report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7
T_062.670.7400 www.gjcf.or.kr



GCF Report 2011

광주문화재단 백서2011

2011 GCF Report

04 발간사

대표이사 인사말
사무처장 인사말

06 광주문화재단 설립취지 및 2011 발자취

13 광주문화재단 비전과 목표

14 주요 추진 사업

15 1 창의적 문화도시 환경 조성

- 1-1 문화도시, 문화농부프로젝트
- 1-2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 1-3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단 운영
- 1-4 문화나무 상상강좌

25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강화

- 2-1 2011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젝트
- 2-2 2011아시아문화포럼
- 2-3 광주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 2-4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
- 2-5 구 전남도청 공사차단막 예술작품화사업
- 2-6 광주폴리 유지관리 및 활성화
- 2-7 사직통기타촌 공연 활성화 사업

49 3 문화예술진흥 지원

- 3-1 2011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3-2 2011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 3-3 2011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3-4 201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3-5 2011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 3-6 2011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사업
- 3-7 창작지원컨설팅사업

77 4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4-1-1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_디딤돌연수
- 4-1-2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_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운영
- 4-1-3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_문화예술 상상학교
- 4-1-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_교원연수 지원사업
- 4-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4-3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사업
- 4-4 시민문화예술교육상상워크숍
- 4-5 방학예술캠프지원사업

105 5 문화나눔-바우처 및 기업 메세나

- 5-1 문화바우처사업
- 5-2 여행바우처사업
- 5-3 꿈꾸리오케스트라
- 5-4 문화나무예술단운영
- 5-5 기업메세나활성화사업

121 6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진흥

- 6-1 산테마 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 구축사업
- 6-2 문화관광탐험대 운영
- 6-3 전문가와 함께하는 데굴데굴 문화기행
- 6-4 문화광주 스토리텔링 인터넷 공모사업
- 6-5 오감만족 광주여행

139 7 축제의 전국화 세계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 7-1 페스티벌 오! 광주 통합브랜딩사업
- 7-2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 개발(자스민 광주)
- 7-3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축제
- 7-4 페스티벌 오! 광주 에든버러 축제교류
- 7-5 페스티벌 오! 광주 정월성축제
- 7-6 페스티벌 오! 광주 여성합창축제
- 7-7 페스티벌 오! 광주 아듀2011

171 8 국제문화교류확대

- 8-1 아시아도시간 문화교류 협력사업
- 8-2 해외레지던스&페스티벌 진출 지원사업
- 8-3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 운영
- 8-4 북해도 문화재단 연극 교류 공연
- 8-5 이탈리아 모자이크스쿨 워크숍

193 9 전시 및 공연

- 9-1 아트광주2011
- 9-2 미디어아트특화갤러리 운영
- 9-3 문화나무 창작공간 미디어프린티어
- 9-4 목요상설무대 운영

211 10 홍보활성화

- 10-1 문화재단 기획홍보 활성화

부록

기본현황

예산현황

광주문화재단 이사명단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 명단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협약체결기관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2011 주요 축제 프로그램 현황

문화나무 예술단 현황

문화광주 스토리텔링 인터넷 공모사업 수상자 현황

2011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탐험대원

2011 광주문화재단 사업일지

사진으로 보는 광주문화재단 노마드 탐방기

| 대표이사 인사말 |

광주문화재단이 설립된 지 두 해 째를 맞고 있다.

남다른 출범의 각오를 다졌고, 설립취지의 구현은 물론 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에 와서 되돌아보니 미진한 부분이 적지 않게 눈에 띄는 것이 사실이다.

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강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복지 확대 등 설립초기 설정한 7대 중점과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광주문화재단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한 시민공동체를 꾸리자는 염원에 다름 바가 없을 것이다.

세계의 선진 공동체들이 산업부흥과 문화 진흥이라는 두 날개의 균형을 이룬 비상을 통해 진일보한 시민사회를 이끌어왔다는 역사의 선함을 떠올려 보더라도, 광주문화재단의 의제 설정은 적절하고도 타당한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광주의 시민사회 또한 설립 준비단계에서 치러진 몇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문화재단의 그와 같은 설립 취지에 공감할 표명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은 시효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인간의 공동체는 늘 새로운 희망을 꿈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숙명을 지니고 있으며, 그때마다 당면한 난제들을 함께 고뇌하고 탐구하며 가치통합의 장으로 나아가는 지난한 과정을 겪어야 하는 까닭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지난 2011년의 족적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도 바로 그곳에 이 유가 있다 할 수 있다. 반성과 성찰로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그러한 겸양의 자세로 시민사회와의 진지한 소통을 통해 광주의 미래를 함께 꿈꿔보자는 취지에서다.

인류의 역사는 기록을 통해 축적된 선지식의 지혜를 밑거름 삼아 진화해 왔다.

광주문화재단의 이번 백서발간 또한 광주 공동체가 ‘문화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지평을 향해 또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여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

백서의 발간을 위해 지난 6개월여 동안 수고를 아끼지 않은 문화재단의 실무자들, 그리고 전문적인 조언과 깊은 식견으로 백서의 내용을 알차게 채워준 재단 외부의 자문위원 선생님들에게도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노성대

| 사무처장 인사말 |

‘광주의 꿈! 문화가 희망이다.’

이 슬로건은 작년 1월 광주문화재단 출범을 축하하기 위해 열린 창립기념공연의 메인 타이틀이었습니다. 문화가 희망이 되는 도시, 문화로 먹고 사는 도시를 만들어보겠다는 열망과 진정성을 가득 담은 공연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인 문화로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을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이었습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향수 기회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계사업추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페스티벌 오! 광주를 통한 도시브랜드 제고, 문화 · 여행 바우처와 꿈꾸리 오케스트라 등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 빛고를 시민문화관 등 문화예술공간 운영 등 이루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기능과 인력이 점차 확대되자 여러 지적도 잇달아 나왔습니다. 문화권력기관에 대한 우려, 자율성과 독립성 확보, 정책개발 미진, 열악한 기금조성 등의 문제제기였습니다. 그러나 감히 말하건데, 지난 1년의 세월은 우리 지역의 문화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민과 예술인 사이를 매개하고 네트워킹하는데도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아직도 진행형입니다만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을 근간으로 한 문화재단으로서의 위상을 확실히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뿐만아니라 현재 중장기발전전략 연구를 위한 TFT를 구성,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재단의 비전과 가치가 반영된 세부사업계획이 수립될 것입니다.

광주문화재단 출범전인 2010년 9월 광주문화재단의 비전과 과제란 주제로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현존하는 최고의 비즈니스 사상가 필립 코틀러 교수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새로운 시장의 도래를 ‘마켓 3.0’이라고 부르는데 3.0시장을 리드하는 기업들은 고객만족을 넘어서서 좀 더 큰 비전과 미션, 가치를 통해 세상에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광주문화재단은 그 비전과 가치를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겠다고 하는 초심을 잊지 않고 가겠습니다.

‘2011 광주문화재단 백서’는 바로 그 초심에 근거한 1년간의 발자취입니다. 이 백서 발간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재단의 식구들, 외부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따뜻한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박선정

| 광주문화재단 설립취지 및 2011발자취 |

가 문화재단 설립배경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GCF:Gwangju Cultural Foundation)의 설립 배경은 남다르다.

기존의 공공문화재단들이 문화예술창작을 지원하고 시민의 문화체험을 확대하는 등 공공의 서비스를 통해 문화진흥을 꾀하는 것이라면, GCF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문화진흥을 통해 성취된 시민사회의 문화적 상상력을 광주공동체가 문화창조도시로 비상하는 동력으로 삼자는 진일보된 염원에서 시작됐다.

GCF의 설립배경이 이처럼 차별화된 보폭을 취하게 된 데는 광주가 걸어온 근현대사의 족적과 지역공동체가 안고 있는 당면과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광주는 예로부터 ‘예향’으로 일컬어지며 문화예술의 분향과 같은 예맥을 이어온 도시였다. 또한 5·18광주민중항쟁이라는 현대사의 격변을 겪으며 그 상처를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인권·평화로 기치화 된 5·18의 가치를 문화적으로 승화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의지가 집단적으로 발현됐다.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도 그러한 맥락에서 성취된 프로젝트라 볼 수 있다.

예맥의 면면을 바탕으로 5·18 정신의 문화적 승화,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으로 이어지는 도시성장의 패러다임은 추진주체와 주요과업, 추진방식을 설정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한 고안이 필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지역공동체와 공공기관의 협력 네트워크, 새로운 문화비전을 개척해 가는 정책·전략적 역할의 중요성이 각별하게 대두된 것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은 또한 광주시의 문화정책을 반복되는 순환구조가 아닌 지속성장의 형태로 나아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동기부여를 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이라는 획기적 전기를 계기로 광주시가 창조도시라는 시정지표를 세운 점도 광주시 문화정책이 차별화를 꾀하게 된 핵심 동기로 작용했음은 물론이다.

GCF 설립은 이러한 광주시 문화정책의 특수성과 민간 협력네트워크가 문화진흥의 주관자가 돼야 한다는 당위성을 배경으로 삼고 있다. 이에따라 시 출연기관이라는 예산구조상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민관의 협력구조인 문화거버넌스 체제를 지향한 것이다. 민간주도 이사회 구성과 재단의 정체성 및 향후 비전을 고심하는 정책부문에 각종 위원회 시스템이 도입된 것도 바로 이 같은 취지 때문이다.

문화행정의 효율성 강화 측면도 GCF 설립에 중요한 배경이 됐다. 문화재단 설립 이전까지 국비·시비 보조예산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지원 사업을 펼쳐왔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광주시의 주요 축제·공연행사를 총괄 위탁관리 해왔던 공연예술재단이 GCF에 통합된 과정이 가장 전형적인 사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기반으로 문화진흥을 관광산업과 연계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시정목표도 GCF 기능설정에 중요한 몫을 차지했다. 이는 GCF 조직구성에 문화관광팀이 신설되는 형태로 반영됐다.

나 GCF 2011 주요 성과

GCF는 출범 초기 7대 중점과제를 설정했다.

문화로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을 통해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적 문화예술도시로 비상하는 추진 전략으로 설정된 7개 과제는 ▲시민문화향유기회 확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강화 ▲축제의 전국·세계화를 통한 도시 브랜드 강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복지 확대 ▲국제문화교류확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화환경 조성 ▲문화자원 및 문화 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 등이다.

7대 목표 아래 진행된 사업을 대별해보면 50여개 정도이며, 문화예술진흥지원 사업의 경우 사업선정 심의와 모니터링, 결과보고 등 세부과업들이 연중으로 추진됐다. 지역언론과 시민사회는 GCF가 우선 이들 사업들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기구로서 역할, 그리고 지역문화 활성화 핵심센터로서의 기능을 원만히 수행한 것으로 그 성과를 보고하고 있다. 지원사업의 공모심사 개선방식을 통해 문화예술인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 문화도시 기초토양인 지역예술인·단체 육성지원·시민문화향유 기회 확대 등을 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시민참여 프로그램 확장도 성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문화창조도시 광주발전의 인적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문화농부 1만명 양성 프로젝트는 2011 한해 동안 5천여명의 회원을 확보해 큰 성과를 기록했다. 시민의 문화감수성 향상과 예술감식력 확장을 위해 국내 대표 문화 CEO를 초청한 문화나무 상상강좌는 미술·공연·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10차례 강연에 매회 200여명이 청강하는 등 각광을 받았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연계사업은 GCF의 의욕적인 접근으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일원을 문화예술 생산·소비·유통의 공간으로 특화시키고자 한 아시아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사업을 추진해 커뮤니티 프로그램의 획기적 성과로 전국적인 주목사례가 됐다. 구전남도청 리모델링공사 차단막 예술작품화 사업과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은 GCF가 공모경쟁을 거쳐 수주한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GCF가 단순한 프로젝트 대행자의 역할을 벗어나 지역작가·시민사회와 합작 워크숍 형태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사업을 주관한 성공적인 모델로 남겨졌다.

국제교류문화 네트워크 구축은 GCF 개별사업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의 협력사업 형태로 크게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추진단과 협력한 2011 아시아문화포럼은 10개국 30여명의 세계적 석학들과 국내외 대학생·예술인 등 400여명이 참여해 호황을 이뤘다. GCF가 독자적으로 추진한 교류사업들도 미술·음악·연극·전통문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발하게 추진됐다. 유럽 전통 모자이크 공방의 메카인 이탈리아 모자이크 스쿨 워크숍, 북해도 문화재단 연극교류 공연, 정윤성 축제 등이 추진돼 아시아·유럽권역 주요 문화도시들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에 중요한 동기부여를 했다.

다 성찰과 전망

GCF의 2011년은 다양한 사업추진 실적과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출범을 서두른 결과 짧은 준비기간의 후유증이 노출된 한 해였다고 총평해볼 수 있다. 세부적인 문제들은 무엇보다 GCF 출범 초기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우려했던 지적들을 중심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시민사회는 우선 초창기 GCF의 전망이 ‘독립성 확보’에 있음을 강조했다. 독립성의 훼손은 공정하고 투명한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취지를 왜곡함으로써 종내는 문화갈등의 진원지로 작용할 여지가 많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또한 GCF가 시민 일반의 문화진흥을 위해 일하는 서비스기관임을 감안하면 독립성 확보가 원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요체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요구를 수렴해 GCF는 민간 중심 이사회 구성, 각종 위원회 시스템 가동, 외부 민간단체와의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 심의위원 전국화, 인사 채용 시스템 운영의 투명화 등 대응책을 강구했지만 미흡함에 대한 지적도 많았다.

우선 광주시가 주관해 온 문화예술사업의 상당 부분이 GCF로 위탁 운영되고, 문화관광부나 문화예술위원회의 기존의 매칭사업 또한 재단의 몫이 되는 등 경합적인 사업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됨으로써 GCF의 정체성을 살릴 수 있는 독자적인 기획 사업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예산구조상의 취약점도 GCF의 독립사업 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재단 출연금 및 운영비 전액을 광주시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재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예산 규모로 보나 인적자원 배분으로 보나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또한 GCF에 정체성 확보라는 숙제를 안겨줬다.

광주의 문화정책을 창출·조율·시행함으로써 문화수도 광주를 이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달라는 시민사회의 기대에도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컨트롤 타워가 되기 위한 청사진 부실이 먼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출범 초기 이미 확보돼있어야 할 GCF의 중장기 비전이 촉박한 설립준비기간으로 인해 내용이 충실치 못했고, 연중 계속해서 이어진 경상 프로젝트들에 쫓겨 완성된 청사진이 년 내에 확보되지 못한 점에 대해 전문가들의 거듭된 지적이 제기됐다.

GCF도 중장기전략 채택을 위한 자구적 노력을 부단히 기울여왔음은 물론이다. 학·예술계·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 26명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연중 4차례의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고 문화사업 주요 현안 및 문화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주요 민간예술단체들과도 2차례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시민사회의 정책요구를 수렴했다. 또한 전문가·정책자문위원·재단직원이 참여하는 정책집담회 2회, 정책워크숍 1회 개최를 통해 열린 정책입안을 위한 노력을 다각화했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담아내는 민관협력의 협치기구 역할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출범 초기 문화 거버넌스로서의 위상을 자임했지만 그 취지를 충실히 구현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이러한 지적은 소통의 문제로 성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GCF는 2011년 한 해 동안 네트워크 활성화 위해 14개 기관과 MOU를 체결했지만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에 집중된 측면이 두드러졌다. 시민사회를 대변하는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상대적으로 부실했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소통의 양적 확대는 물론 소통의 질적 심화에 관련된 문제도 과제로 부상했다. 실질적 결실을 얻어내기 위한 소통의 효율성 추구는 GCF 사업의 예산구조에 시민사회의 요구가 반영돼야 한다는 점,

공연예술·전시부문의 결실도 주목할 만 하다. 특히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 공연물로 GCF가 제작한 ‘자스민 광주’는 세계적 공연예술축제인 2011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여해 큰 성취를 이뤄냈다. 페스티벌 공식 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등급인 별 5개를 획득했으며, 인권상과 ‘바비스 식스 스타 어워드’ 후보로 등재되는 등 향후 해외시장 진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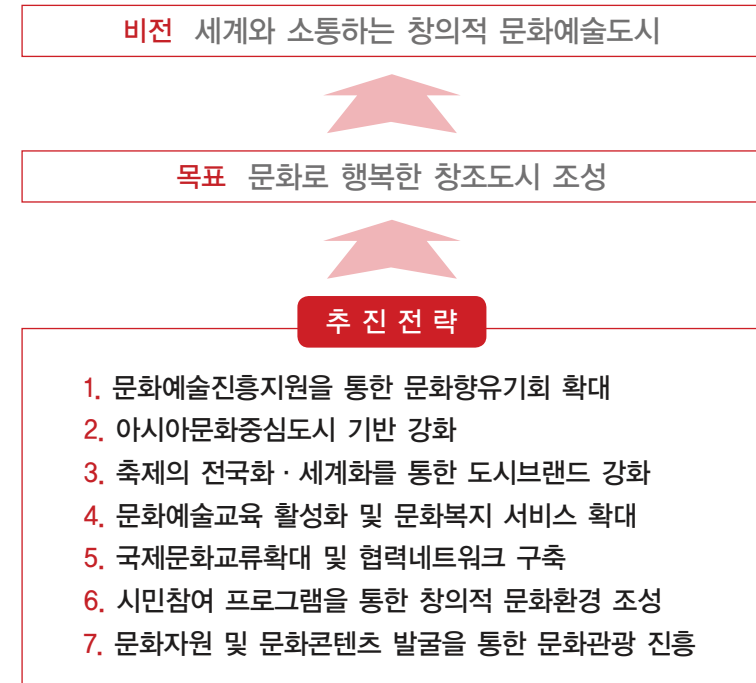
도시축제의 통합브랜드화를 목표로 추진된 ‘페스티벌 오! 광주’는 축제를 통한 문화도시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6개의 대규모 축제, 12개의 소규모 축제를 펼쳐 시민사회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크고 작은 지역 예술단체들이 축제의 주역으로 동참해 그동안 변방의 움직임에 머물렀던 지역의 공연문화예술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축제 통합홍보시스템 운영, 참여축제 부대행사 통합지원, 참여축제의 확장 등 산만하고 중복적이라는 시민사회의 지적에 대응해 축제운영의 효율성을 꾀한 점도 성과로 평가된다.

‘아트광주 11’의 성과도 주목된다. 광주 유일의 현대미술작품 견본시장으로 2회째를 맞고 있는 ‘아트광주 11’은 공공성과 대중성이 결합된 차별화된 마켓을 추구했으며, 고가시장으로만 알려진 미술시장을 대중과 친밀한 체험형 마켓으로 탈바꿈 시킨 사례로 눈길을 끌었다. 마켓 자체의 정량화된 실적도 긍정적이다. 국내외 73개 갤러리가 참여해 3천여점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이 중 250여점의 작품이 판매됐다. 또한 2만여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음으로써 1회째 대비 360% 유료관람객이 증가한 실적을 기록했다.

따뜻한 문화나누기를 기치로 내건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사업은 전국의 모범사례로 관심을 받았을 정도로 왕성하게 펼쳐졌다. 모셔오는 무료관람 프로그램인 문화바우처 사업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계층 등 총 7,320명이 수혜를 받았다. 여행바우처 사업은 장애인·다문화가족·새터민 등 총 1,075명이 체험여행에 동참해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청소년들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예술강사지원 사업은 광주지역 151개 초·중·고교에 128명의 예술강사를 파견해 문화창조도시 육성의 기틀을 마련했다. 정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수주한 꿈꾸리 오케스트라 육성 사업은 소외 아동 35명을 중심으로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연중 음악·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했으며, 향후 2년 동안 정부 지원이 지속되는 프로그램으로 정착시켰다.

문화관광 진흥 사업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자원의 콘텐츠화를 통한 테마관광 명소화의 방향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무등산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무등산의 가치를 고양하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을 망라한 조사를 통합 운영해 관광 명소화를 추진했다. 무등산 소리풍경 다큐제작, 무등산 스토리텔링 시민 공모전, 무등산 산적체험 프로그램 등이 주요 내용이 된 산테마 아시아문화 스토리텔링 사업은 무등산 재발견의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광주의 숨겨진 명소, 명인, 명품을 발굴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문화관광탐험대의 보고서는 차별화된 광주 문화관광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광주문화재단의 비전과 목표 |



○ 비전 :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적 문화예술도시”

- 예향,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문화예술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세계와 교류하고 감성과 지혜를 공유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의 문화예술도시로 웅비한다는 의미

○ 목표 : “문화로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

- 예술가는 마음껏 창작하고, 시민은 누구나 예술가가 되며, 일상에서 공연과 전시 그리고 축제의 즐거움 만끽하는 행복한 문화공동체 조성을 목표

그리고 공동사업을 통해 모범적인 문화 거버넌스의 모델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두 가지 관점에서 진일보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예산 편성기에 의견수렴 민관워크숍을 개최하고, 재단의 다양한 사업들 중 우선 가능한 영역 내에서 민간단체와의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하는 등 과정들이 하나의 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2011 GCF 설립 원년의 발자취는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독립성확보문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소통의 문제 등 3가지 측면에서 미흡함이 노출됐다. 이는 GCF의 미래비전 설정에 있어 중요한 키워드로 삼아야 할 대목이다.

독립성 확보는 재원의 문제와 직결된 만큼 GCF 자체사업을 위한 기금확보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GCF 설립 당시 목표였던 500억원 기금확보 5개년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대책수립은 물론 메세나 적극유도 등 기금 유입의 통로를 다각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돼야 할 사안이다.

국비 확보를 통해 GCF 기획사업의 영역을 확대해가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상정해볼 수 있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 연관된 국가예산 지원 기획사업들에 대한 GCF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그 성과들을 모두 GCF가 소유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인력확보문제나 사업 운영 및 지원체제 등 종합 역량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우위에 있는 GCF가 사업 확보에 앞장서고, 위탁운영이나 공동사업 방식을 통해 민간단체들과 결실을 공유하는 협력체제가 작동됨으로써, 지역 문화계의 총체적인 역량 확대에 이어져야 할 것이다.

광주시 문화정책의 비전을 확립하기 위한 GCF 중장기전략보고서 채택도 시급한 과제다. 2012년 하반기 중 출간을 목표로 외부 자문위원회, 내부 편집위원회를 활발히 가동 중이지만 채택된 보고서가 향후 GCF사업의 실질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GCF가 보고서 작성의 주관자이긴 하지만, 채택된 보고서가 시민사회 요구를 수렴한 공감의 결실이라는 신뢰구축의 과정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를 위해서는 연차별 비전 실현 점검을 위한 합동 워크숍 등 민관의 협력 체제를 꾸준히 유지시켜야 함은 물론, 시민사회의 새로운 요구에 따른 내용의 보완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소통의 문제 또한 확장과 내실이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병행 추진돼야 한다. 출범 1년차를 맞은 GCF의 입장에서 소통 네트워크의 부단한 확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당면 현안일 것이다. 이와 함께 현 단계 구축된 민간단위와의 협력관계를 민관 거버넌스의 수준으로 격상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이는 2015년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민간단위의 문화역량 확장 문제와도 긴밀히 연계돼있는 과제라 볼 수 있다. 문화 인력양성 협력, 정책사업 공동 수행, 국비사업 민간 수탁운영 확대 등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통해 지역 문화공동체의 총체적 역량강화의 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GCF 주관 사업운영의 이니셔티브를 민간에 대폭 이양하는 지침 마련 등 GCF 내부의 시스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광주문화재단 문화정책실장 박호재

주요 추진 사업

- 1 창의적 문화도시 환경 조성
-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강화
- 3 문화예술진흥 지원
- 4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5 문화나눔-바우처 및 기업 메세나
- 6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진흥
- 7 축제의 전국화 세계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 8 국제문화교류확대
- 9 전시 및 공연
- 10 홍보활성화

01

창의적 문화도시
환경 조성

- 1-1 문화도시, 문화농부프로젝트
- 1-2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 1-3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단 운영
- 1-4 문화나무 상상강좌

1-1 문화도시, 문화농부프로젝트

문화로 행복한 농부 1만명 네트워크 프로젝트

시민 참여형 문화농부 양성 시민 참여형 문화도시 및 성공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농부 1만명을 네트워크화 하여 문화예술관련 정보를 공유

사업명	문화도시 문화농부 프로젝트
사업내용	광주문화재단 행사, 지역축제 등 문화예술행사 현장에서 광주문화재단을 홍보하고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문화농부를 모집해 문자, 이메일, 웹진 등으로 정보 제공
기간	2011. 1 ~ 2011. 12
예산	35,500천원
장소	광주지역 축제 및 행사 현장 곳곳
추진방식	- 문화나무 상상강좌 참석자 대상 모집 - 직접 모집 및 재단 홈페이지 가입 회원 -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축제, 지역축제(42회) 등 관람객 모집

01 개요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 출범 첫해 문화의 숲을 가꾸는 농부가 되겠다는 다짐을 했다. 문화의 숲을 광주시민들과 함께 가꾸자는 취지에서 문화농부 1만명 양성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그동안 문화현장 밖에서 관망하던 시민들을 문화현장으로 끌어들이자 발적으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함께 만들어가자는 취지였다. 1년 동안 5,000여명의 시민이 문화농부 회원에 가입했고, 재단은 회원들에게 다양한 문화정보를 제공해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을 갖게 했다.



02 추진내용

· 문화로 행복한 농부를 모집하다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 축제, 아시아문화포럼, 아줌마축제, 임방울국악제, 충장축제, 사랑나눔축제, 김연자콘서트, 정율성 축제, 여성합창 축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등 2011년 광주에서 벌어진 굵직한 축제 및 행사 현장에서 문화농부 회원모집을 위한 부스가 펼쳐졌다. 재단 직원 1명과 자원활동가 13명이 번갈아가며 현장 활동을 하는 동안 시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총 5,455명이 문화농부 회원이 되었다. 또한 모집된 회원별로 이메일, 문자 등의 정보전달 수단을 구분해 광주문화재단의 공연, 축제, 행사 때마다 이메일, 문자, 웹진 등을 통해 정보를 전달했다.

· 문화농부 회원의 날 축제를 열다

문화의 숲을 함께 가꾸자고 뜻을 같이한 5천여 농부들은 2011년 12월 19일 한 자리에 모여 문화농부 회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은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펜스를 시민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진행한 '13번지 드로잉페스타' 집중제작기간의 마지막 날. 문화농부 회원들은 이날 1,005명(개인 679명, 단체 326명)이 3개 조로 나눠 문화전당 펜스 공공미술 작업에 참여했고 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문화나무예술단 공연을 관람했다.

03 향후과제

문화도시 문화농부 1만명 양성 프로젝트는 회원모집 과정에서 관심 장르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각종 단체와의 협력체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때문에 이후에는 개인 신규 회원 모집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재단의 지원사업 및 문화센터, 기관 등 단체 협력에 주력하고 시민의 저조한 참여 및 호응사업위주의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되 회원명단은 각 사업팀별로 공유하도록 했다.

공연전시팀 오 훈

1-2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광주 문화나무 함께 가꾸요”

문화지원네트워크로 하나되기

문화관련 공공기관 및 단체와 문화협약체결 및 문화프로그램을 공유해 문화지원네트워크 형성

사업명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사업
사업내용	문화 관련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약체결 및 문화프로그램 공유
기간	2011. 1 ~ 2011. 12
예산	2,000천원
사업장소	광주시 일대
추진방식	-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광주디자인센터, 광주발전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약체결 -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실질적인 공동사업 추진방향 모색

01 개요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사업’은 문화예술관련 정책을 개별적으로 진행해온 공공기관들이 소통과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을 기해 추진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총 3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는 문화기관들과의 협약체결을 통해 각 기관들의 업무를 공유하고 지원과 교류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다. 2단계는 협약 체결 기관 실무자 간의 협의체를 구성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3단계는 그 방안들이 구체화되어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이다. 2011년은 1단계로써 지역 내 다양한 공공문화예술기관들과의 협약체결에 중점을 두고 진행했다.



02 추진내용

· 14개 기관 MOU체결, ‘문화숲’ 이루다

문화도시 광주 만들기 가장 먼저 팔을 걷고 나선 것은 교육기관이었다.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 등과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술자료 및 정보 상호교환·협력,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체결을 맺었다. 이외에도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사)대동문화재단, 광주발전연구원,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광주5·18기념재단 등과 상호협력 및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학생들의 문화관광탐험대 참여,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문화나무 상상강좌 동영상 제작 및 편집 지원 등 실질적인 협약 성과를 남겼다.

일시	협약기관	협약내용
2011.3.09	조선대	학술자료 및 정보 상호교환·협력, 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
2011.3.31	전남대 인문대학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술자료 및 정보 상호교환·협력
2011.4.07	전남대 평생교육원	학술자료 및 정보 상호교환·협력,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
2011.4.07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사)대동문화재단	3자간 협약. 미디어를 통한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기획·운영 등
2011.4.13	(재)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지역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문화 조사, 연구
2011.4.20	광주발전연구원	광주 문화발전 비전 및 전략 제시, 문화예술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2011.5.06	광주대학교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학술자료 및 정보 상호교환·협력
2011.5.11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학술자료 및 정보 상호교환·협력
2011.6.15	광주예술고	학술자료 및 정보 상호교환·협력,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2011.6.24	광주디자인센터	디자인과 문화예술 공동 연구 및 사업 추진
2011.7.05	5·18기념재단	5·18관련 문화예술 콘텐츠 개발 공동연구 및 사업추진
2011.10.21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전문인력 양성지원
2011.11.16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	노인복지문화사업 공동구상 개발 및 상호 협력
2011.12.26	광주광역시 교육청	다자간 교육기부 협약

· 문화네트워크 실무협의체 꾸리다

협약 체결 내용을 보다 구체화시키기 위해 각 기관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문화네트워크 실무협의체’를 운영했다. 이러한 협업 네트워크는 그간 필요성은 제기되었으나 실행되지 못하다가 광주가 국제적 문화도시, 창조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구체화되었다. 광주 5개 구청, 교육청 문화예술담당 실무관이 참여해 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문화사업 방식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토론의 장이 형성됐다. 실무협의체는 총 11개 기관 실무관으로 구성되었고, 하반기에는 2012년 공동사업 구상을 위해 현 사업의 문제점 및 대책 방안 마련을 위한 자유토론이 이루어졌다.

03 향후과제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사업’은 협약체결에 그치지 않고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내년 공동사업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내에 14개 기관과 협약 체결을 추진하다보니 협약 체결 후 교류가 이어지지 않은 기관이 발생한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실무협의체는 정보의 교류, 소통과 대화가 가장 큰 역할이다. 재단과 교육기관,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의 양성 인력을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내고, 각 구청 지역주민센터와 교육청이 협력해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시범사업을 구체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만들어 냈듯이 말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에서도 협약네트워크 실무협의체가 소통과 조율의 아트레일이 되어 문화도시 광주가꾸기에 나서기를 기대해본다.

정책기획팀 김 주 은

1-3 2011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단 운영

문화광주의 미래, 전문가와 함께 찾기

광주문화재단의 길을 묻다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광주문화재단의 정책 개발 및 주요 사업 방향과 현안 등에 관한 자문을 얻고 발전방향을 논의함.

사업명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단 운영
사업내용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를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하여 관련 분야 정책 개발, 주요 현안에 대한 실질적 자문, 정기회의 및 공동 정책 워크숍 등을 통해 광주문화재단의 발전방안 논의
기간	2011.1 ~ 2011. 12
예산	14,921천원
대상	광주문화재단 사업 전반
추진방식	자문위원 26명 위촉, 자문위원 회의 3회, 정책 집담회 2회, 정책워크숍 등 운영

01 개요

광주문화재단은 출범직후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문가 26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진 교수, 예술감독, 연출가, 건축가, 소설가 등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30~50대의 젊고 역동적인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구성했다. 이들은 재단 주최의 자문회의와 집담회 그리고 워크숍 등을 통해 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사업과 정책에 대한 자문, 시민의 문화향유 확대방안 조언, 지역 문화 사업에 대한 참신하고 수준 높은 이론과 실무 경험을 뒷받침했다.



02 추진내용

· 자문위원 회의와 소위원회 구성

2011년 1월 13일 재단 창립기념공연에 맞춰 정책자문단 위촉식이 열렸고, 이후 정책자문위원 회의가 개최됐다. 1차 회의에서는 2011년 사업계획에 대한 자문, 신규 사업과 전략사업, 시민과의 소통강화 대책마련 등이 논의되었다. 2차 자문단 회의에서는 재단 중장기발전전략 연구계획과 자문위원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자문위원회에 다수의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지만, 회의체 형식이다 보니 구체적 사안과 쟁점에 대한 심층적 자문보다는 포괄적인 방향 설정에 대한 자문에 치중되었다는 반성에 따라 자문단 내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문화정책일반, 축제공연전시, 문화관광·공간 소위원회로 구성됐다. 소위원회 구성과 함께 재단의 현안을 중심으로 릴레이 정책 집담회가 개최되었다.

· 문화정책 발전을 위한 릴레이 정책집담회

1차 집담회는 문화 정책의 흐름과 동향을 점검하고 재단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이무용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이현식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박종찬 광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무용 교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광주문화재단의 관계를 조명하며 광주를 브랜딩하고 문화의 네트워크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했고 이현식 본부장은 7년 전 설립된 인천문화재단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문화재단의 경영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율성’, ‘전문성’, ‘재정안정성’, ‘조직의 활력과 지역 사회와의 소통’ 등 재단의 운영 전략에 관한 주제에는 홍인화 광주광역시의회와 송진희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마지막에는 ‘광주의 관광콘텐츠개발과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박종찬 교수의 발제, 염방열 광주광역시 관광진흥과장, 김홍주 광주관광협회장이 토론을 가졌다.

2차 집담회는 문화예술정책의 기본쟁점과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등을 주제로 이흥재 추계예술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박신의 경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김승환 충북대 국어교육과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먼저 이흥재 교수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자원의 활용방안, 중앙과 지방의 자원에 대한 매칭비율의 문제점, 융합콘텐츠 발굴의 유의미성, 생활문화공동체 지원정책 마련 등이 최근 지역 문화예술정책의 쟁점임을 소개하였다. 이에 대해 정철 동신대 방송연예학과 교수, 민문식 교육문화공동체 결 상임위원 등이 광주의 현안과 과제 등을 주제로 토론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박신의 교수는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를 사업, 조직인력, 예산, 재단정체성의 4가지 틀로 비교분석하였고 지역문화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행정인력의 전문성확보,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 확보 방안 등의 필요성

을 주장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김승환 교수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예술장르의 자기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아마추어 예술의 실험적 모델을 지원해야 한다고 재단의 역할은 행정적 지원을 하되, 경직된 구조가 아닌 개방성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론자들은 타지역과 문화교류 확대, 광주의 문화 창조물이 전국적 브랜드로 거듭나기 위한 지원방안 등을 제시했다.

· 정책자문단·문화정책실 합동 워크숍

지난 12월 나주 남천 예술인촌에서 정책자문위원과 문화정책실 합동 워크숍이 개최됐다. 2011년 재단 사업평가 및 2012 사업방향 설정 등을 주제로 정책자문위원, 외부전문가, 재단실무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김상윤 광주문화도시협의회 상임대표는 광주문화재단은 문화소통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철학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며, 일차적으로 재정자립과 정책기능 강화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후 정책자문위원 및 외부 전문가들은 재단 설립 1년 동안의 노고와 성과를 치하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 소통 부족 등에 대한 세심한 노력이 더욱 절실하다고 평가했다. 이후 재단 실무자들은 1년 회고를 통해 이상과 현실의 충돌, 문화행정을 하면서 창의적 사고를 어떻게 발현할까에 대한 고민 등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03 향후과제

단기간에 다양한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들을 정책자문단으로 위촉해 재단의 주요사업과 정책방향에 대한 실효성 있는 자문을 수용한 점은 성과라 할만하다. 또한 회의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정책동향과 쟁점에 관한 집담회를 개최한 점도 바람직한 성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문단 운영이 재단 전체의 사업으로 공유되지 못했던 점, 자문회의 참여에 소극적이었던 위원들이 있었던 것은 아쉬운 점이다. 앞으로 2기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예정이며, 전문가 네트워크와 소통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재단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정책기획팀 박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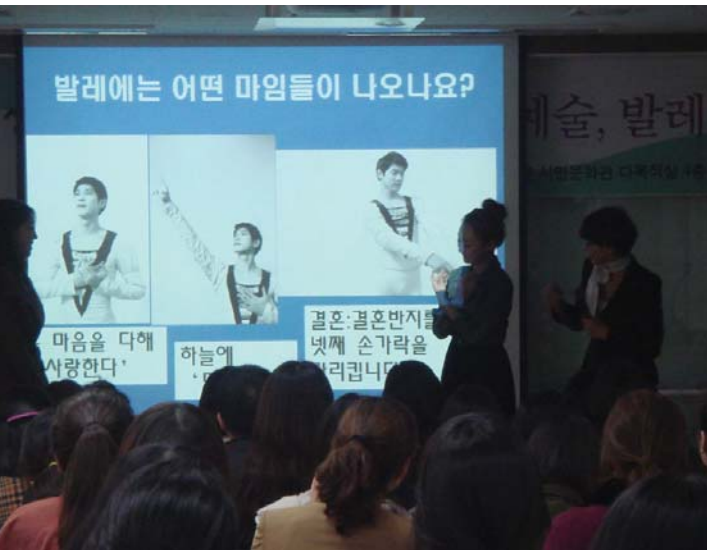
1-4 문화나무 상상강좌 문화광주의 내일을 상상하라

시민 문화감식력 업그레이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조성하기 위해 영상, 미술, 문학, 발레 등 다양한 분야의 국내외 문화예술계 저명인사를 초청한 고품격 문화예술강좌 개최.

사업명	2011년 문화나무 상상강좌
사업내용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일보가 협약하여 공동기획 하에 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폭넓은 시각과 문화감식력을 높이고 광주문화재단 문화 서포터즈 양성을 위한 연중강좌
기간	2011.1 ~ 2011. 11
예산	31,000천원
대상	일반시민
추진방식	미술, 문학, 공연, 뮤지컬, 영화 등 다양한 문화CEO 강사진이 매달 마지막 목요일에 강좌 진행(연간 10강)

01 개요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에서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확대하고 문화 활동의 주체자로 동반성장하기 위한 광주문화재단의 신년기획으로 ‘명품강좌’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적 안목과 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향후 광주문화 재단의 적극적인 문화서포터즈를 양성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02 추진내용

- 명사 초청하여 월 1회 대중강연
미술, 문학, 공연, 뮤지컬, 영화, 예술교육 등 국내 다양한 분야의 명품급 문화CEO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 문화의 전 영역을 아우르는 강좌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프로젝트의 문화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고양하였다. 또한 한 달에 한 번씩 모두 10강의 지속적인 강좌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문화마인드 제고에 힘썼다.
- 광주문화재단-광주일보 공동기획
광주문화재단과 광주일보가 협력약정을 체결(2011.2.7)하고 문화나무 상상강좌 공동기획 및 운영을 하였다. 광주문화재단은 장소마련 및 강좌운영, 광주일보는 강사섭외, 홍보 등을 담당했다.

차레	날짜	강사	주제
1강	1.28 (금)	김동호(전 부산국제영화제집행위원장)	광주, PIFF를 만나다
2강	2.24(목)	김명곤(전 문화부장관)	우리소리, 우리음악
3강	3.24(목)	최태지(국립발레단예술감독)	‘당신’을 위한 예술, 발레
4강	4.28(목)	김홍희(경기도미술관장)	현대미술과 백남준
5강	5.26(목)	나희덕(조선대문예창작학과교수)	현대시와 예술적 상상력
6강	6.23(목)	박명성(신시뮤지컬컴퍼니대표)	콘텐츠 개발과 한국뮤지컬의 미래
7강	8.25(목)	표미선(한국화랑협회장)	지금은 아트페어 전성시대
8강	9.30(금)	승효상(광주디자인비엔날레총감독)	이 시대 우리의 도시와 건축
9강	10.27(목)	송승환(명지대 영화·뮤지컬학부 교수)	세계의 마음을 두드린 난타
10강	11.24(목)	김종률(JR미디어대표)	대중음악에서 광주의 미래를 찾다

03 향후과제

문화분야 명사 강연 유치로 지방도시 문화갈증을 해소해 주었고 광주문화재단 설립 초기 인지도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강좌당 100명~200명 청중 확보로 문화농부 양성에 성공했다. 그러나 ‘충성고객’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고, 주제별 단발성 강연으로 인해 심화지식 습득에는 실패했다. 이에 따라 명사초청 강연방식에 대한 검토 및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책기획팀 박종현



0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강화

- 2-1 2011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 2-2 2011아시아문화포럼
- 2-3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 2-4 아시아문화전당 공시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
- 2-5 구 전남도청 공사차단막 예술작품화사업
- 2-6 광주폴리 유지관리 및 활성화
- 2-7 사직통기타촌 공연 활성화 사업

2-1 2011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시민이 즐겨 찾는 문화명소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

대인시장 야시장 · 공공예술프로젝트 · 상인예술단 등 큰 호응

예술의 거리 아트마켓 · 야외경매 · 예술길 답사 등 결합 눈길 사로잡아

사업명	2011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운영
사업내용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등 아시아문화전당권역 내 구도심을 문화예술 특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이 즐겨 찾고 머물고 싶은 공간을 창출
기간	2011. 3 ~ 2012. 2
예산	800,000천원
대상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
추진방식	광주문화자치회의 전남대산학협력단 보조 사업자 선정 후,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 문화예술거점 공간 조성, 14개 프로그램 운영



01 개요

· 광주의 독특한 문화 공간

대인시장과 예술의 거리는 광주의 독특한 문화적 맥락을 반영한 장소이다. 2015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권역 내에 위치하면서도, 역사적으로 여행광주를 상징하는 문화자원이 밀집된 곳이기도 하다. 동시에 쇠락해가는 전통시장, 침체된 구도심의 이미지가 중첩되는 공간이기도 하다. 최근 이러한 두 지역에 새로운 변화가 일고 있다. 인적이 뜸했던 공간에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의 필수 방문 코스가 됐으며, 주말이면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예술체험을 하러 가는 장소로 서서히 정착되고 있다. 주말에도 사람 구경하기 힘들던 몇 년 전과는 사뭇 대조적인 모습이다.

· 변화의 시작점

이 같은 변화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이란 타이틀 아래 문화기획 인력과 예술인들이 전략적으로 투입돼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 사업을 전개함으로써 가능했다. 이 사업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09년도, 2008 광주비엔날레 ‘복덕방프로젝트’ 일환으로 대인시장이 새로운 대안 공간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전격적으로 장기 프로그램을 가동하였다. 2010년에 예술의 거리가 보태어졌고 2011년 광주문화재단 주관 아래 광주문화자치회의와 전남대아시아문화연구소가 사업자로서 다양한 문화예술의 향기를 뿜어냈다.

02 추진내용

· 대인시장 문화예술의 장(場)이 열리는 느티나무 숲이 되다

대인시장은 전통시장에서 문화예술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빈 점포에 작가들이 입주하면서 실험성이 강하고 민중성이 드러나는 창작 공간 변화하고 있으며, 시민을 위한 체험프로그램을 가미하면서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은 작가의 자발적 참여와 재능기부 그리고 열정이 있어 가능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갈등도 있었다. 사업초기 터줏대감인 시장 상인들엔 작가들의 입주와 작업은 낯선 풍경이었고, 시장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역시 상인 지원 보다는 작가지원에 가까웠다. 결과적으로 상인 입장에서 본다면 시장 활성화 측면보다는 작가지원 프로그램 위주였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느낌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사업 초기 이러한 갈등이 증폭되었고, 본 사업은 기존의 작가지원 보다는 시민과 상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화하게 된다. 작가 중심의 레지던시 사업을 예술 공방이라는 공간중심의 레지던시 방식으로 변화시켜 공방의 개방성을 높이게 되었으며, 상인들을 대상으로 마당극 합창단 등의 문화교실을 운영해 친밀감을 높이게 된다.

2011년은 작가와 상인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접점을 찾는 시기였다. 먼저 대인시장에 입주한 40여 명의 작가를 위한 예술공방 레지던스, 릴레이기획전 지원, 야시장 등을 통해 작가들 에겐 창작의지를 고취시켜주었고, 상인이 주축이 된 마당극 · 노래 · 기타 교실 운영을 통해 노동에 지친 피로를 문화를 통해 해소 하게했다. 특히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연극으로 풀어내는 마당극단 대인배의 공연은 보는 이로 하여금 박수갈채와 응원을 보태게 하는 회한의 장이었다. 이들은 문화예술 교육의 수혜자가 아니라 자신의 일상을 예술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아마추어 예술가가 되었으며, 삶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함양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또한 야시장, 문화소풍, 어린이사생대회, 문화체험교실을 운영하며 독특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가 거듭나게 했다. 그중에서도 돋보였던 행사는 대인예술 야시장이다. 충장축제 기간에 맞춰 예술작품과 먹거리를 판매하는 마차와 등불을 제작해 시민들의 폭 넓은 사랑을 받았으며, 3일 동안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하는 등 지역 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야시장을 성공으로 이끈 힘은 바로 상주 작가들과 상인, 시민들의 '참여'였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기획팀과 작가, 상인들이 머리를 맞댔고 전체 컨셉을 '마차'와 '등불'로 잡았다. 시민공모를 통해 대어진 50대의 만물마차는 제각각의 매력을 뽐내며 손님들을 끌어 모았다. 작가들의 아트상품, 상인들의 먹을거리, 시민들의 아이디어물품 등 풍성한 볼거리, 살거리로 가득 찬 마차에는 3일 내내 손님이 북적였다. 학생과 시민들이 직접 제작한 700여 개의 등불이 시장의 밤을 밝힌 '등불 프로젝트'도 색다른 볼거리였다. 작가들은 '골목예술제'를 열어 좁은 골목 구석구석에 벽화를 그렸으며, 상인예술단의 체험극과 놀이패 신명의 마당극, 지역 공연팀들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흥을 돋웠다. 중장년층에게는 재래시장의 향수를, 젊은이들에게는 색다른 시장문화의 즐거움을 선사한 대인예술야시장. 예술과 일상이 어우러진 이 실험 무대는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대인예술시장의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대인 시장 프로젝트의 가장 큰 성과는 문화를 통한 연대감 형성과 통합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한 점이다. 평소에 문화를 접하지 못한 계층에게 향유권을 확대시킨 점, 지역 예술가와 상인·시민을 문화를 통해 매개하고 소통했다는 점, 이를 통해 외부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해 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점 등이 그 성과라 할 것이다.

· 예술의 거리 예방 재현의 씨앗을 뿌리다

예술의 거리는 갤러리, 화랑, 공방 등이 갖춰진 복합 문화공간이다. 삶과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의 공간이기도 하며 예술시장으로의 기대감과 예방광주의 자부심이 깃든 공간이기도 하다. 예술의 거리 프로젝트는 예술의 거리가 지닌 독특한 장소적 가치에 주목하며, 이러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아트마켓, 골동품 감정, 예술길 답사 등을 기획하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인적이 드문 거리를 예술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식은 많은 재원을 투입해 상시 이벤트로 채우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를 것이지만, 오랜 시간 이곳을 지켜왔던 상인들의 의견과 예술의 거리의 독특한 가치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는 것이 본 사업팀의 과제였다. 지역 전문가들과 기획회의를 거치고 예술의 거리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아트마켓, 야외경매, 예술길 답사, 문화난장, 다문화교육, 문화예술체험 등을 특화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예술의 거리 중앙무대에서 펼쳐진 야외경매는 아트로드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콘텐츠로 평가된다. 5회에 걸친 야외경매와 골동품 무료감정은 시민들에게 예술품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고, 상인들에게 향후 예술의 거리가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 야심작으로 기대되었다. 여기에는 천경자, 오승우, 이월중, 오승윤, 강연균, 배동신, 김영기 등의 미술작품과 자개보석함, 단계석벼루, 진다리 붓과 같은 공예품이 출품되었다. 경매 출품 가격은 3만원부터 2천만원까지 다양했다. 총 376점의 작품이 출품되어 160점이 낙찰되었다. 비록 낙찰률은 42.5%로 높진 않지만 예방광주의 명품과 명화들을 전문가가 감정하여 소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예술 감식력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예술의 거리가 자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특화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주말마다 아트마켓과 난장공연이 열려 한적한 거리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기존 골동품 위주의 개미시장에서 탈피해 예술가와 공방이 직접 제작한 아트상품과 핸드메이드 제품이 대거 출품되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21팀의 작가가 참여했고, 기발한 상상력과 디자인으로 제작된 아트상품은 예술의 거리를 상징하는 명물로 인기를 끌었다. 이밖에 책 나눔 전시, 유명인 애장품 경매 등을 실시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문화 나눔을 실천해 호응을 얻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거리 내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점 공간의 부재, 상대적으로 짧은 동선, 프로그램 운영 시 차량 통제가 되지 않는 점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보인다.

03 향후과제

대인예술시장의 경우 방문객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중장기적으로 장소 브랜드 전략이 구체화 되지 못한 점, 입주 작가들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은 향후 풀어야 할 숙제다. 예술의 거리 또한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놓고 고민해야 한다. 예술의 거리에 없는 구심점이 될 공간, 상징인물, 구매자 등을 개발하고 발굴할 필요가 있으며 새로운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정책기획팀 박경동

2-2 2011아시아문화포럼
아시아 문화담론의 장에 초대합니다

세계적 학자들, 아시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다 세계적 저명인사들을 초청, 학술회의를 통한 정보교류와 상호 협력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문화도시를 건설하고, 다양한 아시아 문화담론의 장으로서의 이론적 기반 조성

사업명	2011년아시아문화포럼
사업내용	학술행사(발제·토론), 부대행사 등 진행 · 학술행사 : 기초강연, 문화포럼(session1~3), 특별초청강연 · 부대행사 : 축하공연, 영아시안세션 캠프, 부채그림전, 다도체험전 등
기간	2011. 8. 22(월) ~ 2011. 8. 24(수)
예산	200,000천원
대상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 학생 및 일반시민 등
추진방식	- 학술행사 · 주제 : ‘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 · 구성 : 기초강연, 3개 세션, 9명 발제 13명 토론 - 영아시안세션 : 대학생, 대학원생 캠프, 포럼 및 토론 참가 - 행사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아시아문화포럼 자문위원회 및 집행위원회 구성·운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진행하는 아시아문화주간(8.22~8.28) 사업과 연계 추진

01 개요

아시아문화포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국제적 인지도 확산을 위해 2006년부터 시작되었다. 국내외 문화계 인사들을 초청해 학술회의를 통한 문화예술분야의 국제 교류와 네트워크를 구축을 목표로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였고, 2010년은 광주시가 직접 추진하였다. 2011년 포럼은 광주광역시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었다.



02 추진내용

·광주에서 펼쳐진 아시아문화담론의 장

2011년 아시아문화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포럼 관계자들은 봄부터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우선 자문위원회와 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시아문화주간(Asia Cultural Week, 8.22~8.28)사업과 연계하여 일정을 조정하였다. 자문위원들의 열띤 회의 끝에 ‘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로 포럼 주제를 결정하였고, 주제에 맞춰 발제자 및 토론자들을 섭외하였다. 이와 동시에 청년들의 포럼인 영아시안세션과 개막식 이벤트 등의 부대행사를 기획하였다. 영아시안세션 참가자 및 자원봉사자 모집, 발제문 취합, 홍보물 제작 등 포럼을 위한 준비는 정신없이, 그러나 큰 탈 없이 진행되어갔다.

마침내 8월 22일, 국내외 문화예술계 인사, 학생, 일반 시민 등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강운태 광주광역시장과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의 타종으로 개막이 선언되었다. 개막 축하공연은 광주지역 다문화가족 80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되어진 다문화오케스트라가 맡았다. 비록 연주는 숙련된 프로단원에 못 미치지만 그 열정과 진정성은 세계의 석학들의 갈채와 감동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했다. 이후 수디르 소포리 인도 국립 네루대학교 총장의 ‘한국-인도의 관계 : 교육과 문화교류를 통한 강화’란 주제로 기초연설이 시작되었다. 그는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문화, 미술, 교육 교류를 통해 신뢰구축과 관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후 환영만찬 행사로 개막식의 공식일정을 마감했다.

둘째날인 8월 23일은 본격적인 포럼이 진행되었다. 제1세션 ‘아시아의 역사와 기억의 재생적 창조’, 제2세션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의 축제’, 제3세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축제’라는 주제로 나폴리타노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시디렉터, 다케츠 요시오 HIMES(훗카이도 국제음악 교류 협회) 부이사장, 신상철 경희대 교수, 류재한 전남대 교수 등 국내외 석학들의 심도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마지막 날인 8월 24일에는 영아시안세션 결과보고회와 폐막식이 열렸다. 영아시안세션 참가자 50여명은 포럼기간 동안 숙식을 함께하며 ‘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부제: 청년, 그들의 담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했다.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학술행사의 분위기를 고조시켰고, 결과보고회에서는 6개팀이 ‘광주를 위한 축제 제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영아시안세션 참가자들과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자원봉사자들에게 대한 시상식, 정추 선생님의 특별강연,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의 폐회선언으로 숨가쁘게 달려왔던 3일간의 일정이 마무리 되었다.

· “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

이번 포럼은 아시아 안에서 하나와 다양성을 대조시키며, 축제가 가진 복합적 성격을 고찰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일즉다, 다즉일-축제를 통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 하나 속에 다양한 소문화가 병존한다’는 의미에서 하나의 아시아와 다양성, 그리고 축제를 연계했다. 제1세션 ‘아시아의 역사와 기억의 재생적 창조’를 통해 아시아 축제의 역사적 기원과 의미를 논의하고, 제2세션 ‘문화적 다양성과 세계의 축제’에서 다양한 세계 축제의 사례를 살펴본 후, 제3세션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축제’로 광주와 연계점을 모색했다.

제1세션의 발제자는 미국 워싱턴 홀로코스트 기념관 전시디렉터인 댄 나폴리타노, 일본 오키나와 국제대학의 이시하라 마사이에 교수, 2008광주비엔날레 특별전 ‘봄’의 큐레이터로 참여했던 축제전문가이자 평론가인 클레어 탄콘스였다. 제1세션은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운영방안 설계를 위한 시범사업단이 전담 진행하였으며 특히 절대 권력에 대한 저항과 그 기억을 축제로 승화시키는 세계적 사례들을 통해 민주 평화 인권도시 광주의 축제를 성찰해보는 시간이었다. 제2세션에는 다케츠 요시오(훗카이도 국제음악교류협회 부이사장), 충 차오(前 대만 타이베이 아트빌리지 사무국장), 위엔 카이성(한남성 사회과학기술원 박사)이 발제자로 나서 일본, 중국, 대만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세션은 전영철 상지영서대 교수, 임재해 안동대 교수, 류재한 전남대 교수 등 국내 학자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축제’를 주제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광주의 미래 지향적인 축제 방향에 대해 실천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포럼과 함께 진행되었던 영아시안세션에서는 참가자들이 팀별로 광주를 위한 축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광주의 재래시장(양동시장, 말바우시장, 무등시장, 대인시장)을 활용한 축제, 전통주와 연계한 술 축제, 재활용을 응용한 환경축제 등 다양한 축제에 대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03 향후과제

2011아시아문화포럼은 ‘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라는 주제로 국내외 저명 학자와 전문가가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었던 자리였다. 또한 50여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영아시안세션이 진행되어 포럼에 활기를 더했다.

앞으로 발제자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광주는 물론 국내 및 아시아권 학자들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아시아권 네트워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행사 이후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및 제안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 차기 행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아시아문화포럼에 참석했던 국제적인 전문가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광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유도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홍보교류팀 김보람

2-3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S.P.A.P(Sajik Public Art Project)

기억과 예술이 숨쉬는 ‘공원풍경’으로

사직공원의 버려진 공간과 노후화된 시설물을 예술로 리모델링해 생태공간을 최대한 보존하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사직공원의 기억을 예술로 재생시키는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명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사업내용	사직공원 내 5점의 공공예술작품 설치
사업기간	2011. 1. ~ 2012. 7
예산	1,350,000천원
사업장소	광주 사직공원 일대
추진방식	- TF팀 구성 · 운영하여 사업 방향 및 작품설치장소 선정 - 작가워크숍을 통한 기본설계안 확정, 제작 · 설치 업체 선정 - 시민의견조사(500부), 지역주민의견수렴회 실시





01 개요

공원풍경 Parkscape : 기억과 관계 광주 사직공원은 나라의 안녕과 풍년을 기원하며 토지의 신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사직단이 있는 도심공원이다. 일제강점기에 나라의 사직을 끊고 민족의 혼을 말살하기 위해 사직단의 격을 낮추고 공원으로 삼았다. 이는 창경궁이 동물원으로 변모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속인이 범접하기 힘들었던 신비한 장소의 품격을 의도적으로 낮춘다는 의미가 있을 것으로 추측해 본다. 1960년대 말 사직동물원이 들어서면서 사직단은 헐렸고, 그 뒤 사직단의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조성되자 1991년 동물원이 우치공원으로 옮겨지고 사직단은 복원된다. 지금까지 사직공원은 사직단, 동물원, 야외수영장, 소풍놀이 등의 역사적 기억과 추억이 깃든 장소이다. 하지만 현재는 도심과 차단된 어두운 느낌으로 퇴색해버린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기억을 현재의 의미로 재생시키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다.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지난 기억에 대한 이야깃거리가 가득한 문화예술공원을 목표로 새로운 공원풍경 ‘Parkscape’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로 시작되었다.

02 추진내용

· ‘사직예술공원으로’ 뭉친 건축가들

사직단, 동물원, 수영장, 소풍장소 등으로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곳인 만큼 역사성과 장소성을 살리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는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필요했다. 그래서 도시계획, 조경, 디자인, 스토리텔링 등 각 분야의 전문가 10인으로 TF팀을 구성하여 총 10회 회의를 통해 양림동 둘레길, 광주폴리프로젝트와 연계되도록 작품 설치 장소를 선정했다.

숲속의 화장실, 양림 파출소를 문화파출소로 리모델링하자 등 이색적이고 흥미로운 아이템들이 많이 제안되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이 두 가지 안은 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기약하며 최종 장소를 확정했다.

작품설치장소는 총 5곳이다. 장소 선정의 주안점은 공원에 새로운 것을 추가하는 것 보다 버려진 공간, 기존의 시설물을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첫 번째 장소는 공원의 시작부이면서 양림파출소가 있는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주변이다. 양림파출소를 작품화하는 안이 선정됐다면 사직공원의 시작을 알리는 랜드마크가 되었을 것인데 그것이 어려워지자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두 번째 장소는 호국무공수훈자전공비 옆 작은 샛길이다. 사람이 잘 안다니는 초라해 보이는 길을 매력적이고 산책로다운 산책로를 보여 주자라는 취지로 선정했다.

세 번째는 기존에 있던 볼 품 없는 조형물(정자)을 작품화하자는 것이고, 네 번째는 노후화 된 공원관리사무소, 마지막은 옛 수영장부지 스탠드이다.

이 프로젝트에 적합한 작가를 선정하는 단계도 신중을 기했다.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한 작품이어서 일반 미술 작가들 보다 건축가들이 이 프로젝트를 잘 풀어줄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최근 광주폴리프로젝트 총감독인 승효상 감독을 위원장으로 추대하여 이 프로젝트를 잘 소화할 수 있으면서, 공공성을 지닌 건축가를 추천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하여 선정된 5명의 작가는 건축계에서 내로라하는 선도적 작가로 꼽히는 신혜원, 조민석, 이민아, 김영준, 박동준 건축가이다.

이 프로젝트는 하나의 작품을 한명의 작가가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공원이라는 큰 공간에서 함께 어울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워크숍을 통해 꾸준히 서로의 컨셉을 공유하고 조율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 8월부터 수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장소별 작품 컨셉을 정한 뒤 광주와 사직공원의 역사적 맥락, 현재의 위상과 미래상에 관한 의견을 수렴해 기본 설계안을 도출했다. 공식 작가워크숍 외에도 수시로 현지답사를 통해 사직공원의 인문·지리·생태환경을 파악했고 이들 토대로 작품구상안의 기본 골격을 잡았다.

보통 자신의 작품을 최대한 돋보이게 하려고 조형성을 강조하기 마련이나, 참여 작가들은 자신들의 작품이 돋보이는 것보다는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친숙하며 자연스러운 변화를 추구했다. 전체적으로 작품들의 연결이 자연스러운 것은 이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작품의 재료, 연결 동선, 식재 등 주변 작품과 조화를 이루는데 작가들은 신중했다.

첫 번째 작품 ‘스텝’(김영준)은 공원 입구의 주목 받지 못하는 공간인 경사지를 ‘동·서·남·북의 레벨차’를 이용해 계단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극복해낸다. 동시에 소 공연장, 버룩시장, 야외 갤러리 등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작품 ‘기슭’(이민아)은 호국무공수훈자 전공비 옆 산책로를 ‘들여다볼수록 빛을 발하는 공간’으로 꾸민다는 복안이다. 다양한 층위에 위치한 길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해 주변의 조경과 더불어 걷고 싶은 공원의 길로 재구성하는 작품이다. 세 번째 사직공원 ‘빈집’(조민석)은 공원 내 파고라와 배드민턴장을 아이들의 소풍공간으로 조성하며, 속이 흰히 뚫린 기둥 형태의 공간에 기하학적인 도형의 창을 내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한다. 네 번째 ‘흔적’(박동준)은 공원관리사무소의 일부를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 사직단과 팔각정으로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가교로 활용한다. 마지막 ‘흐르는 풍경’(신혜원)은 옛 수영장 부지 스탠드에 리드미컬한 곡선을 가미해 인위적이고 삭막한 공간을 다목적 활용 공간으로 조성한 작품이다.



· 얹히고설킨 공공예술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이 땅에 무언가를 세운다는 것, 특히나 시민의 땅에 무언가를 세운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한 것이다.

작가의 의도를 존중하면서, 관련기관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해답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모두가 만족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만난 기관, 단체만도 수십 곳에 이른다. 광주시청 내에서도 문화수도에 술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건설행정과, 회계과, 건축과 등 다양한 분야 실무자들과 접촉해야 했고, 남구청, 양림파출소, 남부경찰서, 지방경찰청, 광주콘텐츠산업지원센터, 광주공원관리사무소, 한국전력공사, 배드민턴동호회, 족구동호회, 양림주민자치위원회 등과 의견 조율이 필요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실행의 과정은 최종적으로 결과물에 응축되어 나타나겠지만 많은 난관을 극복 과정은 향후 실무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축적되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사업은 끝났지만, 사업을 통해 형성된 관계는 지속된다.

03 향후과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한 대상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기관들이 얹혀있다. 또한 그 기관들끼리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상태여서 총괄적인 마스터플랜이 절실하다. 사직공원의 식생분포, 시설물, 하다못해 돌덩이 하나까지 기본 조사를 거친 다음 사직공원의 경관을 어떻게 조성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그 계획을 토대로 관련기관들끼리의 의견들을 조정하고 조율해나가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사후관리시스템이 부재하다. 만들고 설치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유지·관리하는 별도의 예산 마련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작품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프로그램 운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기획팀 김 주 은

2-4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

‘13번지 드로잉페스타’ 땡땡이 마라톤

문화전당 공사장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길이 1.2Km 높이 6m 보호막을 커뮤니티 아트 형식으로 예술화하는 공공미술 작업

사업명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화 사업
사업내용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1.2km를 공공미술화 함
사업기간	2011. 10 ~ 2011. 12.
예산	209,090천원
사업장소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일원
추진방식	－ 문화체육관광부 발주, 우리재단 수주 － 미술인과 시민 참여형 공공미술 작업

01 개요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을 공공미술작품화 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비전을 공유하고 문화도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입찰에 부친 것을 우리재단이 수주하여 사업을 하였다.

우리재단은 이 사업을 ‘13번지 드로잉 페스타’ 땡땡이 마라톤이라고 명명하고 우리나라 공공미술 1세대인 박찬국 감독에게 의뢰하였다. 박찬국 감독은 이 사업의 주제를 ‘몸과 음식’으로 정하고 공사장 보호막 1.2km를 네 곳으로 구획하여 작가와 시민참여형 작업으로 설계하였다. 리딩아티스트와 시민참여자가 집중제작 기간(11월12일부터 26일)을 두어 작업을 하였다.



02 추진내용

· 네 곳 구역은 **바, 다, 나, 사**으로 구획되었다.

바구역은 만인의 프레임(동부경찰서 일원)으로 시민 2천명이 B5 크기의 도화지에 몸과 음식을 주제로 그림을 그려 액자로 제작 한 후 부착하였다. 11명의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민들과 교감하며 작업을 하였다.

다구역은 맨션벽(대성학원 일원)으로 430m 벽에 몸과 음식을 주제로 8명의 리딩아티스트가 참여하여 시민작가인 마라토너들과 작업을 하였다.

나구역은 그래피티 배틀(인쇄골목 일원)로 몸과 음식을 주제로 9개의 그래피티가 공동창작 되었다.

사구역은 자석벽 구간(일방로 길)으로 공공미술 작업 과정과 작업 후에 시민들이 자석을 활용하여 의견을 표시하는 작업인데 시민들이 사적이거나 사회적 메시지 등을 다양하게 표현하는 방식이다.

집중제작 기간 동안에 세 번의 음식프로젝트를 하였는데 홍어, 빵, 참치가 소재가 되었다. 홍어와 빵, 참치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서 시민들에게 몸과 음식의 중요성, 의미 등을 설명하고 홍어와 참치가 식탁에 오르기까지의 과정과 빵이 만들어지는 과정 등을 시연하였다.

03 향후과제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 작업은 진행상 몇 가지 아쉬운 점을 남겼으나 작가와 시민이 서로 경계를 두지 않고 작업하였다는 점, 미술 작업에 몸과 음식이라는 주제를 정하여 작업하였다는 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여 소란스럽고 복잡한 공사장 주변을 미술로 채색하였다는 점 등이 주목할 만하다.

이에 아시아문화전당 공사장 보호막 공공미술 작업에서 느낀 점들을 과제로 발굴하여 향후 공공미술 작업에 적용 할 수 있어야겠다.

정책기획팀장 박강배

2-5 舊) 전남도청 공사차단막 예술작품화사업

구 전남도청에 예술옷 입히다

공사장에 유쾌한 화장을? 낯익은 과거와 낯선 미래, 기억과 꿈의 파노라마 속에 살아가는 광주시민들의 삶을 주제로 구) 전남도청 전면부분 공사 차단막을 광주 지역 작가들이 예술 작품화함

사업명	구)전남도청 리모델링 공사 차단막 예술작품화 사업
사업내용	새롭게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재탄생하는 구)전남도청에 대한 시각적 쾌적성 제고를 위해 구)전남도청 전면부분 공사 차단막을 광주 지역 작가들이 예술 작품화함
사업기간	2011. 4 ~ 2011. 7
예산	25,000천원
사업장소	구)전남도청 보수·보존공사 분진 차단막 150M(높이 19M)
추진방식	- 20인의 광주지역 작가를 선정하여 합작워크숍을 통해 창작 작업 진행 - 합작 결과물은 공공성 및 대중성을 고려한 그래픽 작업 - 제작방식과 예술성에 대한 시민 홍보 전개

01 개요

구)전남도청공사 차단막 예술작품화 사업은 공사현장 이미지를 공공미술 작업을 통해 시각적 쾌적성을 부여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총 2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고 작품의 존치기간은 2년여로 예상되고 있다. 작품의 규모는 높이 19m×길이 150m에 달한다. 사업진행방식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본 프로젝트는 시각적 이미지 개선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광주 5·18에 대한 기억의 재생공간으로서 구 전남도청이 지닌 특별한 장소성, 그와 같은 역사적 건물이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재탄생되는 유의미한 변화,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구축에 집중된 시민사회의 관심 제고 등 다양한 의미가 사업목적에 내포돼 있다.



02 추진내용

· 20인 작가들, 일거에 붓을 들다

본 사업은 다양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만큼, 프로젝트의 추진 절차 역시 작품 구상에 대한 논의로부터 시작되었다. 창작예술품으로서의 개별 작가들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사업취지가 갖는 메시지를 일관된 느낌으로 표출해야 하는 공감의 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우선 프로젝트가 지니는 공공성에 따라 다수 작가의 합동창작 형태가 진행 방식으로 채택됐다.

이에 따라 20여명의 광주지역 작가가 선정되었고, 2차례의 워크숍을 개최했다. 참여 작가 워크숍에서는 개별 작가의 표현 스타일을 유지하면서도 사업목적에서 제시된 통일된 메시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장시간의 토론을 거치며 의견이 모아졌다. 도시는 사소한 일상과 거대한 꿈이 병존하는 곳이지만, 그 일상의 뒤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라고 가끔씩 자문하는 시민의 사색이 결국 도시의 미래를 규정해간다는 착안이었다.

광주의 정체성과 자신과의 관계를 자문해보는, 이를테면 '광주의 문화냄새 찾기'로 명명된 작업테마는 광주의 궤적과 시공, 당대의 일상, 그리고 광주의 꿈을 담자는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작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 “도시는 사소한 일상과 거대한 꿈이 병존하다”

광주는 우리에게 무엇일까? 도시는 늘 술한 일상이 풍기는 다양한 삶의 냄새에 가려져 있기에 답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지난 광주의 궤적과 시민의 소망 속에 존재하는 미래 광주의 모습에서 '나와 광주'로 이어지는 관계의 일면을 포착할 수 있다. 20인 작가의 숨결이 담긴 이 프로젝트는 낯익은 과거와 낯선 미래, 기억과 꿈의 파노라마 속에 살아가는 시민의 삶을 담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농경사회의 우직한 민중정서, 피와 땀이 뻗어 치열한 사회변혁의 몸부림과 그 상처들, 상처의 치유를 통한 일상의 회복,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비상하고자 하는 시민의 의지가 그곳에 담겨있다. 기억의 재생이 창조의 동기로 작용하는 선순환구조를 통해 도시는 생명을 영위한다. 20인 작가들은 그렇게 광주를 얘기하고 있다.



· 교훈을 남긴 합동창작의 난제들

구체적인 방향이 설정되긴 했지만 개성이 다른 20인 작가의 손길이 어떠한 연계성을 갖고 통일된 이미지를 만들어 낼 것인가란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밑그림을 그리고 그곳에 함께 색을 입히는 벽화제작 방식이 손쉽게 떠올랐지만, 일찌감치 논의에서 밀려났다. 그런 제작방식을 택한다면 굳이 합동창작의 틀이 필요하겠느냐는 것이 대다수 작가들의 의견이었다. 길이 150M에 달하는 화폭의 규모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한 그림이 될 것이라는 반대론에도 힘이 실렸다. 결국 작가 개개인의 스타일이 충분히 발현될 수 있도록 1/10로 축소된 화폭에 매달려 일거에 동시작업을 한 후, 1차 완성된 그림에 필요한 이미지를 다시 추가해 보정하는 제작과정 이 하나의 대안으로 도출됐다. 이 같은 단계별 제작방식은 아트 차단막의 제작공정에 어울리는 일이기도 했다. 차단막의 규모상 '축소화폭에 그림그리기→스캐닝→컴퓨터 그래픽→실사출력'과 같은 단계별 공정이 어차피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미지 추가와 보정작업은 컴퓨터 그래픽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과제였다.

테마와 제작방식에 대한 합의가 도출된 후, 20인 작가들은 곧바로 제작에 들어갔다. 작업은 구도청 앞 광장에 위치한 쿤스트할레(문화마루) 전시홀에서 이뤄졌다. 작업 공간 한편에 쌓아 둔 막걸리를 마시면서 작가들은 농부들처럼 일했기에 1차 작업은 하루 만에 완성됐다. 다음 날 곧바로 품평회에 들어갔다. 작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그리고 광주문화재단 관계자가 상호 의견을 모은 합평회에서는 세 가지 정도의 아쉬운 대목들이 주요 애깃거리가 됐다. 우선 예술 차단막이 걸릴 구도청건물이 갖는 상징성, 즉 5·18 항쟁의 핵심 공간이라는 사회사적 의미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초기 논의단계부터 우려되었던 개별 작가들의 작업을 잇는 스토리텔링이 부실하다는 점, 화폭의 면별로 분산된 이미지가 혼란스럽다는 점 등이 논란거리가 됐다.

컴퓨터 그래픽 과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들을 보정하자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은 그러나 순탄치 않았다. 일정 부분 작가들의 개성이 훼손되는 일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공공미술이 존중해야 할 다중의 가치를 내세우며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끈질긴 노력을 기울였지만, 합의에 이르기까지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을 정도다. 고민스럽고 난감한 시간들이었으나 유익한 체험이었다. 다수의 작가들이 참여하는 협동 창작의 경우 절차와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참여작가〉

윤남웅 · 신양호 · 박문종 · 이기성 · 김강석 · 김영설 · 안홍제 · 조승기 · 전현숙 · 김택현
주대희 · 홍희란 · 권승찬 · 김민호 · 최양선 · 박지현 · 임남진 · 김태삼 · 조정태 · 최병진

03 향후과제

이번 프로젝트는 광주지역 예술인들에게 공공미술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지역예술인들의 공공성 고취 계기를 마련하는데 일조했다. 또한, 역사적 건물이 아시아문화전당으로 재탄생되는 유의미한 변화에 예술작품화 사업은 의미 있는 시도였다는 평을 받았다. 개별 작가들의 독특한 개성을 드러내면서도 사업취지가 갖는 메시지를 일관된 느낌으로 표출할 수 있었으나, 대중성과 공공성을 갖기에는 한계를 보였다. 보다 의미 있고 공감되는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직접 참여나 의견을 반영해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광주에는 현재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이 활발히 이뤄짐에 따라 구)전남도청, 구)시민회관과 같은 역사적 건물을 활용하여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변모하는 공간을 시민과 함께 문화예술로 유쾌한 화장을 해나가면 어떨까?

정책기획팀 김 주 은



2-6 광주폴리 유지관리 및 활성화

도심재생 디자인프로젝트, 광주폴리

광주 **어반폴리** 11개소를 유지관리 및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폴리투어단을 모집하여 운영

사업명	광주폴리 유지관리 및 활성화
사업내용	광주광역시로부터 수탁한 광주폴리 11개소를 유지관리하고 활성화
기간	2011. 11 ~ 2011. 12
예산	10,000천원
장소	장동로터리 등 옛 읍성터 주변 광주폴리가 설치된 11개 장소
추진방식	- 광주광역시 : 우리재단 광주폴리 위수탁 협약체결 - 전문 청소관리 업체에 용역을 맡겨 1일 3회 유지관리 - 폴리해설사를 양성하여 광주폴리 투어 실시

01 개요

· 광주폴리 추진배경

- 원도심 공동화에 따른 활성화 방안으로 도시 재생 수단과 접목하여 도심 내 브랜드 가치가 있는 도심거점 구축 필요
 - 저비용 고효율의 유명 디자이너 브랜드를 활용 광주만의 명소를 만들어 후세에 남길 수 있는 문화적 자산 창조
 - 도심 내 작은 공간, 명소 기념물 아이콘화로 관광 명소화 및 구도심 재생
 - 구한말 일제에 의해 철거된 광주읍성의 무형적 복원을 의미
- ※ 어반폴리(Urban Folly) : 도심에 설치하는 작은 타워나 비범한 장식용 건물



· 광주폴리 개요

- 위 치 : 광주읍성터(10개소) 및 옛 농장다리(1개소)	
- 폴리디자인 추진계획 방침결정	’ 10.8.31
- 폴리프로젝트 국제세미나 개최	’ 10.10.28~29
- 폴리프로젝트 위수탁협약 체결(시:비엔날레재단)	’ 10.11.17
- 장소 및 작가선정	’ 10.11.26
- 폴리프로젝트 참여건축가 워크숍	’ 10.12.3
- 참여건축가 현장답사(2차)	’ 10.12.3
- 기본디자인 시민보고회	’ 11.2.17
- 착공식 및 작품전시회	’ 11.5.12
- 관리방안 확정(市 → 문화재단)	’ 11.7.9
- 준공식 개최	’ 11.9.1
- 위수탁 협약체결(市:문화재단)	’ 11.10.
- 문화재단이 유지관리 및 활성화사업 시작	’ 11.11.1

· 광주폴리 설치현황

연번	위치	작품명	작가
1	장동사거리 교통섬	소통의 오두막	후안 헤레로스
2	김재규 경찰학원 앞	서원문 제등	플로리안 베이젤
3	대한생명 사거리	광주 사람들	나데르 테라니
4	금남로 공원앞 인도	유동성 조절	알레한드로 자에라 폴로
5	충장 치안센터 앞	99칸	피터 아이젠만
6	광주세무서 앞	열린 장벽	김세진, 정세훈
7	황금로 사거리	기억의 현재화	조성룡
8	구 광주시청 사거리	열린 공간	도미니꼬 페로
9	문화전당 옆	사랑방	프란시스코 산인
10	대성학원 앞	잠망경과 정자	요시하루 츠카모토
11	옛 농장다리	푸른길 문화센터	승효상

02 추진내용

광주폴리는 광주광역시가 계획하고 (재)광주비엔날레가 시설하여 우리재단이 유지관리 및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우리재단은 광주폴리를 유지관리와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는데 △유지관리의 핵심은 전문 청소관리 업체에 용역을 맡겨 1일 3회(아침, 점심, 저녁, 회당 2시간) 청소를 하고 육안으로 이상유무를 파악하는 것이고 △활성화는 2012년 본격적인 광주폴리 투어에 앞서 폴리해설사를 양성하고 홍보물(동영상, 안내 책자)을 제작하는 것이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축가들의 작품이 사람과 자연재해에 완전 노출되어 있다는 이유로 모든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때 폴리의 유지관리가 계획과는 달리 실제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또한 전기시설, 나무 마감재 사용, 차량이 다니는 길바닥에 시설, 조명과 음향이 설치되어 있는 11개 폴리의 특성에 맞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우리재단 형편으로는 쉬운 일이 아님도 알게 되었다. 결국 여러 가지 유지관리상의 문제점을 확인하였으나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2012년 사업으로 미루어 두었다.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폴리투어단을 모집키로 하고 세 차례 시범투어를 해보았다. 역시 쉽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투어단에 맞는 맞춤형 투어가 필요하고 전문 해설사와 교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12월에 3일 동안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폴리해설사 43명을 양성하였다. 아울러 교육용과 홍보용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책자형 안내문을 만들어 2012년을 준비하였다. 연계 코스 발굴은 2012년으로 미루었다.

03 향후과제

11개 폴리의 시설에 맞게 적절한 유지관리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널리 폴리를 홍보하여 투어단을 많이 모아야 한다. 또한 전문적인 폴리 해설을 위하여 해설사 보강 교육을 해야 하며 폴리만으로는 매력적인 투어상품이 될 수 없으므로 연계코스를 발굴해야 한다.

정책기획팀장 박강배

2-7 사직통기타촌 공연 활성화 사업

광주의 30여년 포크음악사를 총정리하다

“포크음악의 메카 사직골 활성화 공연”

광주만의 독특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30여 년 동안 광주포크의 역사를 지켜온 뮤지션들이 포크음악사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공연 개최

사업명	사직통기타촌공연활성화사업
사업내용	사직동 음악촌 활성화 사업에 핵심 동기 마련을 위하여 유명 포크가수를 초청하여 포크가수 특별공연 추진
사업기간	2011. 1. ~ 2011. 4
예산	50,000천원 (자체)
사업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추진방식	- 광주문화재단 주최, (사)문화예술진흥회 주관 - 아카이브전 ‘광주의 소리’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한 공연 기획 - ‘산도 30년쯤 바라봐야 산이다’ 공연 2회 진행

01 개요

사직통기타촌 공연 활성화 사업은 광주의 포크음악의 메카인 사직동 음악촌을 기획공연을 통해 활성화시키기 위한 동기에서 시작됐다. 사직동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진행되면서 7대 문화권중 문화교류권으로 지정됨에 따라 양림 역사마을,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 사업으로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동네다. 또한 광주의 포크음악과 오랜 역사와 추억이 담긴 곳으로 알려져 있어, 사직동의 정체성을 부각시키고 광주의 포크음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유명 포크가수를 초청하여 특별공연을 기획했다. 사업 추진방식은 광주문화재단 (사)문화예술진흥회와 공동 기획, 운영은 (사)문화예술진흥회가 담당하였다.

02 추진내용

· **광주의 대표 포크가수 한자리에 모이다.**

광주 시민과 가장 가까운 분야인 대중가요, 특히 통기타로 통하는 포크음악은 광주의 근·현대 대중가요의 변천과 함께 시대상을 반영해주는 지표이기도 하다. 광주의 독특하고 풍성한 음악적 자양분과 폭넓은 매니아층은 다른 어느 곳에도 없는 광주만의 문화적 색채가 가미된 통기타 거리를 만들어 내었다. 특히 사직공원을 중심으로 20여 년에 걸쳐 자연스레 조성된 ‘사직골 통기타거리’는 오늘날 광주의 문화명소로 다시금 각광받고 있다. 지금은 이곳을 중심으로 전국 포크음악 동호인들의 향수·체험 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포크 음악의 메카로서 전국적인 문화관광의 명소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큰 숙제로 다가왔다.

이러한 시점에서 30여년을 이어온 광주 포크음악의 산 역사이며 광주를 대표하는 포크 뮤지션들의 철학과 음악세계를 담아내는 기획공연으로 문화광주의 새로운 출발에 큰 원동력이 되 고자 하였다.



· 포크음악사 “산도 30년쯤 바라봐야 산이다”

30년 이상 광주에서 통기타 음악활동을 펼쳐온 장본인들이 모여 광주 포크음악사를 선율로 풀어냈다. 광주사람이 만들고 광주사람이 부른 곡들로만 채워진 1시간 50분간의 공연 내내 들 어보지 못한 음악에 대한 어색함이나 진부함을 느끼기 보다는 열린 마음에서 느껴지는 신선 함과 촉촉한 향수가 묻어나는 공연이었다.

음악만을 평생 지켜온 고집스러운 5인(김원중, 이장순, 정용주, 박문옥, 한보리)의 뮤지션이 그 간에 겪어온 평범하지 않은 삶을 반영한 아름다운 작품들, 그리고 광주의 지난 음악사를 되돌 아보며 광주 문화의 정체성과 비전을 제시해준 가치 있는 공연이란 평을 받았다.

이는 지금껏 한 번도 없던 일로 광주 포크 음악사를 다시금 짚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함 으로서 향후 음악을 비롯한 광주 문화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자극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무엇보다 광주 시민들이 광주의 음악과 그 역사에 있어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 이 가장 큰 보람이라 하겠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스타성에만 의존하고 있는 요즘의 대중문화 에 비교해 절대 뒤지지 않는 문화적 자양분을 가지고 있고 그 안에서 우리만의 색깔을 내며 다양한 음악과 문화들을 생산해 내고 있다는 자체에 감탄하고 관심을 갖게 되었으니 말이다.

03 향후과제

이기회공연은 말바우아침의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 진행과 1세대 포크음악가수 5인이 만 나 광주의 색깔을 내어 광주의 추억, 역사, 기억, 소리에 대해 선율로 풀어낸 시간이 었다. 또한, 포크 음악사를 다시금 짚어보고 광주 시민들이 광주의 음악과 그 역사에 있어 자부 심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보람이라 하겠다. 이러한 공연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 리 잡을 수 있도록 지역의 문화단체, 예술인들에게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관객 유치였다. 적극적으로 SNS 활용한 홍보, 보도 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홍보 했지만, 시민들의 관심은 저조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런 광주만의 음색을 지닌 의미 있는 공연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자 리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지 역문화예술인들에게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여 광주의 문화예술이 지니고 있는 가치와 잠재력 이 시민에게 전달되어 광주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길 기대한다.

정책기획팀 김 주 은

03 문화예술진흥 지원

- 3-1 2011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 3-2 2011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 3-3 2011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 3-4 201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 3-5 2011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 3-6 2011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사업
- 3-7 창작지원컨설팅사업

3-1 2011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을 신장시키는 사업

사업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사업내용	· 4개 분야, 29개 세부분야 사업 지원 – 시민문화향수지원: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사진, 다원 – 전문예술창작지원: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사진, 다원 – 우수창작활동지원:음악, 연극, 무용, 국악, 다원 – 젊은작가창작지원: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사진, 다원
사업기간	2011. 1 ~ 2011. 12(단년도, 계속사업)
예산	758,000천원
사업장소	광주광역시 관내
추진방식	– 공모 접수 및 심사 후 지원 사업자 선정

01 개요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광주의 문화예술 저변확대를 위해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나 사업을 하는 전문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생활 속의 문화예술 지원방향을 설정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 제고와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된다.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시민문화향수지원사업,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우수창작활동지원사업, 젊은작가창작지원사업으로 4개의 세부사업으로 분류되며, 2011년 사업예산은 7억5천8백만원이며 지원대상은 198개 사업이다.



02 추진내용

· 지원의 원칙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지원신청은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을 접수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쳐 사업자가 선정된다. 지원은 4개 세부사업별로 각각의 기준이 다르다. 먼저 시민문화향수지원사업은 문화소외계층의 시민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한 동호회나 모임으로, 3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 또는 광주시민 문화예술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 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영역은 8개 장르(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사진, 다원)로, 지원 금액의 규모는 1~4백만원까지다. 두 번째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은 회원수가 100명 이상, 전업작가가 80% 이상 구성 또는 10년 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한다. 지원영역은 8개 장르(문학, 미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사진, 다원)로, 지원 금액의 규모는 2~1천8백만원까지다. 세 번째 우수창작활동지원사업은 전업작가가 70% 이상 구성, 5년이상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한다. 지원영역은 5개장르(음악, 연극, 무용, 국악, 다원)로, 지원 금액의 규모는 1천1백만원~2천만원까지다. 마지막 젊은작가창작지원사업은 처음으로 개인 전시, 공연 등을 계획하는 작가나 기획자를 우선지원 하며, 세부분야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백만원~5백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신청은 1개 단체 2개 사업까지 신청 가능하나, 1개 사업만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단, 협회는 2개 사업까지 지원 가능하다.

· 심의 위원회 구성과 심사기피제도 적용으로 투명성 확보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선정은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 재단 내 · 외부 심사위원선정단을 구성하는데, 1차적으로 2배수 예비후보를 선정하고 2차로 장르적 특성, 성별, 연령, 지역 편중 등을 고려해 7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특히 지원 선정단체나 신청 사업과 개연성이 뚜렷하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은 해당 사업 심사에서 심사기피제도를 활용하여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심사 방법은 계량화에 의한 점수제로 최고 · 하점을 제외하고 평균으로 순위를 선정하였고, 우수창작활동지원, 전문예술창작지원 중 1천만원 이상은 필요시 인터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협의를 통해 최종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다.

· 지원 결정

분야	신청내역				지원결정 내역			
	신청건	비율(%)	신청 금액	비율(%)	선정건	선정률(%)	배정 금액	비율(%)
계	420건	100%	2,962,825	100%	198건	47.1%	719,350	100%
연극	30건	7.1%	337,000	11.4%	12건	40%	59,000	8.2%
무용	36건	8.6%	390,000	13.2%	14건	38.9%	90,000	12.5%
음악	57건	13.6%	377,704	12.7%	27건	47.4%	102,000	14.2%
국악	45건	10.7%	378,450	12.8%	23건	51.1%	94,000	13.1%
문학	88건	20.9%	399,341	13.5%	43건	48.9%	113,350	15.8%
미술	96건	22.9%	463,310	15.6%	50건	52.1%	141,000	19.6%
사진	19건	4.5%	90,000	3%	11건	57.9%	32,000	4.4%
다원 예술	49건	11.7%	527,020	17.8%	18건	36.7%	88,000	12.2%

· 사업 평가

지원이 결정된 사업은 본래의 지원취지 및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되었는지의 여부와 개별 지원 사업에 대한 작품성과 완성도 등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지원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사업평가는 분야별로 전문 평가위원과 시민모니터 요원들이 현장에서 작품 혹은 공연을 관람한 후, 이를 토대로 공연의 작품성과 완성도, 출연자(스텝포함)의 공연 수준, 당초 취지 실현성, 지속적인 재공연 가능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또한 지원사업 담당자가 지원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또는 관람소감, 신문기사 등 공연관련 행정서류 등을 토대로 단체의 행정능력 등을 평가한다. 작품성 평가와 행정평가를 합산하여 산출되는 최종 평가점수는 A~D의 4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이를 익년도 심사과정에 반영함으로써 증명된 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시스템을 정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연도별 평가결과에 대한 지원단체별 DB화하여 사전 지원심사 및 사후평가의 효율적인 환류시스템 구축하여 지원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03 향후과제

2011년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공정한 지원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지속단체와 신규 단체가 고루 선정이 되었으며, 역량 있는 단체를 지속 지원함으로써 자생력 확대 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궁극적으로 본 사업은 지역 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창작의욕 고취와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였고, 일반시민들의 자발적인 예술활동 지원으로 문화예술 저변확대에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신청과 교부신청, 성과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노출하였다. 수작업에 의존하는 방식을 탈피해 중앙 관리하는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신청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밖에 지원사업의 규정과 지침을 이행하는 참여 사업자의 인식 또한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업 참여자의 수행 능력과 행정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이나 워크숍 등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절실히 요구된다.

문화예술지원팀 이금 현



3-2 2011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지역 문화예술 특화 프로젝트를 통한 브랜드 발굴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예술적 배경을 근간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을 활성화 하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지역내 대표 브랜드 육성,발굴사업

사업명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사업내용	- 광주의 역사적 경험과 예술적 배경을 고려한 문화예술 현장 활성화 - 문화예술 현장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브랜드 발굴 - 지역 예술 생태계 조성을 통한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사업기간	2011. 5 ~ 2011. 12.
예산	200,000천원
사업장소	5개 단체(광주오페라단, 사)문화터미널, 박준희무용단, 놀이패션명, 사)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지원단체 선정 - 선정단체 연간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지원

01 개요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은 지역의 역사적 경험과 예술적 배경 등을 고려함으로써 문화예술 현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 지역 문화예술 현장 활성화 프로젝트 지원을 통한 브랜드 발굴, 지역 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하는 지원 사업이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을 지원하되, 관성적 형태의 단순 공모 방식에서 탈피하여 지역성을 고려한 기획형 프로그램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지역 거주 작가, 안무가, 연출가, 배우, 예술기획자 및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배경을 소재로 한 창작 발표사업 또는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인물, 소재를 활용한 특화사업 등으로 광주의 문화환경과 연계하여 문화예술 생태계를 조성하고 예술 소비자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기획형 사업을 지원 대상 범위에 포함한다. 2010년도부터 공모를 통해 선정 지원하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예산은 2011년도에는 국비 및 시비 1:1 매칭펀드 형식으로 조달되며 총 2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02 추진내용

· 지원의 원칙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은 광주지역의 문화예술 현장을 활성화하고 지역의 브랜드 육성과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 지원 대상으로 선정한다. 특히 지원대상은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다원분야 등 모든 분야로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공연예술단체나 예술가, 공공예술 프로젝트, 페스티벌 등을 대상으로 하되, 당해년도 국고,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시·도 지방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단체는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으로 중복 수행 불가토록 하였다. 또한 연례적인 예술제 개최, 찾아가는 순회활동 지원 등 기존 사업과 차별성이 없는 사업, 타 영역에서 수용하고 있는 활동 지원사업,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사업 등은 지원 불가하다. 지원규모는 선정 단체당 2천~6천만원으로 프로그램 일정 및 규모, 사업의 특성 및 기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었으며 지원 항목은 문화예술 활동의 직접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하였다. 이 외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경상운영비 및 보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은 불가토록 예산 지원 지침을 마련하였다.

· 지원 심의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의 심의 원칙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는 심의 추진에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들의 장르, 연령, 성, 경향,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되 세부 전공 및 활동 장르를 반영해 심의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제고하였다. 심의위원 자격은 광주문화재단 전국단위 인력풀 인사, 예술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인사, 광주시 시정시책과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균형 감각을 갖춘 문화예술 인사, 지원신청자나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인사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심의위원회는 지원 사업에 대한 심층 심의를 담당하고 그 심의결과를 문화재단에 통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지원심의를 서류심의와 인터뷰 심의를 병행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였고 심의방식은 점수제를 바탕으로 협의 배점 방식을 추진하였다. 서류심의는 1차 자격요건 심의를 거쳐 2차 신청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심의를 거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문 1답 형식의 간결한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되는 3차 심의 방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심사기준은 사업계획 단계의 충실성, 타당성 및 수월성과 사업진행 단계의 실현가능성, 사업 성과단계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등을 집중 심의 하였다.

· 지원 결정

2011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심의결과 지원 신청한 17개 단체 중 5개 단체를 선정하였다.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구분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천원)
다원	(사) 문화터미널	빵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60,000
음악	광주오페라단	음악극 '김치'	60,000
연극	박준희 무용단	그리고 나도 늙는다...	30,000
연극	놀이패 신명	동네방네 5·18 예술보따리	25,000
무용	(사)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	공존을 위한 그린프로젝트 '녹색 몸짓'	20,000
	계		195,000

· 사업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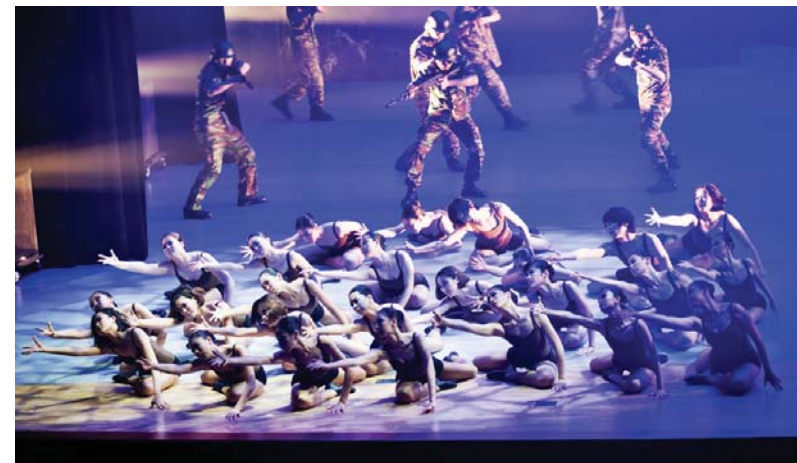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공연별 1~3회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와 최종평가회를 추진하였다. 특히 지원 선정된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개별 공연물에 대한 작품성 및 사업추진 단체의 신뢰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와 행정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며 대학생 및 시민 모니터링단을 별도 운영하였다.

작품성 평가는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공연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내용의 작품성과 완성도, 출연자의 공연 수준, 관객의 호응도, 지속적인 발전 가능성, 사업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였고, 행정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및 신문기사,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 평가하였다. 작품성 평가와 행정평가를 종합하여 합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 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최우수 등급을 받은 단체는 익년 지원심사에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미흡단체는 지원 결정 배제 등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지원심의 시 평가 결과 환류는 물론, 우수 공연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03 향후과제

현 정부의 '예술지원 4대 원칙'의 지속 실현과 함께 '선택과 집중'의 원칙을 통해 지역의 역사나 문화적 배경, 문화예술현장 활성화를 지원한 2011년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 사업은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지속적인 발굴과 육성을 통해 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 외연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단순한 공모지원 사업 중심에서 전문예술단체들의 역량 발굴을 위한 다양한 기획 사업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며, 지속적인 문화예술현장 활성화를 통해 지역의 대표 브랜드 개발 및 상설화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지역 커뮤니티 내의 문화 소비를 촉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도출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화예술지원팀 이창호



3-3 2011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지역예술가 지원사업의 초석을 마련하다

지역예술가의 창작활동 활성화와 지역내의 예술가교류활동증진, 주민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민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지원 사업

사업명	레지던스프로그램 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역예술가의 창작활동 활성화 - 지역내외 예술가 교류 활동 증진(예술창작-소통-향유시스템) - 지역 주민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민 문화예술향유권 신장
사업기간	2011. 3 ~ 2011. 12.
예산	200,000천원
사업장소	4개 단체(미테-우그로, 사)의재문화재단, 사)광주미협, 아트컴퍼니원)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지원방식 - 지원단체 연간 계획을 통한 작가지원 및 주민연계프로그램 진행

01 개요

2006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의거하여 국고 지원사업이었던 “예술창작스튜디오조성” 및 “예술창작공간조성” 지원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기존의 레지던스(Artist residency)프로그램 지원이 ‘작가에게 단순히 공간을 제공’ 하는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큐레이터, 기획자, 입주작가 교류 및 커뮤니티 연계프로그램 등 프로그램 활성화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변모 되었다. 본 사업의 목적은 지역 예술가의 창작 활성화 및 예술 교류 활동 증진과 지역 주민연계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향유권 신장 및 커뮤니티 활성화이다. 지원 장르는 기존 전시, 문학 장르 외 공연예술, 다원예술장르 및 복합장르 관련 레지던스 프로그램까지 지원의 폭을 확대하였다. 또한 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별도의 큐레이터와 기획자를 두도록 하였고, 당해 지역의 예술 장르 지형도를 고려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토록 지원하였다. 사업예산은 국고 및 시비의 1:1 매칭펀드 총 2억원의 예산이며, 2011년에는 4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레지던스프로그램을 통한 지역예술가 지원 및 시민 향유권 신장”

02 추진내용

· 지원의 원칙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은 공모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예술계 여건에 맞추어 시·도나 문화재단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11년 광주문화재단에서는 직접 수행보다는 공모 지원을 추진하였다. 지원대상은 시각예술(사진 포함), 문학, 공연 예술(연극, 무용, 전통), 다원 예술, 문화일반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활동을 지원하며 입주 예술가의 창작, 발표, 국내외 교류, 지역 주민 연계 예술교육 및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도 지원한다. 2011년 시·도 관할 지역에서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단체 및 예술인이 신청하도록 하였다. 지원규모는 1개 레지던스 시설당 3천~5천만원이 기준이지만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규모, 신청사업의 특성, 소요예산, 기간 등에 따라 결정하되, 적정 수준으로 증액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이 사업은 소액다건식 지원이 금지되어 있다. 지원 항목은 큐레이터 등 기획자 인건비, 입주 예술가의 작품제작 및 발표, 국내외 교류, 지역주민 연계 예술교육 강좌 등 커뮤니티 활동 등 프로그램 운영 직접 경비 중 일부 지원이 원칙이다, 레지던스 시설의 신축, 대폭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하지 않고 레지던스 시설 개보수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지침이 마련되었다. 지원신청 자격은 지원대상 분야 레지던스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문화예술단체, 사립미술관, 대안공간 등이며, 타 시·도 문화예술가 및 단체도 신청가능하나, 2개 이상 시·도에 동일 사업 신청은 불가하도록 하였다.

· 지원 심의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지원심의 원칙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는 심의를 추진함에 있다. 지원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이 원칙이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 심의위원을 구성하되 위원들의 장르, 연령, 성, 경향,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였다. 심의위원자격은 광주 문화재단 전국단위 인력풀 인사, 예술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인사, 광주시 정책과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균형 감각을 갖춘 문화예술 인사, 지원신청자나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인사 등의 기준으로 추진하였다. 지원심의를 서류심의와 인터뷰 심의를 병행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였고 심의방식은 점수제를 바탕으로 협의 배점 방식 유형으로 추진하였다. 서류심의는 1차 자격요건 심의를 거쳐 2차 신청서, 사업계획서등의 적절성 심의를 거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문 1답 형식의 간결한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되는 3차 심의 방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 지원 결정

2011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선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구분		지원액(천원)
	단체명	사업명	
1	아트스페이스미테-우그로	놀고 먹는 레지던스	60,000
2	의재문화재단	의재창작스튜디오	50,000
3	(사)미협	문화지하철나눔레지던스	42,000
4	아트컴퍼니원	플레이 공작소	40,000
합계			1920,000

· 사업 평가

사업의 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고 매달 2~3회 프로그램 운영 또는 워크숍, 간담회 등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9월중)와 최종평가회를 개최하였다.

▶ 미테-우그로 : “놀고 먹는 레지던스”

대인시장내 위치한 미테-우그로가 추진하는 레지던스 지원사업인 “놀고 먹는 레지던스”는 예술가에게 일정기간 동안 스튜디오를 할애해 주는 레지던스의 공간적 한계를 넘어서고자 다원적 접근 방법으로 예술을 실험하고 프로그램 내 다양한 매개체를 설정하였다. 특히 지역예술가와 해외예술가를 초대한 교류프로그램형태의 레지던스를 진행하였고,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체험형 워크숍 “사장님 나봐요”프로그램은 예술로써 작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또한 ‘황금마차’는 음식을 매개로 소통을 확장해 나가고자하는 아시아거리음식 개발단 프로그램과 부합하여 다양한 계층과 함께 음식, 예술이 만나는 새로운 체험을 통한 소통을 시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특별히 개인 예술작업에 대한 미션은 없었지만 참여작가들이 3~4개월 동안 대인시장 내 숙식공간 ‘자자’와 공동작업실, 옥상캠프, 갤러리 ‘미테’와 커뮤니티카페 ‘우그로’ 등 공간에 머물면서 느낀 감성, 장소적 특성에서 오는 이미지나 레지던스를 참여하며 느낀 단상들을 작품으로 풀어낸 결과 전시로 마무리 하였다. 미테-우그로가 가진 다양한 공간에서 펼쳐진 본 전시는 공간의 색깔별로 6개국 참여작가들(한국3, 일본1, 인도2, 필리핀1, 태국1, 대만1)의 다양한 작품을 볼 수 있었다.



▶ 의재문화재단 : “의재 창작스튜디오”

의재문화재단의 레지던스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프로그램 운영을 보여주었다. 의재문화 재단이 운영하는 연진회 사무실 공간(1,2층)을 리모델링하여 작가 레지던스 공간을 확보하고 의재미술관과 워크숍 공간 등 가장 안정적 공간을 지원하였다. 의재문화재단의 프로그램은 작가와 이론가를 2:1(9명)로 구성하여 작가의 창작활동의 완성도를 높이고 새내기 이론가의 활동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성장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지역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매우 미비하였으나 작가와 이론가들의 워크숍, 작가토론회, 인터뷰 등 공통 작업들의 미션이 주어진 작가 지원 프로그램의 대표적 모델을 보여준 사업이었다. 결과보고 전시 및 워크숍을 통해 6개월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을 도출해 내었다.

▶ 사) 미협 : “문화나눔 레지던스”

지하철 역 내 메트로갤러리를 거점으로 레지던스의 형태 보다는 국제교류와 지역예술가교류 및 주민연계프로그램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진 레지던스를 진행하였다. 2011문화나눔레지던스는 5명의 작가를 공모하고 작가 작업 향상을 위한 멘토단(이론가) 4명을 결성하여 오픈스튜디오와 각종 프로그램진행을 통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지역문화탐방으로 지역의 차별화된 문화예술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본 사업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매주 금요일 시민대상 문화예술강좌 추진으로 ‘미술체험 심리상담강좌, 부채만들기, 염색하기, 서예/문인화강좌, 수묵애니메이션, 공예배우기, 순수플라쥬/마블링배우기, 판소리배우기, 미술감상법 등을 실시하여 지하철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을 대상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하였다. 하반기 실시한(9월 10일~10월 7일) 100인의 현장드로잉 파티는 입주작가를 포함한 지역작가 및 해외작가 포함한 약 500여명의 작가들이 1박2일 교류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물들을 메트로갤러리에 전시하고 오고가는 다양한 시민들에게 보는 즐거움을 선사하기도 하였다.

3-4 2011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문예회관, 소극장 등 활성화 도모

지방의 공공 및 민간 공연장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콘텐츠를 개발하고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 여건 마련을 위해 상주공간, 연습실, 공연장 확보 등을 지원

사업명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사업내용	- 지역 내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운영 기반 확보 - 공공 공연장(민간 공연장 포함) 가동률 제고 -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연장의 장기적인 관객 개발
사업기간	2011. 5 ~ 2011. 12.
예산	500,000천원
사업장소	지역내 공연장 및 전문공연예술단체
추진방식	- 공모를 통한 지원단체 선정 - 선정단체 연간 사업계획을 통한 사업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01 개요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분야를 대상으로 지역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인 창작활동 수행에 필요한 공연장, 상주공간, 연습실 등을 지원하고 공공 공연장(민간 공연장 포함)의 가동률과 이용률 제고 및 공연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광주광역시가 매칭펀드 형식으로 운영하는 지원사업이다. 2010년부터 기존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포함하여 확대 운영하였다. 특히 지역의 문화예술 환경과 공연장의 공간적 특성 및 관객 수요를 감안하고 공연 및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성화함으로써 공연장은 우수 레퍼토리 및 관객확보를 통한 공연장 가동률을 높이고, 상주단체는 안정적인 단체운영 기반마련을 통해 우수 작품 창작 및 발표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1년도에는 '09년도부터 추진된 '공연예술단체집중육성지원사업'의 2개 지원단체와 '10년도부터 추진된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5개 지원단체 그리고 '11년도 추가 공모한 1개 단체를 포함 총 8개 단체를 지원하였다. 사업예산은 5억원이다.

▶ 아트 컴퍼니 원 : “플레이 공작소”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과 연관성이 낮아 보이는 연극단체의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특정 공간에 일정기간 거주하는 레지던스의 개념과는 다소 다르지만 특정 공간을 활용한 지역연극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고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먼저 지역민 연극교실 '이제 꿈을 펼쳐봐'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주부대상 연극교실 운영을 실시하였다. 또한 지역동아리 지원 '오늘도 무대에 선다'는 대학내 연극반 (전대극회)과 직장인 연극단체(직장인 DL)의 공연과 무대제작 등을 지원함으로써 연극 활성화에 기여코자하였다. 지역 연극인 대상 연극인 재교육프로그램 '더 높은 곳을 향하여'를 통해 지역 연극인들의 배우의 열정에 답하는 프로그램이었고, 아트컴퍼니원이 대표작인 공연을 연습하여 무대에 올리는 플레이공작소 발표회 '양로원탈출기'는 총 8회 공연 되었다. 마지막으로 예술인 창작지원 '광주지역 작가 희곡집' 등의 세부사업들을 운영하며 레지던스의 새로운 장르를 개척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 기획이었다.

03 향후과제

2011년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은 문화재단 출범과 동시에 추진되었던 지원사업으로 객관적이고 신뢰도 높은 심사와 운영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었다고 판단된다. 본 사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레지던스사업의 목적에 부합한 사업의 유지 및 지역적 현안이 반영된 특화된 레지던스프로그램의 발굴이 필요하다. 광주문화재단의 경우 광주시청의 문화정책적 방향과 광주만의 특색을 반영한 레지던스프로그램을 개발 추진이 매우 필요하다. 특히 광주시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관련하여 문화예술 분야 중 우선 특화 가능한 미디어 분야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을 시도 해봄직하다.

그리고 지역 협력형사업 중 레지던스사업의 특성상 안정적 하드웨어와 전문적 소프트웨어가 동시에 발현 될 때만이 가능한 사업으로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 가능한 단체의 발굴과 유지가 중요한 사업으로 대표적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민간단체나 법인단체들의 장기적 안목의 레지던스사업의 기획력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문화재단 차원의 교육, 워크숍, 토론회 등 다양한 방법의 의견수렴과 발전 방향 도출 기회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지원팀장 정혜영

02 추진내용

· 지원의 원칙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공연단체의 안정적 창작활동과 공연장 가동률 제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공연장과 상주단체의 사전 협약을 통해 공개 공모를 원칙으로 추진하였다. 지원대상은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4개 분야로 구분하되, 연극분야는 연극 뮤지컬 등 전문극단, 무용분야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전문무용단, 음악분야는 실내악, 교향악, 합창, 중창, 오페라 등 창작 연구 전문단체, 전통예술분야는 음악, 무용, 연희 등 전통예술 공연 및 창작 단체로 세분화하여 단체별 사업계획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창작 및 공연 활동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공연예술단체 및 예술교육 전문단체를 대상으로 하되, 당해년도 국고, 중앙문예진흥기금 및 시·도 지방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은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으로 중복지원이 불가토록 하였다. 지원규모는 선정 단체당 4천 ~ 9천만원으로 공연 프로그램 일정 및 규모, 사업의 특성 및 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세부항목으로 공연장은 주민교육 프로그램 공동운영, 작품 공동제작 및 홍보, 공간 운영, 기획·홍보 인건비로 전체 지원금의 20% 이내를, 상주단체는 공연 제작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 직접성 경비로 지원금의 50% 이상, 참여 인력 인건비 등 단체 운영의 필요 경비로 지원금의 30% 이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 문화시설 등 인프라 구축이나 경상운영비 및 보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은 불가하게 예산 지원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

· 지원 심의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의 심의 원칙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있는 심의 추진에 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로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위원의 장르, 연령, 성, 경향,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였다. 심의위원 자격은 광주문화재단 전국단위 인력풀 인사, 예술현장에 대한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인사, 광주시 시정시책과 광주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대한 이해와 균형 감각을 갖춘 문화예술 인사, 지원신청자나 사업내용과 관련성이 없는 인사 등의 기준으로 추진하였다. 심의위원의 역할은 지원사업에 대한 심층 심의를 추진하고 그 심의결과를 문화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원심의는 서류심의와 인터뷰 심의를 병행함으로써 심의의 객관성 확보에 주력하였고 심의 방식은 점수제를 바탕으로 협의 배점 방식을 추진하였다. 서류심의는 1차 자격요건 심의를 거쳐 2차 신청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심의를 거쳐 정해진 순서에 따라 1문 1답 형식의 간결한 질문과 대답으로 진행되는 3차 심의 방법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심의는 2011년 3월 24일 진행 되었다.

· 지원 결정

지원사업에 201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심의계획안에 의거하여 심의운영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추진한 결과 지원 신청한 17개 단체 중 1개 단체에 대한 선정 심의결과를 통보 받아 광주문화재단이 승인하여 지원하였다.

구분	구분		
	단체명	사업명	지원액(천원)
무용	서영무용단	한국적 감성의 세계화를 위한 창작무용 공연	47,000
음악	강숙자 오페라라인	지역협력사업 3차년도 프로젝트 "도악"	47,000
연극	극단 진달래피네	사랑 나눔 페스티벌	73,000
연극	극단 푸른연극마을	신나는 연극여행	53,000
무용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2011 공연장상주단체프로그램	90,000
음악	한소리회	2011 공연장상주육성지원	73,000
전통	퓨전국악 아이리아	신나는 국악여행	50,000
음악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빨간날 4시 음악회(광주다문화음악학교 운영)	50,000
계			483,000

· 사업 평가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전문가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매달 2~3회 공연 및 교육 프로그램 등 현장방문 평가를 실시하고 중간평가와 최종평가를 개최하여 신뢰성 확보를 위해 평가계획을 마련하였다. 특히 지원 선정된 사업이 당초 사업계획에 맞게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개별 공연물에 대한 작품성 및 사업추진 단체의 신뢰도 등을 평가하기 위해 전문가 평가와 행정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였으며 대학생 및 시민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다. 작품성 평가는 분야별 전문 평가위원을 위촉하여 공연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관람하게 한 후, 이를 바탕으로 공연의 발전성, 작품성, 목표 달성도 등을 평가하였고, 행정평가는 사업 담당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정산보고서 및 신문기사, 관련자료 등을 바탕으로 선정단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종합 평가하였다. 작품성 평가와 행정평가를 종합하여 합산한 점수를 바탕으로 최우수, 우수, 보통, 미흡 4단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익년도 지원심의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평가 결과 환류는 물론, 우수 공연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다.

03 향후과제

2011년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공공 공연장 및 민간공연장의 활성화와 지역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는 물론,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 간 인적·물적 교류 협력관계 조성에 성과가 있었으며 비교적 지원사업의 취지에 부합한 사업수행 및 결과를 도출해 내었다 판단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공연예술단체들의 우수 레퍼토리 및 공연 프로그램 개발과 제고를 통해 공연장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상호간에 상주단체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사업 외연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우수 프로그램에 대한 상호 교류를 전제로 타 지역 공연장과의 교류 공연 등에 대한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

문화예술지원팀 이창호



3-5 2011문화예술활동단체(사회단체·문화예술분야)지원사업

문화예술단체의 다양한 공익활동 지원으로 예방의 가치를 드높인다

공연, 전시, 전통, 문학 등 기타 다양한 활동으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의 향유를

사업명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사회단체보조금-문화예술분야 지원사업)-(위탁)
사업내용	- 시민사회 민간단체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자생력 확보 - 불특정다수의 시민에게 문화예술향유 기회 제공 -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동력 구축
기간	2011. 3 ~ 2011. 12.
예산	2011년 기준 (광주광역시:219,000천원, 광주문화재단:405,000천원)
대상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개인, 친목단체, 동호회, 영리법인, 선교목적 종교단체 등 제외
추진방식	- 정기공모를 통한 지원 - 광주광역시와 광주문화재단의 지원(재원의 이원화)

01 개요

문화예술활동단체 지원사업은 공연, 전시, 문학, 전통, 기타 여러 사회단체(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더 많은 문화예술 향유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가 광주문화재단에 위탁한 사업이다. 본 사업은「광주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및 「광주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며 광주광역시가 권장하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한 위탁사업인 만큼 전액 시비로 운영된다. 창작과 영리추구 사업 지원이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하여, 시민사회 문화예술분야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공익활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매년 정기공모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단체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시민의 향유 기회 확대”

02 추진내용

· 지원의 원칙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은 지원절차 및 대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사업공모를 통해 지원하고 지원결정내역을 공개한다. 사업비 지원과 1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단체, 시의 필요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 및 지원심의 위원회가 지원결정 한 경우 등은 제외하며 시 지회, 연합회 등 광역단체(협회) 규모가 큰 단체에 대해서는 최대 3개 사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사업별 50,000천원, 단체별 150,000천원 이내로 지원상한액을 설정하여 특정사업별·단체별 편중지원을 방지한다. 또한 시책에 대해 보완 상승효과를 갖는 사업과 비영리법인 등록 단체를 우선 지원한다.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그리고 지역 내 문화예술을 통한 공익적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 지역 내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단, 사회보장적 시설 단체 제외), 개인 또는 친목단체가 아닐 것,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단체를 주 대상으로 한다.

· 심의기준

심의는 단체의 적격성, 사업의 적정성 및 전년도 사업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진행한다. 단체의 적격성은 단체 설립목적 및 근거, 성격 등 지원대상단체 요건 적정여부, 단체의 사업수행 능력, 자부담 능력,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파급도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결정한다. 사업의 적정성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목적에 부합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 시책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 시책기여도 등이 높은 사업, 단체의 최근 공익활동 실적을 감안하되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시정방향에 부합되고 관계 법률에 의해 권장 또는 허용되는 사업유형, 자원봉사 또는 기부활동과 연계 추진하는 사업,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해결 및 시민욕구 충족도를 고려한다. 전년도 사업평가 결과 반영의 내용은 사업에 대한 부진 사업은 다음연도 지원에 제한을 두며,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지원단체별 평가 환류체계를 마련하고 실시한다.



· 지원 결정 현황(2011년 기준)

재원(사업명)	장르	선정건수	지원액(천원)
사회단체보조금(문화예술분야)지원사업	전시	21	147,500
	전통	17	71,500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공연	27	170,000
	문학	12	80,500
	기타	21	136,500
합 계	-	98	606,000

· 사업 평가

사업의 평가는 장르별(전시, 전통, 공연, 문학, 기타)전문가 및 모니터요원을 현장 파견하여 사업의 추진상황, 목적 등 달성도 등을 파악하는 사업의 내용 및 현장 평가와 보조금사업 종합 평가, 이를 토대로 지원제도 개선자료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사업의 현장성 수렴, 투명성확보, 예산효율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모니터링단의 간담회 및 워크숍을 통해 현장평가, 개선 및 문제점 등을 토론하고 익년도 사업 방향을 모색하는 등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내용평가를 진행한다. 시 보조금 전용 카드인 유리알카드 사용액, 자부담 비율, 자체부담액 사용 비율 등 일정 평가지표에 의한 객관적 행정평가 등 사업추진의 효과성과 경제성을 비롯하여 사업의 제반사항에 대해 다각적으로 접근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03 향후과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문화예술활동을 활성화하여 시민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추진되고 이에 걸맞은 행정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때 최대의 효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지원 단체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공익사업 마인드를 구축하여 우리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여항 광주의 이미지에 맞게 더욱 적극성과 공익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타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니 만큼 사업목적과 방법, 내용이 타당성 있게 추진되고, 예산과 집행이 투명하게 집행되어질 수 있도록 단체들의 노력이 필요하고 단체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차별화, 특성화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술에 배부를 수 없으나 차곡차곡, 한 땀 한 땀 수를 놓듯 지역의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이 축적된다면, 광주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성장하는 기초단위로 중요한 역할을 해낼 것이다.

문화예술지원팀 서 환 희



3-6 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사업

도심곳곳에서 끼와 열정을 담아내는 청소년 예술동아리

기초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한 청소년 동아리 단체 육성지원 사업

사업명	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사업
사업내용	- 청소년의 도심 속 공연 활성화를 도모 - 시민문화향수기회증진과 예술 인력양성을 위한 기초예술 저변확대
기간	2011. 4 ~ 2011. 12.
예산	45,000천원
대상	중, 고, 대학, 연합 청소년 공연예술동아리
추진방식	공모를 통한 지원

01 개요

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사업은 광주광역시 관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5개 분야 예술동아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이다. 본 사업은 다중집합장소인 실외 장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청소년동아리 공연을 지원한다. 특히 도심 속 문화예술공연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의 기초예술저변 확대를 목적에 두고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다원 분야에 걸쳐 100~4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애들아 모여라! 꿈을 펼치며 노을자~”

02 추진내용

· 지원의 방향

본 사업의 지원 장르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다원예술 등으로 공연예술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 공연예술 동아리들의 활동의 장을 마련하여 역량 및 기반 강화를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 기초예술저변확대와 풀뿌리 문화 지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연간 추진 단체의 평가를 통해 익년도 지원사업에 반영함으로써 평가환류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지원 심의

지원대상 장르는 공연예술분야로 음악, 연극, 무용, 국악, 다원 분야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1년도에 새롭게 전시가 다원분야에 추가되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음악분야 : 오페라, 관현악, 교성곡(합창과 관현악), 합창 등 ② 연극분야 : 마당극, 뮤지컬, 마임, 마술 등 ③ 무용분야 : 한국무용(창작무용 및 전통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④ 국악분야 : 창극, 국악관현악, 국악실내악, 전통예술음악 등 ⑤ 다원예술 : 인디음악, 비주류 예술, 복합예술, 전시 등이다.

지원대상 단체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만24세 이하의 중, 고, 대학, 연합(청소년포함)의 청소년 공연 예술동아리이며,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10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예술동아리를 대상으로 한다. 단, 최소 공연 참가 인원이 5인 이상이어야 한다. 국공립 및 방송국 소속의 기관 혹은 단체, 전문예술단체, 학원이나 교습소, 일회적 성격의 단체, 상업적 활동을 주로 하는 영리목적의 기관 및 단체, 특정 종교 소속단체 또는 종교적 성격이 강한 단체는 제외된다.

본 사업의 특성상 청소년동아리지원이니만큼 사업계획서의 세련됨이나 자부담의 비율 등은 전문예술법인들의 지원 기준과는 사뭇 다르다. 대신에 동아리들의 활동 실적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열정과 지속적 사업계획(실행가능성, 충실성), 예술성, 예술적 기량 및 관객의 개발, 전년도 활동평가 및 활동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금액, 공연회수를 심의한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이고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한다.

심의방법 방법은 1차 서류심사를 거쳐 2차 전문가 심의인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을 통해 심의를 추진한다. 1차에서는 학교(단체)장 추천서 제출여부, 동아리 구성인원 확인, 공연참가인원 등을 확인하고 1차 심사탈락 동아리에 대해서는 2차 심의에서 제외시킨다. 2차 최종심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장르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1차 제출서류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의기준에 맞는 공연을 심의하고 지원금을 결정한다.



· 지원 결정 및 사업 평가

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에 대해 광주시와 문화재단이 승인하고 지원결정 한다. 지원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2011년도)

구분	접수		선정결과		공연회수
	건수	금액(단위:천원)	건수	금액(단위:천원)	
음악	10	32,926	6	8,500	7
연극	11	33,254	8	11,500	10
무용	7	24,000	5	8,000	5
국악	1	4,000	1	1,000	1
다원	11	35,254	11	12,500	13
합 계	40	129,434	31	41,500	36

사업평가는 각 지원분야별 전문가 및 모니터요원(모니터링단)을 현장 파견하여 공연을 직접 관람 후 공연 질적 수준, 시민호응도, 공연 참여인원 등 평가하고 행정평가는 광주문화재단에서 지원신청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서면 평가를 진행한다. 본 사업 뿐 아니라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의 평가는 다음연도 지원 심의 시 반영된다.

03 향후과제

아마추어 문화예술 활동의 활성화, 창작역량 강화 및 자기 계발형 예술참여프로그램 마련 등이 본 사업의 취지이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첫째 기초예술의 저변확대로 동아리 단체 육성, 둘째 공연예술을 통한 문화예술이 살아 숨 쉬는 생동감 있는 도시 이미지 연출을 위한 새로운 모색과 활동을 배려하는 것, 마지막으로 제반 공연환경을 기성세대가 조성하고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청소년의 꾸준한 공연활동과 참여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사업이다.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아하!~하고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찰나를 기다려 주어야 한다. 감수성을 기르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내하는 마음자세와 시간을 가지고 청소년 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안내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자신들의 끼를 마음껏 발산하면서 창작역량을 높이고 지역 공연예술 발전과 시민의 문화지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데 공헌할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지원팀 서 환 희

3-7 창작지원컨설팅

“문화예술인과 시민들의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한다.”

문화재단 창작지원컨설팅은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문화예술인들과 시민들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통로로서 지원주체와 대상자들의 소통의 장 마련을 위해 추진된 사업

사업명	창작지원컨설팅
사업내용	지역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단이 추진하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소통의 장을 마련함
기간	2011. 5 ~ 2011. 12.
예산	없음
대상	문화예술인 및 시민
추진방식	-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창작지원컨설팅 신청 - 신청 내용에 맞는 전문가 또는 담당자 면담을 통한 궁금증 해소 등

01 개요

창작지원컨설팅 사업은 재단 내에서 추진되어지는 각종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지원방식, 목적, 심사, 평가안내 등을 통해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 시키고 사업실행 과정의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특히 지원사업의 간접지원 방식의 측면에서 볼 때 지역예술인에게 정보제공과 컨설팅이란 긍정적 평가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인들과 재단 관계자와의 만남과 소통을 통해 지원사업의 추진 방법과 목적 등 근본 취지에 대한 정보제공과 중앙과 타지역의 사업을 안내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이 갖는 지역적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컨설팅 공간의 마련은 지역에 파견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협력관의 역할을 강화시키고 문화재단과 예술인, 시민의 지원사업 정보창구 역할 및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02 추진내용

“이 작품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창작지원컨설팅 사업에 대한 추진은 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지원사업에 대한 궁금하신 문화예술인 및 시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안내된다. 신청자가 신청서를 홈페이지에 등록하게 되면 담당자는 신청내용과 일정에 맞춰 관련 전문가와 면담을 확정하고 추진하였다. 2011년 창작지원컨설팅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했던 것은 광주지역에 파견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호남권 협력관의 도움이 매우 컸다. 지역에서 중앙 및 타지역의 보조금지원사업에 대한 안내가 힘든 상황에서 광주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은 매우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그리고 문화예술지원팀의 구성원들이 신청서 내용에 따라 담당업무를 안내하고 면담하도록 추진되어졌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인들과의 의견 나눔, 청취 등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 자연스러운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져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가 될 수 있었다. 창작지원컨설팅은 연간 신청자들에 의해 추진 횟수가 좌우되는 만큼 각종 설명회 및 워크숍, 간담회 등을 통해 안내하고 더 많은 문화예술인들과의 접촉을 시도하였다. 2011년 창작지원컨설팅 결과를 보면, 총 23건의 방문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다.



03 향후과제

2011년 본 사업의 결과로 볼 때 월별 1~2건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진행되었다. 그 결과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등에 몇몇의 개인과 단체들의 지원이 결정되어지기도 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지원 신청서 작성에 대한 안내와 컨설팅 신청 단체의 특성을 살린 지원사업의 신청 안내 등으로 본 결과이다. 이처럼 컨설팅을 통해 지원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역량을 개발하고 또 지원취지에 적합한 사업계획의 필요성 안내 등을 통해 중앙의 각종 지원사업의 선정 건수의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창작지원컨설팅은 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의 각종 간접 지원방식의 하나로 2012년 이후 다양한 간접지원 프로그램 개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문화예술지원팀장 정혜영



04 문화예술교육활성화

- 4-1-1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_디딤돌연수
- 4-1-2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_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운영
- 4-1-3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_문화예술 상상학교
- 4-1-4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_교원연수 지원사업
- 4-2 학교예술강사 지원사업
- 4-3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원사업
- 4-4 시민문화예술교육상상워크숍
- 4-5 방학예술캠프지원사업

4-1-1 청년대상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사업-디딤돌 연수

보다 구체적으로 그리고 주체적으로 꿈을 디자인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사업명	청년대상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사업 “제2회 디딤돌 연수” - 디딤돌, 꿈을 디자인하다!
사업내용	문화예술을 전공했거나 문화예술 분야에서 일하고자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문가들이 일하는 현장에서 그들의 경험사례와 조언을 듣고 청년들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체험형 연수
기간	2011. 9 ~2011. 11. (연수기간 : 9. 1. ~ 10. 13. 매주 목·토요일)
예산	10,000천원
대상	광주지역 꿈많은 청년 24명
추진방식	문화예술교육 관련 전문가 특강, 광주지역 및 전국단위 현장방문 및 워크숍, 참가자 토론 및 기획안 프레젠테이션

01 개요

디딤돌연수는 광주지역 청년들이 문화예술교육관련 직업을 선택하고자 할 때 부딪히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지역은 물론 전국에 산재한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직접 다녀 봄으로써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진로를 설계 할 수 있도록 자극하고자 했다. 디딤돌연수는 올해로 두 번째다. ‘길 위에서 꾸는 꿈 :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청년들에게 전하는 열 가지 이야기’라는 타이틀로 2010년에 광주박물관미술관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했던 첫 번째 디딤돌연수는 광주지역 박물관, 미술관,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공공예술프로젝트 현장, 작가 작업실 등 광주에 있는 문화예술공간 아홉 군데를 찾아가 그곳의 전문가를 그룹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올해는 ‘디딤돌, 꿈을 디자인하다!’라는 간판을 걸고 문화예술교육적 가치를 실천해온 잔뼈 굵은 전문가를 찾아 광주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을 대상으로 돌아다녔다. 참가자는 대학생, 대학원생, 단체 활동가, 예술강사, 기관 실무자 등 문화예술교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활동을 희망하는 이들이었다. 아홉 번의 여행을 마친 후 연수생은 각자 ‘광주시민대상 1일 특강’을 기획하여 발표했고 서로를 위한 책거리를 했다.



디딤돌연수 참가자들이 서울 성미산 마을극장에 찾아가 유창복 대표의 이야기를 들었다.

02 추진내용

· 스승 찾아 삼만 리, 열 개의 디딤돌

	일시/장소	강의주제	강사명
1	9.1(목)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오리엔테이션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할과 현재	정민룡 북구문화의집
2	9.3(토) 서울	성미산 마을 들여다보기	유창복 성미산 마을극장
3	9.8(목) OPEN STUDIO 광주, 대인시장	문화예술교육, 그 이상을 넘어선 상상과 현실	한종철 항꾸네
4	9.17(토) 전북, 전주	시장에서 청년문화를 만나다!	김병수 사회적 기업 이음
5	9.22(목) OPEN STUDIO 광주, 무등시장	○○가게 사장님이 마이크를 든 까닭은?	박시훈 교육문화공동체 결
6	9.24(토) 경기 남양주	nonart butart 예술을 통한 솔루션	박찬국 논아트 발아트
7/8	10.1(토) 전남 담양	달팽이 학당	김영현 유알아트
9	10.6(목)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스토리텔링으로 풀어나가는 지역사회 문화자원	김인정 작가
10	10.13(목)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디딤돌 워크숍 및 평가 참가자 아이디어 경연 및 토론 *수료식 및 네트워크 파티	강미미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03 향후과제

늘 고민한다. 인력양성사업은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 아니 무엇을 남겨야 하는가. 문화 예술분야에서 일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청년인력양성사업이 곧 일자리사업이 된다면 좋겠지만 디딤돌연수는 줄곧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으니 자신을 정확히 바라보고, 현장과 선배를 찾아 떠나라’는 다소 고전적인 주문만 되풀이해왔다. 이 연수를 통해 놀라운 능력을 키우거나 취직을 할 수는 없다(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것도 다소 서운하다). 하지만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어떤 순간과 어느 이야기에 반응하는지를, 열 개의 디딤돌을 디딜 때마다 자문하고 답을 얻어내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다. 그러나 참가자의 다양하고 정확한 욕구를 파악하기보다 센터의 기획의도가 앞섰다는 점, 공동의 목표와 미션을 설정하고 협업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자기 표현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 세 번째 디딤돌연수는 이러한 한계를 넘기 위해 먼저 참가대상을 명확하게 하고 이들이 자신을 드러내고 서로를 아는 시간을 충분하게 가지도록, 그리고 스스로 연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단계를 나눠야 하겠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임아영

4-1-2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

문화예술교육의 발자취를 기록하다



PARIS PLAGES(파리 플라쥬)지구환경 지키기 어린이 문화예술교육 아트프로젝트 현장

사업명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
사업내용	지역 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현장과 사람을 소개하고 문화예술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를 운영하며 광역센터 온라인 뉴스레터를 정기 발행함
기간	2011. 5 ~ 2012. 1
예산	37,400천원
대상	국내외 문화예술 및 글쓰기를 좋아하고 적극적인 취재활동이 가능한 사람 누구나
추진방식	○ 통신원제 운영 : 국내통신원(17인) + 국외통신원(2인) + 에디터(1명) 구성 → 정기 기획회의 → 현장취재(1인당 매월 2건), 인터뷰, 칼럼연재 → 온라인 뉴스레터 발송(2,000여명) ○ 허브사이트 운영 : 정보 집적(통신원제와 연동) → 허브사이트 및 각종 온라인 매체(블로그, 카페, SNS) 게시

01 개요

먼저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사업은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를 폭넓게 알리고자 시작되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칠 수 없었다.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통신원을 선발한 것은 다중의 목적을 취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었다. 관심분야를 취재해오면 그것을 다시 센터의 콘텐츠로 가공해 허브사이트와 뉴스레터를 통해 전했다. 광주지역의 문화예술교육 현황에 대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더불어 광역센터와 다른 기관, 단체, 전문가와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고 공통 이슈를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즉 센터의 홈페이지는 기관 홈페이지기 전에 사람, 장소,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오고가는 허브사이트이고자 하며, 통신원들이 기자 역할 뿐 아니라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매개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02 추진내용

센터는 2009년부터 광주지역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다양한 정보가 모이고 교류하는 공간으로 기능하는 허브사이트를 구축하고자 각종 문화예술교육 관련자원(인적자원,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 등)을 취재기사 형식으로 가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2012년 3기 통신원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되었고 문화예술과 교육에 관심 있는 대학생부터 주부·미디어 강사 등 열여덟 명과 독일과 파리에 거주하는 해외통신원 두 명까지 총 20명이 1년간 활동했다. 선발 후 기자, 활동가들과 함께 역량강화워크숍에 참여했고 매달 기획회의를 진행했다. 센터소식, 현장소식, 인터뷰, 칼럼 등의 기사는 매달 십여 건씩 업데이트 되었고 이를 편집하여 홈페이지 회원 및 시민 이천 여명에게 뉴스레터를 발송했다.



03 향후과제

통신원제 및 허브사이트 운영사업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함으로써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지식정보 체계 도출하고, 광역센터와 그 사업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역적 논의와 공감대를 확산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데 취지가 있다. 통신원들 각자의 관심사와 욕구를 파악해 센터가 그들에게 각각 다른 미션을 정확히 제시할 필요하고 있고 그들이 연구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아낌없이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통신원들이 단순히 정보전달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 선

4-1-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 상상학교

문화예술 상상프로젝트 ‘學校’



학교! 문화예술을 덧입어 상상공간이 된다. ‘우리학교는 난타 학교예요~’ ‘우리학교는 아카펠라 학교입니다.’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갖춘 기관 및 단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학교의 예술창작문화를 공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상상프로젝트

사업명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문화예술 상상학교”
사업내용	광주지역 일선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 간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여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문화감수성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기간	2011. 3 ~2011. 12
예산	28,000천원
대상	광주지역 초·중·고 5개교
추진방식	광주시교육청과의 공동협력 시범사업으로 추진 일선학교-지역문화예술교육단체-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광주시교육청 등 협력 네트워크 기반구축 지역 및 마을 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의 사회적 기능 강화

01 개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일선학교에 보급되고 있으나, 단순체험 및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또 하나의 ‘소비재’가 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문화예술교육이 추구하는 창의성이나 문화적 감수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본래 ‘학교’가 가지고 있는 전통성, 문화성, 예술성, 지역성 등을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을 통해 학교의 문화가 생산되는 자생적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예술 상상학교는 학교의 ‘공공문화’ 혹은 ‘예술창작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광주시교육청과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단체가 협력하여 진행한 시범 프로젝트다. 광주지역 5개 일선학교와 5개 문화예술교육단체가 1학교-1단체 매칭 협력 구조를 갖추고 ‘지역에서의 학교’, ‘동네학교’라는 전제로 다양한 공공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존의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환경을 마련해 봄으로써, 지속가능한 네트워크 협력 구조 안에서 ‘문화생산성’을 갖춘 학교를 만들고자 하였다.

02 추진내용

· 새로운 지원방향을 모색하며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광주시교육청은 2009년부터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에 보급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모델들은 만들어졌으나, 근본적으로 학교의 문화·예술 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고, 학교의 환경변화를 위한 새로운 지원방식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에 문화예술상상학교는 종전의 프로그램 및 강사 지원방식에서 나아가,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단체를 직접 연결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즉, 문화예술 전문단체와 학교가 협력하여 공동의 프로젝트를 실행하고자 했다. 이는 단순히 협력사업을 수행하기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책임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함이었다.

· 문화&예술의 ‘생비자(生費者)’가 되는 상상학교

문화예술상상학교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주제로 하는 공공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기능 습득 및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은 지양하고, 공동의 작업을 통해 학교의 공동체성 회복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나, 지역 안에서 학교가 문화·예술적 소통의 매개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설계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은 종전의 공급자와 수혜자로 구분되어있는 구조에서 문화예술의 ‘생비자’라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구조 마련을 통해 학교의 문화를 생산함과 동시에 소통하고, 소비하는 주체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주체성은 학교의 공동체성 회복과 더불어 창의적 활동을 가능케 하고, 일회적 단순체험이 아닌, 지속가능한 학교문화가 생성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03 향후과제

학교가 문화예술교육의 생산적 구조가 아닌, 다양한 체험의 보급구조로만 멈춰버린다면, 문화예술교육의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또 다른 형태의 교육 경쟁구조가 만들어질 우려가 높다. 문화예술상상학교는 ‘학교’라는 유·무형적 가치를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단체들과의 공동협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는 구조를 마련해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시범사업이 안정화되고,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책 및 행정단위에서의 사업특성을 고려한 지원시스템 구축과, 전문가집단을 통해 사업의 분석 및 평가를 거쳐 사업의 모델을 만들어내어야 하며, 더불어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문화예술단체들을 발굴하고, 일선학교와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협력시스템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최 지 만

4-1-4 교원연수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으로 하나 되다 - 창의적 체험활동 실무연수와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 연수

흑룡강성 상지조선족중학교 안영규선생님 “이번 기회를 통해 어떻게 하면 공부하는 선생이 될 것인가 대안을 찾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체험을 하면서 배운 모든 것은 우리들이 중국에서 앞으로 새로운 이념과 방법으로 창의성이 있는 민족의 후대를 육성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업명	교원연수지원사업(여름 · 겨울)
사업내용	① 창의적 체험활동 실무연수(여름) : 스토리텔링기법을 적용한 사례와 실습으로 수업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현장적용형 문화예술교육 실무연수 ②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연수(겨울) :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들을 초청하여 교실에 적용가능한 문화예술교육연수를 진행
기간	① 2011. 8. 8 ~ 2011. 8. 12 (5일 30시간) ② 2012. 1. 9 ~ 2011. 1. 14 (5박6일)
예산	11,384천원
대상	① 광주지역 초중고교사 30명 ② 중국 조선족학교 교장 부교장 기자 등 28명
추진방식	① 미디어스토리텔링, 문화예술현장과 연계한 수업 등 다양한 수업방법론과 사례제시 ② 조선족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문화예술교육특강, 워크숍, 현장방문

01 개요

교원연수지원사업은 공교육현장 교사들의 역량강화와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실시되는 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과정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교사들을 통한 교실수업 개선이야말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문화현장과 교육현장에서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사례와 기법들을 보여주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수업의 질 개선, 수업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해보자는 것이 교원연수 개최의 취지다. 교원연수지원사업은 교사의 변화와 수업의 개선을 통해 궁극적으로 소통과 의미, 통합과 공동체, 감성과 창의성이 중심이 되는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02 추진내용

2011년 교원연수사업은 여름과 겨울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여름에는 광주지역 초중고 교사 30명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지도교사 실무연수-학교에 간 스토리텔링'을 진행하였고 겨울에는 중국 조선족학교 교장·부교장·교원·기자·연구원 28명을 대상으로 '조선족학교 교사초청 문화예술교육연수'를 진행하였다. 학교에 간 스토리텔링은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은 물론 자율활동, 교과연계활동, 사회체험활동 등의 입체적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놀이와 연극, 감각, 미디어, 향토문화자원, 문화예술현장, 독서의 분야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실활동을 시도할 수 있도록 사례를 제시하고 교사들이 직접 체험해보도록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겨울연수는 학교 통폐합과 조선족사회의 해체로 위기를 맞고 있는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들을 초청해 광주의 문화현장과 역사유적 등을 돌아보고 조선족학교에 돌아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미술, 아카펠라, 교육연극, 영화와 문학, 미술과 수학, 독서활동 등의 문화예술교육적 사례를 제시하고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중국 동포사회와의 연대와 교류의 방법을 모색함으로써 상호협력과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03 향후과제

아무리 좋은 연수라도 그것을 현장에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두 번의 교원연수를 통해 앞으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교사들이 갖고 있는 구슬 서 말을 얼른 꿰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수를 받은 교사들이 막상 교육현장에서 적용하려면 잘 안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교사들이 부단한 노력을 통해 깨내야 할 진주목걸이다. 중국 조선족학교 교사들은 교사들이 감동과 깨달음을 함께 느낄 수 있도록 중국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선족교사들은 문화예술이 한국사회와 조선족 사회를 이어줄 수 있는 좋은 고리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상호연대와 협력의 초석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이 조선족학교의 교육혁신과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한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고 교사가 바뀌어야 학교가 바뀐다. 교육현장에서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활용을 위해 연수받은 교사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향후 과제다. 더불어 이번 사업이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를 통해 지속성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실질적으로 조선족 학교에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절실하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 옥 희

4-2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아이들의 무구한 눈빛에 가슴 설레는, 우리는 예술강사



공교육현장에 감성과 소통, 의미와 창의력 중심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주고 미래의 훌륭한 문화향유자로 키워보자는 취지로 진행되는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사업명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사업내용	광주광역시 소재 초·중·고·대안·특수학교 151개교에 7개분야 예술강사 128명을 파견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광주센터 소속 예술강사들의 역량강화와 활동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예술강사들의 자발적인 모임·연구·프로젝트·공연 등을 지원
기간	2011. 3 ~ 2011. 12
예산	1,000,056,540원
대상	광주광역시 소재 학교 재학생 36,221명
추진방식	예술강사 수업을 희망하는 학교의 신청을 받아 선정(매해 10월) 기존예술강사 심사 및 신규예술강사 선발(매해 11월) 학교에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활동 지원(다음해 3~12월) 예술강사 모임 5개팀이 5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별도 지원

01 개요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감성과 문제해결력, 소통능력, 표현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소재 초·중·고·대안·특수학교에 7개분야 예술강사를 파견하여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교육현장에 감성과 소통, 의미, 창의력 중심의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해서 삭막한 학교생활에 생기와 재미를 불어넣고 지금까지와 다른 방식의 수업으로 개인이 가진 다양한 능력을 계발할 기회를 제공해 학생들을 미래의 훌륭한 문화 향유자로 키워보자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전국 16개 광역센터에서 주관하여 진행한다.

02 추진내용

2011년에는 광주지역 예술강사 128명이 광주지역 학교 151개교 36,221명의 학생들과 함께 연극·무용·사진·공예·디자인·만화애니메이션·영화 분야의 수업 22,419시수를 진행하였다. 또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예술강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 활동의 폭을 넓히기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예술강사 열린공모>를 실시했으며 예술강사 열린공모에는 30여명의 강사들이 다섯 개 팀을 이뤄 각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교수학습과정안 등의 결과물을 내어 놓았다. 예술강사지원사업은 예술강사들이 지역 문화예술교육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워크숍, 연수, 수업평가, 프로젝트 발표, 등을 실시하였으며, 장애·비장애학생 통합 시범수업과 창의적 체험활동 연계 수업 등을 지원하였다.

03 향후과제

최근에는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효과를 입증하는 연구결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학생들이 예술경험을 통해 내면의 행복을 발견하고 그 경험들은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참여도와 리더십, 자신감과 자부심, 사회성, 상상력, 창의성을 향상시켰다. 문화예술교육은 공감과 소통을 기본으로 하기에 요즘 문제가 되는 학교 폭력이나 학생들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떠오르기도 한다. 수많은 예술치유프로그램이나 예술프로젝트, 예술동아리 활동들이 청소년들의 자존감과 자부심을 높여 사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이 현재 공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중 하나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이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김 옥 희

4-3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 열아홉 마디의 돌림노래

사업명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내용	참신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발굴·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문화격차 해소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한 우수단체 집중 지원. 프로그램의 질적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및 관리 강화		
기간	2011. 4 ~2011. 12		
예산	434,000천원		
대상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기관·시설 19개소		
추진방식	구분	지원내용	지원방법
	일반공모	개별 프로그램 지원	○ 지역 및 학습대상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교육프로그램 콘텐츠화(매뉴얼) 및 대상지역내 학습공동체 활동 지원
	기획공모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지원	○ 지역 문화예술교육 지원 체계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 활동 지원
			○ 네트워크 참여기관 간 협력을 통한 통합형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01 개요

‘**문화예술교육**’이라는 용어가 생긴지, 즉 문화예술교육이 법으로 제정되고 제도화된 지 칠 년째다. 아동기에 접어든 문화예술교육, 특히 문화예술교육 지원내용이 달라지고 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회문화예술교육은 소외계층에 국한해 프로그램을 집중지원했고 장애인, 소외아동청소년, 다문화, 노인 등이 그 대상이었다. 어느 정도의 효과는 있었지만 문화예술교육은 궁극적으로 시민과 지역을 지향해야한다는 과제엔 미흡함도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예술이라는 도구를 통해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감능력을 키우고 사적 혹은 공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와 방법을 익히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특정 대상을 중심으로 지원되던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해를 거듭할수록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이, 마을의 자원으로 오랫동안 자생력을 갖춘 시민참여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 중심에 바로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다.



아이숲어린이도서관의 〈작은도서관 문화예술네트워크 “신통방통문화, 별별이야기”〉 중 국민대 시각디자인학과 명예교수 윤호섭님과 활동가들이 함께 모여

2011년도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된 단체 및 기관 19개가 참여했다. 1월 단체적격 및 사업계획서 심사, 2월 기획워크숍과 최종심사를 통해 19개소에서는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2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30차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미술, 음악, 생태, 연극, 인문학, 문학, 사진, 영상 및 통합장르 등의 교육이었으며 대상은 아동청소년(12개소), 장애인(3개소), 노인(1개소), 통합(3개소)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럼, 열아홉 마디의 돌림노래를 들어보자.

02 추진내용

· 사회문화예술교육,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구분	수혜대상	신청단체명	사업명	대표자	사업기간 향유기관
			사업내용		
1	아동 청소년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꿈씨앗이 자라나는 키작은 책상 목공작업을 통한 자기 예술책상 만들기	장호준	2011. 4. ~ 11, 새희망지역아동센터
2	아동 청소년	문화행동 S#ARP	무지개빛 접시에 담긴 아시아요리교실 국제이해교육, 아시아요리 문화예술교육	정민기	2011. 4. ~ 12, 지역아동센터연합회
3	아동 청소년	무등현대미술관	성촌마을3 -할아버지의 예술서당 이야기 예절교육, 마을자원발굴, 그림문자도 만들기	정송규	2011. 4. ~ 12, 성촌마을
4	아동 청소년	실내악단 마하나임	음악과 함께하는 세계여행 세계민속음악으로 이해하는 각 나라의 문화예술	김윤미	2011. 4. ~ 12, 빛고을풍성한공부방
5	아동 청소년	전통연희놀이연구소	교과서 속 민화이야기 민화 그리기, 교과서 내용 관련 연희극 만들기	정재일	2011. 4. ~ 12, 하버드지역아동센터 등
6	아동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결	우리동네 음악을 입다 동네이야기 찾기, 노래만들기, 뮤직비디오 만들기	민문식	2011. 4. ~ 12, 우성지역아동센터
7	장애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도담도담 'en-ABLE' 극놀이 학교 교육연극, 연극만들기 및 공연	최용운	2011. 4. ~ 12, 정보문화종합지원센터
8	아동 청소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숨겨진 나를 찾아가는 신화여행 신화를 활용한 인문학, 미술, 음악교육	조동련	2011. 4. ~ 12, 로템지역아동센터
9	아동 청소년	광주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마을에서 행복한 꿈을 잡자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나종영	2011. 4. ~ 12, 행복한지역아동센터
10	아동 청소년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몸짓으로 말하는 "친구야 함께 놀자" 신화를 활용한 인문학, 미술, 음악교육	문병란	2011. 4. ~ 12, 어울림공부방

구분	수혜대상	신청단체명	사업명	대표자	사업기간 향유기관
			사업내용		
11	노인	농성문화의집	독거노인들의 감성프로젝트 '여기에 시인이 산다' 문화예술체험, 시 창작 및 낭송, 시화전, 시집 출판	서광준	2011. 4. ~ 12, 농성문화의집
12	장애인	아트컴퍼니 원	이제 시작이야! "드림 메이킹" 발성, 노래, 춤, 연기 등 연극교육	원광연	2011. 3. ~ 12, 엠마우스 산업
13	아동 청소년	태이움직임교육연구소	지역아동센터 통합프로그램 "몸아! 놀자" 무용 및 음악 통합교육	신희홍	2011. 4. ~ 12, 해돋이지역아동센터
14	장애인	광주전남놀이문화공동체 꿈꾸는 다락방	세상을 향해 두드리다 Dream Beat 난타 퍼포먼스 교육	소윤정	2011. 4. ~ 12, 홀더지역아동센터
15	아동 청소년	광주북구장애인재활 센터&각화문화의 집	빛고을 장등마을 불 밝혀라 마을조사, 마을놀이터 및 마을가이드북 만들기	장상습	2011. 4. ~ 12, 장운지역아동센터
16	아동 청소년	여디디야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들강달강 어린엄마씨" 미술과 도예, 음악과 동작치료	이은나	2011. 3. ~ 12, 미혼모 쉼터 '우리집'
17	통합	광주시민의회소리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사업단	스토리텔링 사진 교육 우리동네 사진촬영, 스토리텔링, 전시	문상기	2011. 4. ~ 12, 양림동방림동주민
18	통합	(사)우리문화예술원	2011 광주푸른길 창의적소통 네트워크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화, 아카펠라, 국악, 영상 등) 참여기관 워크숍, 컨설팅, 연구모임 푸른길 문화장터 개최, 푸른길 동화책 발간	김태훈	2011. 4. ~ 12, 산수도서관, 늘푸른지역아동센터, 행복한지역아동센터, 광주동부지역사랑 아동모임
19	통합	아이숲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예술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문화예술 네트워크 운영 (워크숍, 탐방) 찾아가는 도서관 (그림책, 연극, 아카펠라 교육) 운영	정봉남	2011. 4. ~ 12, 함께할새누리공부방 홀더지역아동센터

· 서로 성장을 위한 중매쟁이,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이 사업은 단순 지원사업이기 전에 광주의 우수한 기획자와 강사를 만나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정보화 사업이다. 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알리고 또 정보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와 기회를 제공했다. 센터는 기획자와 수혜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모임을 세 번 열었다. 또한 광주대 성인학습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시민 모니터를 양성한 후 열 세 명의 모니터는 열아홉 단체를 방문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다. 그리고 이 때, 비슷한 장르나 대상으로 수업하는 단체끼리 짝을 지워 서로의 수업을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센터의 통신원들이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현장을 취재했고, 여러 소식이 온라인 뉴스레터를 통해 전국 방방곡곡으로 전달됐다. 마지막으로, 수업이 끝나는 12월에 모든 단체의 담당자와 문화예술교육 전문가가 만나 그룹 인터뷰를 통해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를 계획하는 시간을 보냈다.

03 향후과제

‘아’는만큼 보인다’와 ‘모르는 것이 약’이라는 한 마디를 절감했던 사업으로, 문화예술교육이 무엇이며 각 단체가 지향하는 바와 기획자 강사들이 원하는 것과 수혜자의 희망사항이 무엇이었겠구나를 고민하게 했다. 2007년부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원래 지자체에서 선발과 관리를 맡았지만 2011년도부터는 센터로 이관되었다. 용감무쌍하게 사업을 진행했고 1년이 지나서야 사업의 의미와 방향에 대해 깨닫게 됐다. 2012년도에는 초기 네트워크 파티, 파트너 단체 지정 및 교차 방문 등을 활성화해 그동안 한계가 있었던 네트워크와 파트너십 형성에 최선을 다해야 했다. 시민모니터단의 전문성 부족 및 일회적 모니터링의 한계를 절감했기에 2012년도에는 심사위원, 컨설턴트 등의 컨설팅을 병행한 3회 이상의 모니터링과 현장취재 형식의 모니터링을 통해 친밀도 및 신뢰도를 높이하고자 한다. 또한 지역사회 성과공유 및 홍보가 취약했고 단체들이 본 교육의 결과를 지역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장려해야한다. 마을축제나 지역행사와 결과발표회를 연계한다든지 기획자, 강사, 수혜자들이 교육장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재능을 나누고 그들이 하는 일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 센터는 컨설팅을 통해 본 교육과정 중 지역 활동 연계를 지원하고 온오프라인(뉴스레터, SNS, 결과발표회 공동 홍보 등) 홍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2012년도에는 스물 세 개의 단체와 함께 한다. 할 일이 태산인지라 교부와 감시와 정산, 딱 거기까지만 하면 안될까, 흔들린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몸은 편할지언정 마음이 편치 않다. 안되겠다. 하던 대로 곳곳의 마디를 잘 이어 하나의 돌림노래로 엮어내는 역할을 충실해야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임아영

4-4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워크숍

사람과 공간의 회복을 위하여 예술을 통해 상상합니다



5월에 열린 <치고-받는 타악노리> 중 켄베워크숍 시간

사업명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워크숍
사업내용	광주시민에게 미적체험교육의 기회를 제공, 문화예술교육의 가치와 효과를 공감할 수 있는 <시민+문화+예술 상상워크숍>을 엮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이 강조하는 자기표현, 그리고 타인과 세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함 타악, 전통놀이, 퍼포먼스, 업사이클링 아트 등의 장르별 워크숍을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체험함
기간	2011. 9 ~2011. 11
예산	20,000천원
대상	광주지역 시민 200명
추진방식	광주지역 우수 문화예술교육 운영단체 및 예술가가 가족단위의 시민대상 문화예술 체험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센터는 하드웨어(예산 및 장소 등)를 운영단체는 소프트웨어(인력 및 프로그램 등)를 제공함

01 개요

모든 게 심드렁해지는 이 시대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했다. 오월을 맞아 사람들이 다 불러 한 판 놀아보자고 작심했다. 놀이는 창조를 위한 마중물이기에. 그래서 열두 번째 새갈래(2009년부터 시작한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모임으로, ‘새로운 문화 예술교육을 갈망하는 네트워크’의 줄임말)를 “치고-받는 타악놀이”란 간판을 걸어 열었다. 한국드럼써클협회 이영웅 선생님의 두드림으로 광주의 남녀노소 이백여 명이 켄베워크숍과 퍼블릭드럼써클을 함께 했고, 놀이에 대한 필수필녀의 욕구를 확인한 센터는 〈시민문화예술교육 상상워크숍〉을 신설하여 2011년 9월, 궤도에 올랐다.

센터는 광주지역 문화예술교육 단체인 전통연희놀이연구소, 놀이문화공동체 꿈꾸는다락방, 그리고 신양호 작가와 함께 “달노리”(전통놀이), “애들노리”(퍼포먼스), “뚝딱노리”(업사이클링 아트)를 기획운영했다. 모든 워크숍은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었고 각각 이백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가족 단위의 참가자 및 아동·청소년의 참여가 두드러졌고 노는 판은 센터에서 깔 되 먹을거리나 준비물은 참여자들이 직접 마련함으로써 노는 이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02 추진내용

회차	일자	행사명	주관	내용	참가인원
1	5. 28	치고-받는 타악노리	한국드럼써클협회	켄베워크숍 및 퍼블릭드럼써클	200
2	10. 1	달노리	전통연희놀이연구소	사자춤 워크숍 및 전통놀이 5종경기	200
3	10. 29	애들노리	놀이문화공동체 꿈꾸는다락방	마임워크숍 및 공동체놀이	168
4	11. 26	뚝딱노리	신양호 작가	페품활용 창작워크숍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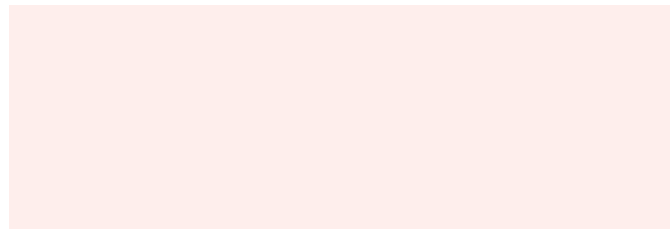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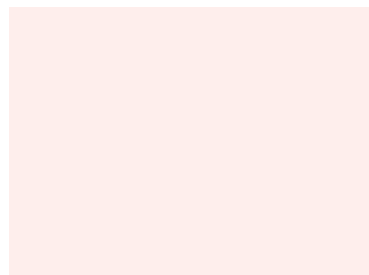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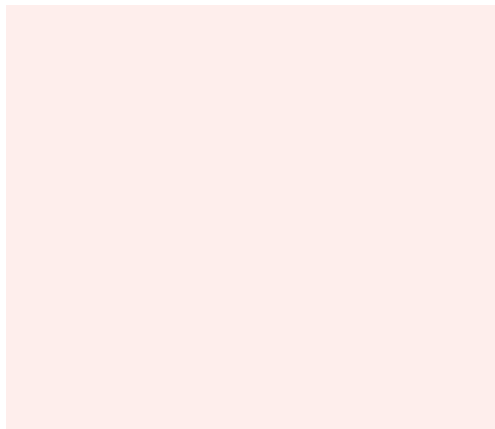
03 향후과제

‘함께 놀면 함께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함께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에서 출발한 상상워크숍은 연초에는 꿈조차 꾸지 않았던 사업이다. 2011년은 지원센터가 문을 연지 3년 째 되는 해로 누구와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가던 때였다. 단체나 전문가들과는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꾸렸고 학생과 특수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공모지원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무언가 허전했다. 지원센터라서 해야하는, 지원센터에서만 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 공급자와 수요자를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을 것만 같았다. 문화예술교육이 결국 더 나은 나와 세상을 위한 둘다리라면 그에 맞는 일을 벌여 올해는 가치를 함께 공유해보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렇게 상상워크숍은 빛고을시민문화관 앞마당에서 놀기 좋은 날 모두 네 번 열렸다.

광주지역에서 문화예술교육과 그 가치를 실천하고 있는 파트너를 찾았고, 천만다행으로 노는 일의 중요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한국드럼써클협회, 전통연희놀이연구소, 꿈꾸는 다락방, 신양호 선생님을 만났다.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단위의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매번 듣는 말이지만 이런 행사를 널리 알려달라는 참여자들의 주문 또한 홍보 방안에 대해 깊게 고민하게 만들었다. 또한 상상워크숍의 큰 열매는 고정팬이다. 센터와 문화예술교육과 다양한 예술장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민들이 입소문을 내주었다. 그리고 상상워크숍은 내년에 이 자리에서 다시 보자는 인사와 함께 그들과 헤어졌다.

이제는 2012년의 상상워크숍을 상상해본다. 2011년의 상상워크숍은 짜여진 프로그램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이었지만 2012년에는 워크숍이라는 말에 맞게, 함께 논다는 취지에 맞게 참여자들이 좀 더 몰입하고 배우며 성취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학교와 문화예술 관련 기관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이동과 방문이 잦은 백화점, 마트, 역, 터미널 등에 상상워크숍을 홍보하고 언론매체와 SNS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다양한 시민들이 체험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단체와 전문가를 상상꾼으로 함께할 것인지가 핵심이므로 상상워크숍의 놀이 찬양에 동조하는 파트너를 찾기 위해 담당자와 통신원은 더욱 발품을 팔아야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임아영



4-5 방학예술캠프 운영사업

광주 창의디자인 예술캠프 “우리만의 상상으로 광주를 권 있게!”

도시문제! 문화예술로 해결하다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광주의 도시문제를 문화·예술적 방법으로 해결하고 광주를 ‘권’ 있게 만들고자 지역의 문화공간 및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실마리를 찾아 이를 창의적으로 표현해본다.

※ ‘권’: 전라도 사투리로써, 흔히 ‘권있다’라고 쓰이며, ‘사랑스러움’, ‘귀여움’ 등으로 해석

사업명	방학예술캠프 운영사업
사업내용	광주지역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문화예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공간 및 예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영감을 얻어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예술 캠프
기간	2011. 5 ~ 2011. 10 (캠프기간 : 2011. 8. 10(수) ~ 12(금) / 2박3일)
예산	60,000천원
대상	광주지역 청소년 100명
추진방식	캠프 추진단 구성 및 운영(지역 내 문화전문가, 기획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문화시설 등 결합) 지역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명예교사를 활용한 명사 강의 포함 등 고품격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의 일반적 강의 교육이 아닌, 과제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한 전문가-대상자간 토론&체험 형식 운영

01 개요

‘우리만의 상상으로 광주를 권 있게!’ 2011 방학예술캠프 운영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와 교육문화공동체 결이 공동주관하여 운영하였다. 방학예술캠프는 지역의 문화예술인, 문화 기반 시설, 대학생 등과 지역의 문화 자원을 결합하여 참여자에게는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예술인들에게는 재능 나눔의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광주 방학예술캠프는 ‘우리만의 상상으로 광주를 권있게!’라는 주제를 통해, 광주의 청소년들이 도시문제를 문화·예술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지역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애乡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한 지역공동체성 및 정체성을 갖게 하는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02 추진내용

· 도시문제의 문화·예술적 해결을 위한 캠프

광주 방학예술캠프는 지역의 인적·문화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는 지역예술캠프의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단체 및 예술가, 활동가, 학계전문가로 구성된 캠프 추진단을 구축·운영하여 캠프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는 단지, 캠프가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머물지 않고, 지역차원에서 공동으로 준비하여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기 위함이었다.

이를 통해 광주 방학예술캠프는 ‘도시문제의 문화·예술적 해결’이라는 대주제를 설정하였고, 이를 미션수행이라는 형태를 해결해 나가는 예술캠프의 콘셉트를 설정하였다. 이와 더불어 도시 내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익재미술관, 월봉서원, 대인예술시장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로 지역 문화를 이해하고, 창작물을 통해 사회적 해법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 버스정류장! 너는 도대체 무엇이나?

2011 방학예술캠프는 ‘창의디자인캠프’로 청소년들의 일상적 공간 중 하나인 버스정류장에 대한 문제제기로 ‘버스정류장! 너는 도대체 무엇이나?’라는 미션을 부여받은 참가자들은 2박 3일 동안 미션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이이남(미디어 아티스트), 윤호섭(국민대 명예교수), 송효상(2011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명예 교사들의 예술클리닉과 광주의 다양한 문화예술 공간들(광주시립미술관, 광주디자인센터, 광주청소년문화의집,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월봉서원, 대인예술시장 등)에서 펼쳐진 실마리 아트워크 등에 참여했으며, 각 팀들은 자신들이 찾은 실마리를 바탕으로 총 10개의 버스 정류장 디자인 작품을 만들어냈다.



03 향후과제

2011 방학예술캠프는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가 함께한 공동협력 사업의 좋은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시범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지역 내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마련하고, 체계적 캠프 운영시스템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한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캠프가 단순 체험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후과정에 대한 설계와 수혜대상의 다양성(아동, 청소년, 청년, 주부, 가족, 노인 등) 또한 고려해야한다.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최 지 만

05

문화나눔-바우처 및
기업메세나

5-1 문화바우처사업

5-2 여행바우처사업

5-3 꿈꾸리오케스트라

5-4 문화나무예술단운영

5-5 기업메세나활성화사업

5-1 문화일촌을 통한 행복한 문화나눔 문화바우처 따뜻한 문화일촌 맺기

소외계층에 문화를 지원하다 사회적·경제적·지리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공연, 전시,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료 및 음반, 도서구입비를 지원함

사업명	문화바우처 기획사업
사업내용	문화소외계층 중 자발적 관람이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획사업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문화바우처카드만으로 관람이 힘든 계층을 대상으로 식사·교통 등 편의제공 및 프로그램운영을 통한 지역특화 사업
기간	2011. 3 ~ 2011. 12
예산	300,000천원
대상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발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추진방식	세부 사업별 특성에 맞는 월별 프로그램 운영 - 모셔오는서비스, 문화곰두리아카데미, 문화바우처캠프, 광주다문화오케스트라지원, 자원봉사자 운영, 문화바우처 자문위원 운영 등

01 개요

문화바우처사업은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는 문화소외 계층에게 문화 프로그램 관람비용을 전액 지원·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대상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작되었다. 2006년~2011년 현재까지 문화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어 6년째 지속되고 있는 본 사업은 그 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하며 재원은 복권기금·시비에 두고 있다. 특히 2011년 문화바우처사업은 이전까지 추진했던 방식과 다르게 문화바우처 카드사업과 지역주관처 기획사업의 이원화로 문화사각지대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함으로써 보다 나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02 추진내용

2011년 광주문화재단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은 ‘따뜻한 문화일촌’을 통한 행복한 문화나눔 실현을 위해 자발적, 적극적 문화예술 향유가 힘든 계층(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아동 등)을 대상으로 단체관람을 지원하는 모셔오는 서비스, 문화곰두리아카데미, 바우처 캠프 등 세부프로그램을 개발·운영했다. 또한 사업의 내실을 기하고 객관적·합리적 추진을 위해 지역내 문화예술 및 사회복지 관련 전문인사 7인으로 구성된 문화바우처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사업의 성과물은 결과보고 전시(2011.12.19.~12.25)와 다문화오케스트라&곰두리아카데미 연말공연(2012.12.25.)을 통해 시민들과 공유했다.

· ‘맞춤형 복지’ 모셔오는 서비스·곰두리아카데미

‘모셔오는 서비스’는 매달 지역 내 공연프로그램 섭외 및 30% ~ 50% 후원을 통해 장애인·독거노인·시설 아동 등 6천4백44명에게 질 높은 33개 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했다. 자문위원회가 선정한 코코몽·우당탕탕 아이쿠·명성왕후 등 뮤지컬, 이미지·비·김범수·윤도현 등 인기가수 콘서트, 트릭아트·광주디자인비엔날레 등 전시에 이르는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이 문화사각지대 시민에게 즐거운 문화 체험을 선사했다.

‘곰두리아카데미’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기획마련과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인댄스, 방송댄스, 풍물놀이, 미술교육 등 4개 장르, 4개 프로그램에 장애 아동 및 가족 등 80명이 참여했다. 특히 인기가 높았던 방송댄스팀과 풍물놀이팀은 연말 공연에서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 문화캠프 · 오케스트라 등 다양한 문화나눔 실현

문화바우처캠프 ‘문화야 놀자’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해 전주한옥마을과 전주전통문화관에서 1박 2일 캠프를 실시했다. 초등학교 40명이 참가해 한옥마을투어, 전통공연관람, 전통문화 및 민속놀이체험을 하며 뜻 깊은 시간을 보냈다.

‘다문화오케스트라’ 사업은 광주지역이 타 지역에 비해 다문화 가족 세대수가 많고 다양한 다문화 대상 프로그램이 개발 추진되고 있는 점에 착안,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과 연계한 복지형 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실시되었다. 광주문화재단이 빚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및 연습실, 악기, 강사료 등을 제공하고, 광주여성필하모닉 단원 14명이 재능기부를 통해 총 50회의 수업을 진행했다. 다문화가족 학부모와 학생으로 구성된 다문화오케스트라는 연말 문화바우처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무료공연을 펼쳐 문화나눔과 문화재능기부의 아름다운 선순환을 보여주었다. 문화바우처사업은 특히 자원봉사단의 적극적인 활동이 큰 힘이 되었다. ‘문화일촌지기’로 불리는 문화바우처 자원봉사단 58명은 총 37회의 프로그램에 참여해 공연 및 좌석 안내, 문화바우처 홍보, 진행도우미, 사업모니터링 등 1인당 평균 4.2회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다. 이들에게는 사회복지봉사활동 VMS인증관리 등록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실적관리 혜택을 부여했다.



03 향후과제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화복지사업이며 문화예술, 복지 중 어느 한 가지만 고집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을 통해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이다. 무엇보다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와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문화바우처 기획 사업은 지역적 특성과 한계를 고려해야 할 사업이니만큼 지역의 현황을 제대로 읽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2011년 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은 첫 걸음을 내디딘 만큼 장·단점을 파악,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문화예술 복지형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추진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2012년 광주문화바우처 기획사업은 수혜대상자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한 발 더 적극적으로 다가서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지원팀 최 춘

5-2 2011 여행바우처

몸과 마음 치유하는 맞춤형 여행 떠나요

여행을 통한 복지 증진 경제적, 신체적, 사회문화적 제약 등으로 인해 국내여행에 쉽게 참여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차별 없는 관광기회를 제공하여 복지관광을 실현하고자 함

사업명	2011 여행바우처
사업내용	취약계층의 복지향상 및 이를 통한 국내 관광 수요확대를 위해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
기간	2011. 6 ~ 2012. 6
예산	257,000천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소외계층(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 등)
추진방식	- 개별 : 여행바우처 카드 지급(개인 15만원, 가족 20만원 지원) - 복지시설단체 : 사회복지시설 단위로 여행바우처 카드지급(1인당 15만원 지원) - 광주광역시기획 : 사회·문화적 특성 및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기획한 여행프로그램 제공

01 개요

‘**여행바우처**’는 사회 취약계층에게 국내여행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관광을 통한 양극화 해소, 저소득층의 자아실현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주관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어 광주지역은 광주문화재단이 수탁운영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기타소외계층(다문화가정, 새터민, 장애인)에게 개인 15만원, 가족 20만원 범위 내에서 여행경비 및 여행프로그램을 제공했다.



02 추진내용

· 맞춤형 홍보로 신청 및 경쟁률 전국 1위

개별여행, 복지시설단체여행, 광주광역시기획여행 등 세 가지 형태로 모집했다. 무가지, 주민센터 등 행정망을 통한 일대일 안내,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 연계 홍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등 대상자 맞춤 홍보를 수행했다. 그 결과 전국 15개 지자체 중 광주지역이 선정인원 대비 신청인원이 가장 많고 경쟁률이 치열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혜자 선정을 위해 신청인들의 참관하에 무작위 추첨으로 대상자를 선정, 1,602명이 여행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개별 이용자 및 복지시설단체 수혜자들에게는 여행바우처카드가 발행됐고, 기획여행 신청자에게는 광주문화재단이 기획한 특별한 여행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 행복나눔 맞춤형 기획여행바우처 화제

광주문화재단 기획여행바우처는 차별화된 프로그램 진행으로 화제를 모았다. 지적장애인에게는 임자도·증도로 떠나는 즐거운 체험, 시각장애인에게는 홍도의 소리, 청각장애인에게는 아름다운 외도 풍경, 다문화가정과 새터민에게는 경주로의 한국역사기행이나 장흥 우드랜드로의 테라피여행 등 장애유형별, 사회문화적 특성별로 맞춤기획했다. 또한 여행바우처 자원활동가를 모집, 장애인 응대방법론, 여행 서비스 방법론 등의 교육 워크숍을 개최한 뒤 현장에 투입해 만족도 높은 고품질 기획여행을 수행했다.

· 여행바우처 카드사용률 전국 1위

사업 종료 전 개별 여행바우처카드의 사용률이 저조했다. 수혜자들이 지정된 사용처를 통한 여행상품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고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 이에 지역 여행사에 상품 개발을 요청하고, 1:1 전화 상담을 통해 개별 이용자 여건에 맞는 상품을 소개 하는 등 미사용자들의 참여를 독려, 여행바우처 카드사용률 87%를 기록해 전국 최고치를 달성했다.

03 향후과제

여행바우처 사업은 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에게 문화 불평등 해소와 문화관광 기회를 제공하며, 침체된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다. 현재 수혜자들은 운영상 절차 및 사용처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수혜자의 욕구 및 조건을 반영한 여행상품이 부족한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홍보와 여행업체 대상 상품개발 독려 방안을 모색하고 숙박, 식음, 교통 및 각종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사용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은 앞으로도 광주만의 차별화된 기획여행상품을 통해 행복한 문화 나눔도시이자 차별없는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팀 이지 선



5-3 2011 꿈꾸리 오케스트라

음악의 날개를 펴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자

음악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 키우기 저소득층 아동청소년들에게 음악교육을 시행하여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는 동안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르도록 하고 자신이 받은 혜택을 지역사회에 환원토록 하는 선순환 사업 구조 마련

사업명	꿈꾸리 오케스트라
사업내용	관내 초등학교 3~5학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악기의 기본부터 흥미를 유발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시행하여 자존감을 심어주고 예술적 영감을 부여함으로써 올바른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토록 지도
기간	2011. 10 ~ 2012. 1
예산	50,000천원
대상	관내 초등학교 3~5학년 아동청소년 35명
추진방식	- 공개 모집을 통해 일반아동 10명, 소외아동 25명을 선발 - 총 25차시(75시간) 파트별 악기교육 및 오케스트라 합주교육

01 개요

꿈꾸리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아동청소년을 위주로 음악교육을 시행하여 꿈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오케스트라 특성을 매개로 일반아동들과의 공동체 교육, 또래 간 학습을 통해 상호협력을 이루어가는 음악교육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세계적인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테마'를 롤 모델로 하여 공동체, 하모니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이 앙상블에 직접 참여하고 동시에 음악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경험케 하는 교육과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전액 지원하는 국비 지원 사업이다.

02 추진내용

오케스트라 안에서 음악·공동체 교육 꿈꾸리 오케스트라 교육지원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하고 광주문화재단이 주관하며 광주청소년 교향악단이 협업으로 진행했다. 35명의 단원을 공개 모집해 일반아동 10명, 소외계층아동 25명을 선발, 총 25차시 교육을 시행했다. 바이올린, 첼로, 비올라, 콘트라베이스, 플루트, 트럼본 6종의 악기를 파트별로 나누어 매주 목요일과 일요일 2회 각 3시간씩 개별실기 교육 및 오케스트라 합주교육을 통해 단원들 간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리고 25차시 중 마지막 교육은 작은음악회를 개최하여 그 동안 습득한 음악적 재능과 기량을 발표함으로써 단원들에게 성취감과 자존감, 음악적 영감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교육적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꿈꾸리 오케스트라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이 음악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는 가능성과 능력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오케스트라라는 작은 사회 안에서 서로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 교육을 경험하며 스스로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03 향후과제

베네수엘라 기적의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엘 시스템아'를 롤 모델로 한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은 참여 아동청소년들에게 작지만 특별한 음악교육의 기회를 부여했고 지역 내 음악교육 협력 모델을 창출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엘 시스템아'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음악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사회 구성원으로 공동체 의식과 소양을 키우는 것임을 감안할 때, 일반 오케스트라 편제에 맞는 악기 확보와 함께 단원 규모를 늘려 이들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시스템과 자원마련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지원팀 이창호



5-4 페스티벌 오! 광주 - 문화나무예술단

광주 전역에 문화나무를 심고 가꾸요

자발적 재능기부로 공연문화 활성화 문화나무예술단은 2011년 6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 광주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예술 브랜드 단체. 문화예술인의 자발적 참여로 ① 재능기부문화 정착 ② 지역행사 상생의 연결고리로 역할 ③ 거리공연 활성화 ④ 단체별 브랜드화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명	페스티벌 오! 광주 - 문화나무예술단
사업내용	문화나무예술단원 모집 및 관리, 지역축제 응원공연, 소외계층 찾아가는 방문행사, 거리공연(busking) 프로그램 개발, 단체별 브랜드화 지원 등
기간	2011. 7 ~ 2011. 12
예산	18,000천원 + 참여 축제의 행사운영비 지원
대상	광주광역시 전역, 불러주시는 곳 어디나
추진방식	- 온·오프라인 문화나무예술단 단원모집과 공연이력 관리 - 단원들의 지역 주요 축제행사 참여 활동(작은 음악회, 특별전시 등) - 지역 주요사업과 연계하여 단원들에게 다양한 공연기회 마련 -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대를 위한 방문공연을 실시 - 단체별 브랜드화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



01 개요

2011년 ‘페스티벌 오!광주’ 축제사업의 일환으로 5월 한달 동안 구도심에서 거리 공연을 할 문화예술단체를 공개모집했다. 그런데 의외로 쟁쟁한 실력의 20개 단체가 적극 참여했고 이에 사업 영역을 넓히고 내용을 다듬어 자발적 문화예술재능기부단체인 ‘문화나무예술단 사업’이 마련, 6월 29일 발대식을 갖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이후 문화나무예술단은 도시브랜드 축제 외의 다양한 축제에 참여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브랜드 축제의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했다.

02 추진내용

· 장르불문 66개 단체, 800명 회원 모집

사업초기에는 광주지역의 거리공연(busking) 활성화를 목적으로 야외공연장 실태조사, 공연장 현황조사, 거리공연이 참여가 가능한 거리공연장 공개모집에 집중했다. 이렇게 모집된 20개 단체가 모여 문화나무예술단 발대식을 거행했고 이후 수시모집을 통해 2011년 12월 31일 현재 66개 단체 800명 회원이 가입했다. 문화예술인과 단체 모집에는 문화예술지원 사업부서와의 업무협조가 큰 힘이 됐다. 지역문화예술육성, 공연장상주단체육성, 사회단체보조금 등 7개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 광주축제 응원한 46회 행사와 다양한 무대

광주 도시브랜드축제 ‘페스티벌 오!광주’가 진행된 7월부터 12월까지 문화나무예술단은 작은 음악회 40회, 특별전시 6회 등 총 46회의 정식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브랜드공연축제 기간에는 매 공연 한 시간 전 작은음악회를 개최해 축제에 참여한 시민 5만 여명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했다. 빛고을시민문화관 전시실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탈리아 모자이크전’, 지역 통기타 가수 ‘한보리 노래 전시전’, 오월 화생자들의 어머니들을 담은 ‘김은주 오월어머니 사진전’ 등 6회에 걸친 특별전시도 개성 있는 테마와 내용으로 1만5천 여 명의 관람객을 끌어 모았다. 이외에도 문화나무예술단은 광주지역의 수많은 민간행사와 축제 무대를 풍성하게 해주었다. 프로그램 부족으로 골머리를 앓던 축제 기획자들에게 예술단의 자발적 재능기부는 ‘가뭄에 단비’가 되었고, 풍성한 볼거리와 함께 총 5천만원이 넘는 예산절감효과를 안겨 주었다.



· 예술단 활동으로 지역-전국 네트워킹 쌓다

문화나무예술단의 활동이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으면서 전남 나주시, 경기 고양시 등 타 시도 기관에서의 사업 벤치마킹 의뢰가 있었다. 사업을 통해 전국적 차원의 교류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또한 예술단 활동의 재능기부 성격으로 자원봉사센터와의 지속적 교류도 가능해졌다. 남구자원봉사센터와는 단원들의 활동에 자원봉사활동을 인증하는 업무협약이 이뤄졌다. 지역의 전 분야의 재능나눔을 하는 광주광역시 재능기부센터와도 공동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속적 교류가 계속되고 있다. 다양한 공연행사를 진행하는 광주광역시, 빛고을건강타운, 광주 FC, 광주관광컨벤션뷰로, 5개구 복지단체, 교육기관 등은 공연 요청부터 공연기획 컨설팅 업무까지 지속적인 업무협조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민간 업체에서도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문화나무예술단과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03 향후과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문화 프로그램을 선도해 나갈 꿈을 가진 문화나무예술단은 지속적인 단원가입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을 더욱 풍성하게 꾸려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및 대학에 적극적인 홍보가 요구된다. 특히 2015년 하계U대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젊은 대학생들이 중심이 되는 문화프로그램이 절실하다. 각 단체들의 다양한 공연레퍼토리 발굴 또한 꼭 해결해야 할 과제다. 2012년에는 페스티벌 오! 광주의 기본정신을 함축한 특별 프로젝트 공연을 기획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예술단 내부의 정기적인 회의체 구성 및 인터넷 공식 카페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지속적 교류와 의견 공유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축제사업팀 박선희

5-5 2011년 기업메세나 활성화 사업

기업과 문화예술의 행복한 동행

문화기부 통한 창작활동 지원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기부를 유도하여 기업에게는 창조적 인 문화를, 예술계에게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Win-Win 효과 여건 마련

사업명	2011년 기업메세나 활성화 사업
사업내용	기업의 메세나 기부를 유도하여 기업에게는 창조적인 문화를, 예술계에게는 안정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Win-Win 효과 여건 마련
기간	2011. 5 ~ 2011. 12
예산	3,000천원
대상	'커피북는집'
추진방식	-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간의 만남과 소통 장 마련 - 메세나 프로그램 개발 - 개인 메세나 회원과 문화예술단체 간의 커뮤니티 형성 - 메세나 쇼케이스 및 이벤트 마련

01 개요

기업메세나 활성화 사업은 광주 시민들의 개인 메세나 활동을 증진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메세나 활동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이 사업은 기업이나 민간영리단체를 예술계 및 문화 소외계층과 기부로 연결시키는 메세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예술창작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02 추진내용

- 기업-문화예술단체 간 만남과 소통 장 마련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가들과의 상호 이해 및 신뢰 관계 구축하고 개인 메세나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와의 만남과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또한 재단 고유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메세나 프로그램을 제안 및 기획하였다.
기업-민간영리단체-예술계-문화소외계층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문화기부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 메세나 상품으로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커뮤니티 형성 및 파트너십을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 ‘커피북는집’ 전시회 및 기획공연
광주문화재단은 9월 20일 문화예술기부의 뜻이 있는 지역 커피브랜드 체인점 ‘커피북는집’ 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인점 내 상설공연, 매장 내 작은 미술관 운영, 광주문화재단 주최 각종 행사 협조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9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한 달 동안 커피북는집 상무점에서 작은미술관을 운영했다. 박성배(혼합재료 9점), 박용수(조각 1점), 박인선(회화 2점), 설박(회화 2점) 등 지역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2차 전시회는 11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위재환 작가의 조각 10점과 이진상 작가의 회화 5점이 전시됐다. 특히 10월 1일에는 커피북는집 상무점에서 광주지역의 젊은 퓨전밴드 ‘80’s MIX’의 디제잉 및 영상, 댄스 공연을 개최, 새로운 공연문화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2011아시아문화포럼, 아트광주11 등 광주문화재단 주관 행사 현장에서 참가 시민들에게 무료로 커피를 제공, 좋은 반응을 얻었다.

03 향후과제

2011년 기업메세나활성화사업은 '커피북는집' 과의 전시회와 기획공연 개최 이외에는 타 기업체으로의 확장 등의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 이유로 사업경험 부족,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 사업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및 관계자 확보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따라서 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향후 여건이 개선된 후 재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책기획팀 박종현



06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진흥

- 6-1 산테마 아시아문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 6-2 문화관광탐험대 운영
- 6-3 전문가와 함께하는 데굴데굴 문화기행
- 6-4 문화광주 스토리텔링 인터넷 공모사업
- 6-5 오감만족 광주여행

6-1 산 테마 아시아문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광주를 안은 무등산의 글로벌 브랜드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원천콘텐츠 대표소재 '산' 무등산을 중심으로 산 테마 스토리자원의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내 및 국외의 산 테마 스토리뱅크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무등산 콘텐츠 개발/상품화, 국제교류 및 네트워크의 확산을 꾀하며, 무등산 보호운동 증진 및 확산에 이바지한다.

사업명	산테마 아시아문화 스토리텔링 구축사업
사업내용	- 무등산을 포함한 아시아 명산 자원 수집 및 아카이빙 - 발굴된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스토리텔링 구현, 시민 및 국제교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무등산의 국제적 명산 브랜드화에 기여
기간	2011. 7. 1 ~ 2011. 12. 31
예산	200,000천원
대상	무등산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명산과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권 명산
추진방식	- 향후 7년간의 사업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한 인적 자원의 조합 - 전문가들의 현장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한 중장기 연구방안제시 - 콘텐츠 개발 운영을 통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민참여 활동 전개

01 개요

본 사업은 광주의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하고자 광주의 대표적 주산이며 문화경관, 생태환경보존의 상징자원인 무등산의 스토리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이를 통해 무등산에 대한 명확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견줄만한 한국의 명산 및 아시아의 명산 연구를 병행하여 산을 매개로 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과업의 목표이다. 1차년도 사업으로 총2억원의 사업비 투자를 통해 8년간 지속될 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콘텐츠의 활용을 위한 파일럿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구현하였다.

02 추진내용

· 중장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

2018년까지 지속될 사업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제시하고 향후 연차별로 진행해야할 사업 방향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 주요한 내용으로 추진계획 개요, 추진 전략, 주요 사업 제시, 사업추진 로드맵,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 산 아카이브즈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기타 운영계획 수립하였다. 또한 무등산이 지닌 다양한 스토리 자원의 현재적 활용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아카데미의 운영, 백남정재 체험, 사운드 스케이프의 개발 등을 시범 운영하였다.

· 산 스토리 수집 및 발굴

문집류에 수록된 무등산 관련 문학작품을 조사 수집 및 정리, 김덕령 설화를 비롯하여 무등산에 얹힌 수많은 설화들을 조사 수집하고 관련 현대문학 작품들을 조사 수집 및 정리하였다. 또한 무등산 대표 스토리를 대상으로 시놉시스 30건을 개발하였다.

문헌, 웹사이트를 통한 국내 104건, 아시아 241건 총 345건의 명산의 조사와 무등산 스토리텔링 자원 55건을 조사하였다. 문헌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해 무등산과 관련된 텍스트를 총 468건, 무등산 스토리 이미지 276건, 동영상 21건을 수집 발굴하고 무등산과 관련된 텍스트 중 픽션에 해당하는 스토리로서 설화에서 137건, 傳 2건, 전래동화 2건, 전기문 1건, 평전 1건, 고시가 12건, 한시 108건, 현대시 53건, 현대소설 1건, 현대희곡 2건 총 317건을 수집 하였다. 논픽션에 해당하는 스토리로서 역사적 기록 39건, 고수필 103건, 현대수필 9건 총 151건을 수집 발굴하였다.

· 콘텐츠 개발

무등산 일원에서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획득된 자료와 스토리를 각색하고 새로운 창작 활동을 통해 3가지 성격을 지닌 무등산 스토리 북을 시범적으로 제작하였다. 또한 무등산과 관련된 잘 알려지지 않은 자연·종교·인물·민속·문학·이야기, 무등산에서 겪은 소소하고 애환이 깃든 개인 혹은 가족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공모전을 통해 모집하고 책자에 수록하였다.

다양한 이야기 발굴과 스토리텔링 교육을 통해 기존의 해설사와 차별화를 꾀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전문연구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을 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매주 금요일 총 3회 동안 무등산 스토리텔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또한 '2011 무등산 스토리텔러 워크숍' 참가 스토리텔러의 해설을 들으며 산행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무등산의 한 지명에서 유래된 이야기를 소재로 '백남정재 산적놀이' 체험프로그램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였고, 무등산 테마 콘텐츠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무등산의 가을을 소리로 만나다'라는 컨셉으로 제작된 무등산 소리풍경 명소 다큐멘터리 제작은 무등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소리를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국제교류 추진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일본, 중국과 방문을 통한 국제교류를 추진하여 선험적 연구를 수행한 기관과의 새로운 관계망을 형성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약속하였다. 이는 본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중의 하나인 무등산 Eco-museum(가칭)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초석이기도 하다. 내부적으로 국내에서는 인문한국(HK) 사업인 '지리산권문화연구단(순천대학교 지리산권문화연구원,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과 MOU 체결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산 연구의 시너지 효과를 진행할 수 있는 단초를 만들기도 했다.

03 향후과제

1차년도 사업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다양한 시범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수 있었다. 다양한 콘텐츠 개발 및 시민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통한 사업 노하우를 획득하고 국내 및 아시아(일본, 중국)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을 위한 MOU 체결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하여 향후 국제적인 행사 개최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지닌 특성, 즉, 중장기 사업이기 때문에 일관성 있는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안정적인 사업추진체계가 필요하다. 자원의 발굴 및 아카이브 구축, 콘텐츠 개발, 기획, 실행을 위한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로 지속적인 창출형 콘텐츠를 발굴하고 스토리 자원을 개발해야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팀 이지선



6-2 문화관광탐험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명소, 명인, 명품 발굴하기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 시민 중심으로 구성된 문화관광탐험대원이 광주의 숨겨진 명소, 명인, 명품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던 1년의 활동보고서. 대원들은 생활속에 내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1주에 2곳씩 탐험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원의 발굴뿐만 아니라, 문화·역사적 가치의 소중함에 중심을 두고 자원의 재해석을 통한 재현행사(성산계류탁열도)도 개최하였다. 그 결과보고서가 ‘문화관광 탐험대의 광주견문록 1’이다.

사업명	문화관광탐험대
사업내용	광주시민 중심으로 문화관광탐험대를 구성. 대원들은 생활속에 내재된 명소, 명인, 명품을 발굴하고 대중과 공유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함
기간	2011. 3 ~ 2011. 12
예산	50,000천원
추진방식	- 광주시민 15인으로 구성된 문화관광탐험대 구성 - 대원이 광주의 숨겨진 명소, 명인, 명품 발굴후 사진 및 보고서 발간

01 개요

대부분의 관광지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하지만 현대화된 관광은 그런 일방적인 시각만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살이의 참모습이 담긴 관광지를 더욱 원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문화관광탐험대는 바로 이 지점에 주목하여 광주시민이 광주의 숨겨진 명소, 명인, 명품을 찾기 위해 관광에 관심이 깊은 시민 자원봉사의 일환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워크숍을 통해 관광에 대한 전문성을 배가하는 것이다. 이런 보편성과 전문성을 토대로 광주의 생활 속 명소, 명인, 명품을 발굴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명인과 인터뷰, 맛집의 탐색, 명소의 재해석 등을 매주 두 번에 걸쳐 15명의 탐험대원이 여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관광매력물을 제시하고 또한 문화관광자원의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성산계류탁열도와 같은 역사적인 사실을 오늘에 재현하고 상설화를 제안하였으며,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을 도서로 제작하고 배포하였으며, 종합적인 발표회와 전시회를 가졌다.

02 추진내용

· 광주시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본 광주의 명소, 명인, 명품들

광주에 새로운 문화를 잉태할 커다란 그릇인 아시아문화전당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는 광주의 문화지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견된다. 문제는 이 그릇들을 채워 넣을 문화적 내용이다.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문화프로그램이다. 무엇보다 광주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광주가 공간과 시간, 인간이 만들어낸 조화로움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도록 자상하게 끌어주는 것도 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광주의 문화적 속살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이 바로 시민들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런 시민들의 내발적인 동력을 문화관광의 영역에서 소중한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문화관광탐험대가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탐험대는 자발적 시민으로 구성하고, 교육을 통한 시각의 전환 및 전문화는 재단이 도와주고, 매주 두 차례에 걸친 탐험 활동을 수행하고, 이의 결과를 인터넷 카페에서 공유하며, 전체를 다듬고 엮어내 새로운 트렌드의 관광가이드 북을 발간하여 광주의 문화관광 요소를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탐험대는 그 특성상 눈에 보이는 관광요소보다 오밀조밀하게 숨어있는 문화관광의 귀한 자원을 드러냈으며, 이를 책자와 전시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광관련 유관기관 및 관광업체에 그들의 손으로 발간한 책을 배포하며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격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광주의 소중한 공간인 무등산 원효계곡 일원의 계산풍류 문화를 현대적 재해석으로 복원한 “성산계류탁열도”의 재현과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 견문록”의 발간이 갖는 의미가 크다.

· 성산계류탁열도

문화관광탐험대는 서하당 유고집에 전하는 〈성산계류탁열도〉를 중심으로 1590년 무등산 자락 환벽당 앞 용소에서 있었던 선비들의 문사철·시서화의 문화와 그 안에 깃든 정신을 재현행사로 조명했다.

단순한 재현을 넘어 이 시대의 눈으로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재조명하고 소통하는 것이었으며 역사를 과거에 가둔 것이 아닌 오늘 더욱 확장하고 계승하는 현전화에 대한 제안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재현 행사의 문헌해석은 조선대학교 한문학과와 임준성 선생이 도왔으며, 송강 정철의 15대 손인 정구선 옹이 고증을 도와주었다. 전체적인 시나리오는 소설가인 김인정 작가가 놀이패 신명이 당대의 선비가 되어 탁족의 멋진 순간을 만들어 주었다. 화가인 허달용 선생은 매화 그림을 통해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보여주었고, 많은 예인들이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런 재현행사는 일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2012년에도 지속할 예정이다.

즉, 역사 속에 기록된 유산을 현실로 끌어오면서 시대를 이해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현전화 사업에 첫 시작으로 의미가 크고, 정례화 된 재현행사가 관광자원으로 부각될 수 있음을 제안하는 자리였다.

· 문화관광탐험대의 광주견문록 I

병원에서 일하는 엑스선 전문가부터 마을운동가, 대학 연구소의 연구원, 미디어아티스트, 사진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지닌 시민들이 문화관광탐험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활동을 했고 그 활동의 기록물이 바로 광주견문록이다. 탐험대라는 이름에 걸맞게 광주 구석구석을 발품 팔아 탐험했다. 늘 걸었던 거리도 걸었고 평소에 다녔던 시장을 다시 둘러보기도 했고,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지하철을 타기도 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이라는 프리즘으로 다시 들여다본 평범하고 일상적인 장소들은 삶이 녹아 들어있는 문화명소들이었다. 대인시장, 무등시장이 그러했고 금남로와 그 아래를 흐르는 지하철이 그러했다. 또한 충분히 매력적인 관광요소를 지녔으되 많이 알려지지 않은 관광명소들을 발굴해내기도 했다. 각화동 시화마을, 계림동 헌책방거리, 북구 문화의 집 소소한 카페,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포플레이나 트뤼포 같은 문화공간들이다.

이 책에 소개된 예순여섯 군데의 문화공간이나 장소들, 축제나 음식점들은 광주라는 거대한 문화관광명소가 지닌 지극히 일부분의 매력 포인트일 뿐이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눈으로 새롭게 조명해낸 문화명소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다. 문화관광탐험대원들 스스로가 입소문을 듣거나 경험을 통해서 선정한 수용자들에게 만족을 주는 관광명소다. 시민들이 자주 찾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은 관광명소라면 그 어떤 기준으로 채택된 관광명소보다 경쟁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 책을 들고 광주 구석구석을 여행하는 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 같다. 이 책을 들고 여행하는 이들이 또 다른 문화관광탐험대원이 되는 셈이다.



03 향후과제

문화관광탐험대는 광주시민들에게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내재된 자원을 시민의 눈높이에
서 발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광주시민의 생활이 곧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임을 알게 하였다. 앞으로 문화관광탐험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필요하다. 탐험대원 만의 의견이 아닌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광주의 명소 명인 명품을 발굴해야 할 것이고, 문화관광탐험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탐험대를 운영하고, 문화 속에 내재된 문화관광 매력물을 발굴함으로써 문화수도 광주의 다양한 콘텐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탐험대는 광주시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시민참여 프로젝트로서 그 입지를 공고히 해야 하며, 지속적인 사업으로 안착해야 할 것이다.

문화관광탐 이 지 선



6-3 전문가와 함께하는 데굴데굴 문화기행

심층 문화예술 여행으로 교육문화기행의 새로운 장을 열다

광주출신 위대한 예술가 정율성 선생을 만나다 문화수도 광주의 정체성을 빛낸 음악가 “정율성”을 찾아 지역문화의 뿌리와 민족적 삶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기행으로 선행학습을 통한 전문성 배가

사업명	전문가와 함께하는 데굴데굴문화기행
사업내용	개별 방문이 어려운 문화예술특화지역을 전문가와 함께 관람하며, 사전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로 전문성 함양 및 시민역량을 강화하고 여행만족도 재고
기간	2011. 1 ~ 2011. 12
예산	18,000천원
대상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광주시민, 출향인
추진방식	－ 국내기행 1회, 해외기행 1회 － 사전/사후 세미나, 현지 워크숍, 간담회 진행

01 개요

국내외 유명 전시회나 개인적으로 찾아가기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국내·외 미술관 및 문화특구를 관련분야 전문가와 함께 선행학습을 거친후 관람 및 체험하는 심층 교육 문화 기행으로, 광주시민 및 출향인 모두 참여 가능.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한 해외기행과 국내 문화예술 특구 기행하는 국내기행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중 추진한다. 참가대상은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사전에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섭외하여 학습하고, 기행전후 세미나 개최 등 학습의 기회 및 피드백의 기회도 갖는다.

02 추진내용

· 다양한 분야 15명의 시민탐방단 정율성 선생의 매력에 흠뻑 빠지다

2011년 8월에 제1회 데굴데굴 문화기행 ‘정율성 중국역사문화탐방’ 사업을 추진하여, 문화예술분야 관심 있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시민 15명이 참가, 광주출신 위대한 예술가 정율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발자취를 탐방하는 기회를 가졌다. 정율성 선생 연구 최고의 전문가 이건상 선생의 전문해설을 곁들여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 일반적 문화기행과는 차별화된 심층교육문화기행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정율성 유적지 탐방 및 하얼빈 정율성 음악제에도 참관, 한국과 중국의 문화예술교류의 현장을 둘러보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기행 후에는 개인별 탐방기행문의 작성을 통해 기행의 후광 효과를 고려하였다.

· 밀착형 문화기행으로 살아있는 문화역사교육 및 문화체험 기회 제공

시민 밀착형 문화 기행을 시도한 것으로 시민 문화 교육의 역할까지 첨가되어 역사 교과서에 서 배울 수 없었던 광주가 낳은 세계적인 음악가 정율성 선생을 지역민들에게 알리면서 살아있는 문화역사교육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

03 향후과제

데굴데굴문화기행은 문화에 목말라하는 많은 시민들에게 시원한 물줄기를 선사하는 신선한 기행사업으로서 가능성을 보여줬다. 사업명에서 알 수 있듯 '데굴데굴'이라는 친근감을 내포한 심층문화기행의 의미를 살려, 보다 내실 있는 문화기행을 추진하여, '데굴데굴문화기행'을 브랜드테마기행사업으로 정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겨울방학 중 국내기행사업으로 계획했던 한반도 동남부 영남권 문화기행은 참가희망자 저조로 실행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홍보와 체험학습 등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시민관심도 제고와 참여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홍보교류팀 이종수



6-4 문화광주스토리텔링 인터넷 공모사업 광주를 스토리텔링하다

청소년이 스토리텔링한 광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 공모를 통해 지역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소스 발굴 및 외연확장

사업명	문화광주스토리텔링 인터넷 공모사업
사업내용	내가 사랑하는 광주의 공간, 자랑하고 싶은 광주이야기 등 '광주의 공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함
기간	2011. 10 ~ 2011. 12
예산	10,000천원
대상	청소년
추진방식	- 인터넷을 통한 공고 및 원고 모집: 11월 1일~30일 - 수상작 선정: 12월 7일/심사위원 4인의 심사를 통해 총 23편 선정 - 시상식: 12월 16일(금) 11:00, 아트스페이스 5층 소공연장

01 개요

문화광주스토리텔링 인터넷 공모 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광주의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소스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질문을 받았을 때 떠오르는 장소라는 개념으로 골목, 우리 집, 우리 동네, 작은 가게, 공원, 서점 등 어떤 공간이라도 가능했다.

02 추진내용

광주 안의 스토리 찾기 공모는 2011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되었다. 나희덕 시인(조선대학교 교수), 백승현 대동문화재단 사무국장, 은미희 소설가, 이경수 광주매일신문 편집부국장이 심사위원단으로 선정되어 12월 7일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수상작은 대상, 우수상, 입상까지 총 23편이며, 그 중 대상은 3부문으로 나뉘어 초·중·고등학교 부문에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상, 일반·대학생 부문에 광주매일신문사장상이 시상되었다, 대상 수상작은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김수빈(설월여자고등학교) ‘할머니와 골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상 박은정(보문고등학교) ‘보물산’, 광주매일신문사장상 김지혜(조선대학교) ‘도심 속 푸름, 내 안의 푸름’이었다.

시상식은 수상자를 포함,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영진 광주매일신문사장, 임수준 광주시 교육청 장학사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월 16일 빛고을아트스페이스 5층 공연장에서 열렸다.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와 서영진 광주매일신문사장은 청소년 참석자들의 눈높이에 맞춘 유쾌한 축사로 시상식장의 분위기를 훈훈하게 만들었다.

· 작품컨셉 “지금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어떠한 공간에 얹힌 자신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사실 오래 살아온 사람에게 더 어울리는 일처럼 보이기도 한다. 청소년들에게 얼마나 공간에 대해 할 만한 이야기가 있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공간은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청소년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살고 있는 공간인 광주에 대해 생각해 볼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참가 대상을 청소년으로 선택한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3부문으로 나뉜 대상 중 광주광역시 교육감상은 김수빈(설월여자고등학교)의 ‘할머니와 골목’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단은 방림동 골목에 대해 쓴 작품을 “맞벌이하는 부모를 둔 글쓰이가 그 골목에서 할머니와 함께 보냈던 유년기의 기억들을 한편의 수채화를 그리듯 담담하면서도 재미있게 풀어냈다. 문장을 만드는 솜씨나 구성, 형식면에서 흠잡을 데가 없었다.”고 평했다.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상 수상작인 박은정(보문고등학교)의 ‘보물산’에 대해서는 “‘보물산’은 서구 금호동과 화정동의 경계에 있는 언덕으로 이름이 없는 그냥 ‘뒷산’이다. 하지만 글쓰이는 불개라는 옛날이야기와 이 뒷산의 이야기를 적절히 조합해 풀어나가면서 나중에는 보물산

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그 이름 없는 뒷산은 박은정의 글로 보물산으로 거듭난다. 스토리텔링의 힘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라고 평했다.

마지막으로 광주매일신문사장상을 받은 김지혜(조선대학교)의 ‘도심 속 푸름, 내 안의 푸름’은 “폐선부지에 조성된 푸른 길을 에세이형식으로 잔잔하게 풀어냈다. 산책하듯 천천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다하는 글쓰이의 솜씨가 제법이다.”라는 평을 받았다.

03 향후과제

‘광주의 공간’이라는 주제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주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광주의 문화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를 만들었다. 미술관, 극장, 시화마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근처의 이름 없는 뒷산까지 광주 안의 다양한 장소에 대한 스토리텔링도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인 광주를 돌아보게 하고, 동시에 광주에 대한 스토리텔링 소스를 발굴하는 작업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발굴된 스토리텔링 소스를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홍보교류팀 김보람



03 향후과제

향후 사업추진 시에는, 광주뿐만 아니라 인접 시도(전남, 전북)의 축제이벤트와 연계 추진하는 것도 효과적이며, 문화재단의 각종 축제사업과도 연결시켜 시너지효과를 노리는 것이 최소비용 최대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광상품의 구성 요소 중 가장 중요한 매개 역할인 여행사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관계 증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홍보교류팀 이종수



07

축제의 전국화 세계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 7-1 페스티벌 오! 광주 통합브랜딩사업
- 7-2 브랜드공연 개발(자스민 광주)
- 7-3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축제
- 7-4 페스티벌 오! 광주 에든버러 축제교류
- 7-5 페스티벌 오! 광주 정월성축제
- 7-6 페스티벌 오! 광주 여성합창축제
- 7-7 페스티벌 오! 광주 아듀2011

7-1 페스티벌 오! 광주 통합브랜딩 사업

‘오월이 있는 광주, 광주가 있는 대한민국’ 신개념 도시브랜드 축제 『페스티벌 오! 광주』

국문표기 : 페스티벌 오! 광주
영문표기 : Festival O! Gwangju



“오!”는 ① 5·18민주화운동, ② 감탄사의 Oh!, ③ 광주지역 5개 자치구, ④ 한국의 전통색상인 오방색, ⑤ 오랫동안의 ‘오’ 등을 의미한다.
“페스티벌”은 축제(祝祭)를 의미함과 동시에 “제의(祭儀)”의 의미를 담아 5·18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
B.I(Brand Identity)의미 : 상모 돌리는 이미지는 축제의 즐거움과 흥겨운 분위기를 반영한다. 동시에 한글 “오”를 연상하게 한다. 붉은색(=혈색)을 사용하여 축제가 가지는 정열적 메시지와 도시브랜드 축제가 갖는 오월의 숭고함을 이미지화하였다.

사업명	페스티벌 오! 광주 통합브랜딩 사업
사업내용	산발적으로 운영되는 지역 축제를 “페스티벌 오! 광주”로 통합브랜딩 하여 지역 축제를 홍보하며 축제간 연계 강화, 운영비 절감 등의 시너지효과 창출
사업기간	2011. 1 ~ 12
예산	65,000천원
사업장소	광주광역시 전역, 축제가 있는 곳 어디나
추진방식	- 도시브랜드 축제 <페스티벌 오! 광주> 통합 홍보 - 축제별 홍보 : Opening 2011, 브랜드공연축제, 에든버러, 정울성축제, 여성합창축제, Adieu 2011 등에 우선적으로 브랜드 사용 - 자치구 소규모축제 및 유관기관 축제에 브랜드 사용 권장과 확대 운영 - 브랜드 시범운영 축제에 한해 홍보 및 부대행사 지원 관리

01 개요

『페스티벌 오! 광주』의 탄생' 광주에는 매년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 2011년 광주문화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축제만하여도 40여개를 넘어서는다. 축제는 많은데, 축제 분위기를 느끼기 어렵다. 광주지역의 축제는 9~10월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특정 기간에 ‘유사한 성격’의 행사가 집중되면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다. 예컨대 행사개최 장소, 홍보장소, 후원업체, 관람객 확보 등에 있어 협력 아닌 경쟁이 붙어 축제의 기대효과가 분산되게 된다. 여러 축제를 비교해 보면 내용과 구성이 비슷하며, 장기전망이 부재한 채 당해 연도 사업비 규모에 맞게 조절되는 단발성 행사의 한계를 보인다.
그렇다면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개최되어온 다양한 축제들을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축제로 변화시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만들 수는 없을까? 또한 소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행사별 예산을 절약하며 효과를 배가시키는 방안은 무엇일까? 이러한 문제의식을 통해 페스티벌 오! 광주가 탄생하게 되었다.

다양한 축제를 통합하기 위해선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광주의 축제 혹은 광주시민의 멘탈리티를 관통하는 가치를 찾는 것이 그것이다. 광주는 슬프지만 기쁘게도 광주를 대표하고 이것으로 인정받는 ‘오월정신’이 있다. 광주는 오월을 통해 **오(oh)!**하는 감탄의 대상이 되었고, **오(5)**개의 구(區)에 사는 광주의 멋진 시민들은 **오랫동안** 잊지 않고 **오월**을 사랑한다. 오늘의 광주는 ‘언제나 있었고, 있고, 있어야 할 오월’과 함께 한다. 광주는 그냥 ‘광주’가 아니다. 언제나 **‘오! 광주’**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광주문화재단은 5월 정신을 담아 기존 축제들을 연계하는 광주광역시 도시브랜드 축제 『페스티벌 오! 광주』를 통해 ① 축제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② 축제를 통해 도시인지도도를 확산시켜, ③ 세계 속 문화중심도시로 위상 정립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된다.

02 추진내용

『페스티벌 오! 광주』는 오월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지역의 모든 축제가 똘똘 뭉쳐져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여 최하위 수준의 도시경쟁력을 최상위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2011년 광주문화재단이 기획·운영한 신개념 도시브랜드 축제이다. 먼저 기본방향을 정립한 후 “5월이 있는 광주, 광주가 있는 대한민국”의 축제 슬로건을 제시하였고, 광주문화재단 직접 운영하는 공연예술축제 7개 사업과 지역의 12개 축제행사의 뜻을 합쳐 『페스티벌 오! 광주』로 통합브랜딩을 실행하였다.

『페스티벌 오! 광주』의 홍보는 중장기적 목표설정을 통해 수행되었다. 광주<전국>아시아<세계>로 점진적으로 축제의 참여범위를 확대시킨다는 구상이다. 1차년도인 2011년에는 지역 축제관계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축제관계자에게 사업 알리기와 참가 시민에게 홍보하는 내부결속에 세부목표를 설정하였다. 실제 홍보의 수행방식은 민간의 전문홍보업체가 참여하는 ‘통합홍보시스템 운영’을 통해 진행되었다. 소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행사별 홍보예산을 절약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설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비·저예산, 온·오프라인 홍보로의 집중이었다. 축제 홍보예산을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홍보효과를 배가시키고 행정제반경비를 절감하게 기획했다. 연중 축제의 홍보를 담당하는 통합홍보업체를 연초에 선정하여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연중홍보를 통해 반복 노출횟수를 증가시켰다.

· 『페스티벌 오! 광주』기본방향

1.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제 모델이 될 수 있는 미래형 도시브랜드 축제의 모델을 제시하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국내·외적 위상을 확립한다.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광주광역시의 문화행사 등이 폭넓게 연계될 수 있도록 외연의 확대와 축소가 용이한 메타축제의 모델을 제시한다.
3. 단계적으로 분야별 축제들을 연계하여 광주지역의 모든 축제가 하나의 브랜드 『페스티벌 오! 광주』로 결합되어 체계적이고 전략적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
4. 명확한 정체성을 가진 축제들을 포함하여 축제를 통해 광주를 상품화 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의 대표적인 문화 인프라로 성장하도록 한다.
5. 능동적으로 1년 365일 ‘페스티벌 오! 광주’의 이미지를 형성, 반복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광주광역시의 도시브랜드 인지도 및 매력도를 높인다.
6.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 조성사업의 핵심 가치인 순환, 생성, 흐름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간·운영·차별화 전략을 모색한다.
7. 하나의 브랜드로 전국과 세계에 공동으로 접근하여 하여 홍보예산절감 및 홍보효과를 극대화 한다. 이를 위한 지역간 네트워크 강화에 노력한다.
8.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시민들이 주인이 되고, 타 지역의 방문객들과 아시아 및 세계인들이 손님이 될 수 있는 유입형 축제모델 제시한다.
9. ‘다핵적 통합’이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통합운영과 자율기획의 적절한 조화로 지역 축제의 통합운영의 새로운 모델 제시한다.
10. 축제, 문화이외의 지역의 전 분야에『오! 광주』브랜드 공유하는 통합 마케팅을 통해 광주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브랜드경쟁력을 강화시킨다.

· 『페스티벌 오! 광주』홍보 단계별 목표 및 방향

해당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역점사항	광주 홍보	전국 홍보	아시아 홍보	세계 홍보1	세계 홍보2
목표	지역의 축제관계자 적극적 참여, 시민적 관심 고취	전국에 축제로 매력적인 도시 광주 알리기	아시아 축제의 허브, 축제중심도시 광주 알리기	광주로 기억되는 대한민국 도입기	광주로 기억되는 대한민국 안정기
주요 국제행사	아트광주11,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아트광주12, 여수세계박람회,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광주비엔날레	하계U대회, 광주디자인 비엔날레



· 2011년 홍보 목표 및 세부내용

단계	기간	홍보 목표 및 세부 내용
1	3~4월	1단계 : 도시브랜드 축제 <페스티벌 오! 광주> 통합 홍보①
2	5월	2단계 : 도시브랜드 축제 <페스티벌 오! 광주> 통합 홍보②
3	6~7월	3단계 : 축제별 홍보① - Opening 2011, 브랜드공연축제, 에든버러
4	8~10월	4단계 : 축제별 홍보② - 정월성축제, 여성합창축제
5	11~12월	5단계 : 축제별 홍보③ - Adieu 2011

· 2011년『페스티벌 오! 광주』주요성과

『페스티벌 오! 광주』통합브랜딩 사업의 성과는 첫째, 대표 장르의 공연예술을 집결시켜 공연예술분야에서는 대표적인 지역의 메가 이벤트로 자리매김하게 한 것이다. 2011년은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브랜드공연축제, 정월성축제, 여성합창축제, 한·중전통문화교류, 에든버러, 아듀 2011 등의 축제 사업에 우선적으로 브랜드를 사용하였다. 1년간의 지속적인 사업홍보로 각인된 이미지는 광주의 시민과 전국적 차원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러한 적극적 관심은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이 주관하는 지역 소규모 공연·예술분야의 축제를 일부 포용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2011년 광주합창제(한국합창총연합 광주합창연합회)는 『페스티벌 오! 광주 - 여성합창축제』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평화연극제(한국연극협회 광주광역시지회)는 주최 측의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업무를 진행하였다.

둘째, 지역의 다양한 축제사업을 연결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했다. 민간단체의 축제사업에 『페스티벌 오! 광주』를 사용하고 싶다는 지속적 요청을 받았으며, 지역의 연간 축제사업을 기획함에 있어 지역의 축제담당자가 업무의 내용을 공유하고 업무상의 애로사항과 희망사항을 교류하는 등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제도적 장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2011년도 나눔대축제'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프로그램 기획에 어려움을 겪던 축제에 『페스티벌 오! 광주』의 상설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서포터 역할을 수행하였다. 축제기획이라는 복합적이고 어려운 업무를 수행하는 행사담당자에게 『페스티벌 오! 광주』는 구원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셋째, 고도의 경영 수법인 MIC(management of indirect costs)를 실현했다. 총 7개 사업의 홍보업체를 각각 분리하여 총 7회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추진하게 될 경우, 행정 인력 운용의 차원에서 사업의 담당자는 입찰을 위한 공고와 제안서 마련,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제안서 접수, 평가회의 개최를 진행함에 최소 2달의 시간을 사용한다. 재원의 운용에 있어 한 번의 평가를 위해 자료로 수당지급, 회의자료 인쇄물 준비, 사무용품 등의 수용비를 합산하였을 때 최소 150~2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만약 통합적인 운영 없이 기존의 운영방치대로 7회의 입찰을 위해 7회의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 7명의 사업담당자는 각각 2달의 시간을 평가를 위해 사용하게 되고, 평가회의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최소비용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행사종료 이후 한 해의 홍보내용 평가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되는 경우 또 다시 최소 1,00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경리·총무 등 사무 부문을 합리화함으로써, 경비 절감 효과를 기하는 고도의 경영 수법인 MIC 기법을 실현하였다.

넷째, 총괄 마케팅으로 IMC(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를 촉진했다.『페스티벌 오! 광주』는 연초 통합홍보 시스템을 운영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축제들을 하나의 브랜드로 공동 홍보를 하였다. 다양한 세부축제의 다양한 촉진수단들을 효율적으로 전체적인 마케팅의 활동 내에서 조정, 개발, 실행, 평가하는 IMC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연간 홍보가 가능하였다. 분기별 홍보를 통하여 공동 홍보효과와 시너지를 창출하여 다양한 홍보 툴에 동시 접근함으로 홍보활동을 위해 사용되는 인력 운영비를 효과적으로 감축하며 공동 홍보활동을 수행함으로 홍보비의 50%를 절감시켰다. 통합운영을 통한 행정경비절감과 수익창출 효과 7억원으로 추정된다.

03 향후과제

광주의 대표 브랜드를 개발하여 홍보하는 야심찬 기획인 만큼 사업의 성과를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더 많은 광주지역의 축제들의 자발적 참여가 요구된다. 다양한 축제의 당사자들이 축제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는 『페스티벌 오! 광주』 사업에 뜻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준다면 ‘축제를 통해 매력적인 광주 만들기’의 이상은 현실에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도달할 수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업무를 위탁하는 광주광역시와 힘을 합쳐 관계기관들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고, 시가 직접 혹은 위탁하는 축제사업 전반에 걸쳐 의무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작업을 2012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더 인기 많은 메가 이벤트들과의 협력관계를 정립해야한다. 광주의 대표적인 이벤트들과의 관계는 『페스티벌 오! 광주』운영에 중요한 부분이다.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세계김치문화축제, ACE fair 등은 『페스티벌 오! 광주』보다 먼저 시작하고 예산과 범위 면에서 규모가 더 큰 축제이며, 전국과 세계적으로 이미 명성 있는 메가 이벤트들이다. 『페스티벌 오! 광주』는 또 다른 메가 이벤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들의 성공적 개최와 전략적 운영을 위한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개념이다. 지역 축제의 마스터플랜을 작성하고 축제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한다. 이를 사용하는 축제들은 『페스티벌 오! 광주』의 브랜드를 사용하게 된다. 광주문화재단이 직접 수행하는 규모가 작은 사업의 경우 『페스티벌 오! 광주』의 틀 속에서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이 되고 있지만, 이러한 축제들 역시 단계적으로 성장하여 광주비엔날레처럼 지역을 대표하여 전국과 세계에서 승부하는 이벤트로 성장할 것이다. 『페스티벌 오! 광주』는 축제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지 축제 그자체가 아니다. 다양한 이벤트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페스티벌 오! 광주』는 존재한다. 따라서 『페스티벌 오! 광주』의 틀에서 지역의 축제들은 축제별 고유 정체성을 유지하고 확립해 나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2015년 광주는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를 개최하게 된다. 세계인이 한자리에 집중되는 이 기회는 ‘광주’라는 도시를 알릴 호재임이 분명하다. 2015년 축제사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매력적인 도시 알리기에 힘을 더해야 한다.

셋째, 지역의 축제정보에 대한 정확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광주문화재단의 출범이후 지역의 민간, 소규모 축제들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져 왔다. 축제의 성패는 홍보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들이 무엇이고 어떠한 성격의 것인지 먼저 조사하는 것이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전작업이다. 지역 모든 축제의

정보를 바탕으로 『페스티벌 오! 광주』를 통해 일정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정보 제공의 역할을 수행해야한다.

넷째, 참여하는 축제들은 명확한 색(color)을 가져야 한다. 지역의 상당수의 축제들이 모두 비슷비슷하고 뚜렷한 색을 가지고 있지 않다. 축제의 색은 그 축제에 참여하는 대상을 결정짓는다. 그리고 축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마케팅의 소구대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된다. 광주지역의 많은 축제들의 참여율이 저조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비슷비슷한 축제를 운영하는 기관들의 논의의 장으로 『페스티벌 오! 광주』가 역할을 수행하여 행사 간 연계와 통합을 통해 참여하는 축제들이 확실한 색깔을 가지는 성공적인 새로운 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다섯째, 광주지역 축제담당자들이 만나는 전문적인 축제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대규모의 지역행사가 특정단체의 행사만으로 전략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행사가 지역의 수많은 단체들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축제담당자들의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한 공식 회의체의 활동이 요구된다. 광주의 모든 축제를 포용할 수 있는 『페스티벌 오! 광주 네트워크 회의』(가칭)를 구축하여 축제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방안, 대외 홍보시기, 방법,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광주지역 축제의 상생발전 방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축제프로그램 운영 방안, 도시브랜드 축제 『페스티벌 오! 광주』 참여 확대 방안, 차년도 축제 일정 및 행사내용 기획에 관한 사항, 축제 네트워크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축제이벤트 네트워크는 서로 다른 축제들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자 역할 수행하여 지역의 축제사업 발전에 이바지하게 된다. 이는 축제를 통한 도시 경쟁력 강화의 중추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축제사업팀 박 선 희

7-2 2011광주브랜드공연개발- 자스민광주

광주대표브랜드공연 “자스민광주” 제작



사업명	광주브랜드공연개발
사업내용	광주브랜드공연 “자스민광주” 작품제작
사업기간	2011. 2 ~ 12
예산	500,000천원
추진방식	- 전문가로 구성된 브랜드공연개발 자문회의 구성 - 주요제작진 및 출연진 섭외 : 제작진-26명 / 출연진-30명 / 무대스텝 : 30명 - 광주공연 : 2011. 7. 2 ~ 3(빛고을시민문화관 / 2회) - 영국에든버러프린지페스티벌 : 2011. 8. 13 ~ 19(EICC / 7회)

01 개요

광주브랜드공연개발 사업은 광주를 대표할 만한 작품이 있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광주를 찾는 외지방문객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에서, 특히 광주의 대표적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5월 민주항쟁’의 기간에 방문객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광주의 정체성을 이해 할 수 있는 광주의 상징적인 브랜드공연이 전무한 현실이다. 또한 외부적 환경으로 공연계의 흐름이 대형화·상업화의 추세, 특히 뮤지컬을 중심으로 외국 작품수입이 많아지고 있어 로얄티 지불 등의 비용유출과 서울 집중현상이 가속되면서 지역의 공연예술생태계는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반여건 속에서, 광주문화재단이 중심이 되어 광주의 정체성을 담고, 시민의 자긍심을 회복하고, 도시이미지의 고도화와 관광객 유입증대의 목적으로 광주대표브랜드공연제작을 추진하게 되었다.

02 추진내용

“『자스민광주』는 전 세계로 보내는 위로와 연대의 무대극” “자스민광주”의 손재오 총연출이 ‘자스민광주’의 작품에 대해 한마디로 요약한 내용이다. 그리고 그중 가장 핵심의 단어는 ‘광주’와 ‘극’이라고 하였다. 한국적인 그리고 가장 남도적인 진도씻김극의 형식을 작품의 큰 뼈대로 삼고, 거기에 현대화된 전통음악, 영상, 마임과 현대무용의 몸짓, 강렬한 타악이 때론 융합하고, 때론 개별화되면서 5월의 영령을 위로하고, 나아가 자스민혁명을 비롯한 전세계의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 “자스민광주” 작품해설

작품 속 주인공 ‘나 = 광주’는 80년 5월 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군부의 총칼에 무자비하게 희생당한 인물로서 씻김제의를 통해 다시 살아나 현대의 무녀와 소리꾼, 연주자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무대를 이끌어 간다. 주인공 ‘나 = 광주’는 자아인 내가 되었다가 이내 다른 사람의 몸으로 이동하여 타인이 되기도 하는 슬픈 여행자다. 슬픈 여행자 ‘나 = 광주’는 튀니지에서 최초로 분신자살한 젊은 노점상 청년이 되기도 하고, 이집트의 난민이 되기도 하고, 자신을 잃어버린 주부가 되기도 하고, 장가 못간 소시민 노총각이 되기도 하는 등 아픈 상처를 안고 떠도는 영혼이다.

이렇듯 ‘나 = 광주’는 과거의 참혹한 자신의 죽음 뿐 만 아니라 몸을 바꿔 자아를 상실한 현대인의 상처를 어루만진다. ‘나 = 광주’는 자신의 몸이 다른 사람의 몸과 다를 바 없는, "나는 너다"라는 화법으로 인류의 공동체와 사랑, 평화의 이야기를 전한다.

씻김제의 음악인 삼현육각의 혼돈한 신명이 역동적 흐름을 지탱하고, 소리꾼의 큰 울림이 그 역동적 신명을 도와 유장하고, 숭고하고, 비장한 공연미학이 작품의 전반을 관통하며 극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개체에서 개체로의 전환과 확산, 개체에서 공동체로의 수렴과 확장을 넘나드는 메타포로서의 ‘자스민 광주’는 남도의 전통문화를 형식적 틀로 삼아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을 위한 씻김이요, 인류가 꿈꾸는 사랑과 평화의 서사적 환타지, 한국적 레퀴엠으로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예술이 총합된 총체극이라 할 수 있다.

03 향후과제

브랜드공연 ‘자스민광주’의 광주공연(2011. 7. 2 ~ 3)이후, 작품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으로 나뉘었다.

짧은 제작기간, 주변의 관심과 압박, 한정된 예산 등은 대표브랜드공연제작이라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가장 어려운 지점이었다. 공연이후 평가에서 많이 언급된 부분 중의 하나가 짧은 제작기간이었으며, 차기 사업에서는 반드시 고려해야할 첫 번째 사안일 것이다. 사업초기 ‘자스민광주’ 작품제작 후 초연공연 이후에 상실 또는 순회공연 추진 등이 기획되었으나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실행되지 못하였다. 출연진 및 제작진, 무대스텝 등 총85명이 초연공연에 참여하였는데, 그 가운데 출연진 30명중 광주지역예술인은 18명뿐이었고 나머지 제작진과 스텝 등은 서울 등 광주외의 지역 거주자였다. 공연에 따른 사례비 지급을 충분하게 하지 못할 상황에서 추가적인 공연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수한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참여하게 하여 짧은 기간에 작품제작이 가능하였던 점은 긍정적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공연 등을 고려하였을 때는 예산확보 외에 더블캐스팅 등의 방법을 통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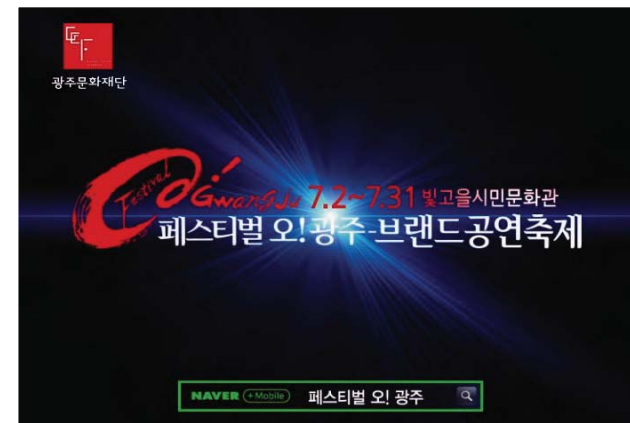
더불어 초연에 쏟아진 여론으로 광주문화재단이 감당해야 할 모든 역할과 책임이 자스민광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환경으로 골려갔다는 점, 내부적으로도 곱씹어 보아야 할 일이다.

공연전시팀 나양채

7-3 페스티벌 오! 광주 - 브랜드공연축제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하여 전국과 해외에서 인정받는 저명한 작품을 선정하여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관람기회를 제공하고 광주를 대표하는 공연축제로 발전시킴

사업명	페스티벌 오! 광주 - 브랜드공연축제
사업내용	브랜드공연축제의 비전에 상응하는 순수 공연 예술 작품 8편을 선정하여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고 지역간 문화교류를 통한 예술단체의 활성화 및 광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발전
사업기간	2011. 7. 2 ~ 2011. 7. 30
예산	180,000천원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및 인근 주변
추진방식	자체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프로그램 구성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정서에 맞고 완성도 높은 공연물을 선정하여 프로그램 구성



01 개요

기존 지역 공연예술 축제인 국제공연예술제가 나름의 정체성을 갖고 있음에도 지역과 중앙의 호응이 부족하고 도시 브랜드화에 미흡하여 광주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5월과 연계 통합하여 도시 브랜드 축제를 창설·운영함으로써 광주라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축제는 시작되었다.

02 추진내용

· 5월이 있는 광주, 광주가 있는 대한민국

프로그램 구성을 위하여 행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 극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르에 구애받지 않은 공모를 통하여 대표 공연을 선정, 전국 지자체중 최초의 제작 총체극 Jasmine 광주를 만들어 영국 에든버러 축제에 출품하도록 추진하였다. 국비 및 시비의 60%삭감으로 인하여 해외작품의 초청이 어려웠지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와 연계 우수프로그램을 유치하여 대중성을 확보하고 해외에서 인정받는 저명한 공연을 섭외하는 등 명품 브랜드 공연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였다.

· 명칭 전환

광주국제공연예술제
(2006년~2010년)



『페스티벌 오! 광주-브랜드공연축제』
(2011년~계속)

· 브랜드공연축제 프로그램 구성

일 자	공연명	작품명	장르
7.2(토)~3(일)	브랜드공연 : 광주문화재단	Jasmine 광주	복합
7.9(토)~10(일)	광주지역브랜드 : 놀이패신명	일어서는 사람들	연극
7.12(화)~13(수)	광주지역브랜드 : 타악그룹얼쑤	인수화풍	복합
7.16(토)~17(일)	광주지역브랜드 : 극단진달래피네	몽연	연극
7.19(화)~20(수)	광주지역브랜드 : 김미숙&임지형	연의 노래	무용
7.23(토)~24(일)	타지역브랜드 : 사다리움직임연구소	보이책	연극
7.27(수)	국립무용단	코리안 판타지	무용
7.30(토)~31(일)	타지역브랜드 : 더 패트론 컴퍼니	카르마	복합

· 사업 진행 결과

－ 관람객 현황

· 공연장 : 15,427명 관람(유료10,000명, 초청 5,427명)

－ 출연단체

· 공연장 : 8개 단체 250명 참여(국립무용단 외 7단체)

· 부대행사 : 굿패마루외 39개 단체 200명 참여(문화나무예술단)

· 특별전시회 : 모자이크 스쿨 시민 체험 전 외 4개 단체 109개 작품 참여

－ 홍보결과

· 홍보물 : 프로그램북, 포스터, 리플릿, X배너, 초청장, 육교현수막, 가로등배너, 에드벌룬, 외벽 현수막, 광고탑(광주역) 등

· 언론매체 : 보도기사 23회, TV방송 송출 30회(KBC)

03 향후과제

지역의 공연예술발전을 위하여 국비 및 시비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보다 많은 지역 예술단체의 참여 및 성장을 위하여 정기 및 상설 공연을 위한 준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창작 공간 및 기성 예술단체와의 연계한 멘토링 방식의 도입을 통한 미래 세대의 발굴 육성이 필요하다. 재단에서는 지역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이끌어 인재의 서울 및 외부 지역 유출을 막고 지역문화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브랜드 축제가 축제자체의 공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획자, 공연전문가, 기획사 등의 초청과 더불어 마켓을 형성하여 지속적인 공연의 발전 및 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다.

축제사업팀 박 주 호

7-4 페스티벌 오! 광주 - 에든버러 축제교류

'Jasmine Gwangju(자스민광주)'희생된 영령들을 위한 레퀴엠

세계 축제의 대표도시 영국 에든버러와의 문화교류 추진 세계에서 2,500여개의 공연팀이 참여하고 42,000개 이상의 공연이 펼쳐지는 축제의 도시 에든버러에 광주의 대표브랜드 공연인 '자스민광주'의 참여를 통한 양도시간 문화교류, 협력관계 구축 및 세계적인 수준의 브랜드 공연을 육성하고자 함

사업명	페스티벌 오!광주 - 에든버러
사업내용	광주의 대표브랜드 공연인 '자스민광주'가 에든버러축제에 참가함으로써 양도시간 문화교류 및 친선관계 정립
사업기간	2011년 3월 ~ 12월
예산	430,000천원
추진방식	격년제로 양도시간 축제 참여 - 2011 : 에든버러에 광주대표 브랜드 공연 참여 - 2012 : 광주에 에든버러 공연팀 참여

01 개요

페스티벌 오! 광주 에든버러 사업은 2010년 11월 광주 시장의 영국 에든버러 방문 시 논의했던 사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작되었다. 당시 양 도시 간 축제교류 및 2015 하계 U-대회 개최시기에 공동으로 대규모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는 세계적인 축제도시 에든버러와 광주의 교류를 통해 문화와 경제를 비롯한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자 함이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지역 축제 문화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 '행복한 창조 도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는 데 의의가 있다.

02 추진내용

- **광주의 과거, 미래 가치를 구현하는 대표 브랜드공연을 제작하다**
그 지역을 얼을 담은 공연은 가장 지역적이면서 외부인에게 소구력이 강한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본고장이자 의향인 광주가 지닌 특색을 오롯이 담아낼 브랜드공연의 제작이 필요했고 '자스민광주'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탄생하였다. 광주에서 제작하고 시민들과 공유한 자스민광주는 에든버러 시의 특별 초청으로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기간에 현지 공연장에서 공연하게 되었다.
- **“작품의 컨셉- 과거와 현재의 민주화운동의 영령을 위한 씻김이요, 진혼곡이다.”**
'자스민광주'는 한국의 전통문화원형인 남도 씻김제와 음악이 중심을 이루면서 현대인의 잃어버린 자아와 1980년 5·18광주민주화운동과 튀니지, 중동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영령들의 씻김이요, 진혼곡이다.
'자스민광주'는 80년 5월 항쟁 때 희생당한 영령들과 함께 민주화과정에서의 아픔을 먼저 경험한 광주가 현재 중동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스민 혁명의 희생자들에게 위로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내는 현대화된 무대 굿이다.
최근 공연계의 가장 모던한 형식을 느껴볼 수 있으며, 동시에 5월 광주의 정신을 국내 외 아티스트들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작품이다.



· 에든버러 페스티벌 참가

광주 대표 브랜드공연으로 제작된 '자스민광주'는 시내중심가에 위치한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센터에서 2011년 8월 13일(토)부터 19일(금)까지 총 7일 동안 7회(하루 1회)의 공연을 선보였다.

또한 길거리 공연 3회, 포토콜 1회 등 총 11회의 공연을 하였으며, 1,220여명이 관람해 Edinburgh Spotlight Review로부터 "흥미 위주의 공연들 가운데서 '인상 깊고 감동적인 내용'을 전달했다"는 평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프린지 전문평가기관인 Broadway Baby 최고 등급 별 5개를 획득했으며 An absolute rare treat (정말로 진귀한 볼만한 작품)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이 기록할만한 결과이다.

이는 상위 5%의 훌륭한 공연에만 수여되는 것으로 '자스민광주'는 이와 동시에 '인권상'과 '바비스 식스 스타 어워드' 후보로 등재되었다.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공식 초청작인 한국의 '템피스트'가 가디언과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각각 별 4개를 획득한 것에 비교해 볼 때 유의미한 평가라고 볼 수 있다.



Dear Jasmine Gwangju,

I'm writing to congratulate you on your five-star review. Broadway Baby gives five-star reviews to only the top five percent or so of shows, so you are in good company.

This means that your show is eligible for The Bobby's Sixth Star Award. You can find out more about The Bobby's on our website.

As a five-star show, you're also eligible for a special discount on advertising. Place an ad in our printed edition (which you've probably seen around Edinburgh already), and we'll give you a free 160x160 button advert on our website.

I've included some 5-star stickers you might like to use on your publicity to spread the word. If you want to use our logo, you can find copies here: <http://www.broadwaybaby.com/fivestars>, along with more details about our advertising options.

Yours sincerely,

James T Harding
Editor

03 향후과제

2011년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직접 참가한 결과 프린지 페스티벌 참여 작품의 70% 이상이 코미디, 매직쇼 등의 흥미위주 공연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공연단들이 직접 무대의상을 입고 나가 전단지를 뿌리고 거리 홍보를 하는 등 관객몰이에 힘쓰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좋은 성과를 얻은 공연은 프린지 기간(3~4주) 내내 공연을 하고 있었다. 이는 대체적으로 5회 이상의 공연이 진행된 후에 발표되는 평가기관의 공연 리뷰를 이용한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함이었다. '자스민광주' 공연평가 리뷰 또한 공연 6회째 발표되었고 상위 5%의 공연에만 주어지는 별 5개를 받았으나 주어진 기간으로 인해 공연을 종료해야 했다. 향후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다시 참가할 때에는 이러한 현지 사정과 홍보 방법, 공연 일정, 장소 선정 등이 공연의 성공여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을 인식하고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라 하겠다.

2012년에는 양도시간 문화교류 협의에 따라 에든버러시가 선정한 공연팀이 광주에 초청될 것이다. 이를 통해 상호 문화교류에 있어 내적 성숙을 기할 수 있는 계기로 승화했으면 한다.

공연전시팀 최윤희 · 정주라



7-5 페스티벌 오! 광주 - 정율성축제

깊어가는 가을밤에 울리는 현의 향연

10억, 중국인이 사랑한 음악가 정율성 음악을 통한 국제교류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의 장을 마련하여 국제음악축제로 발전시킴

사업명	페스티벌 오! 광주-정율성축제 사업
사업내용	정율성 음악공연, 클래식공연, 중국전통음악, 재즈공연, 비보이, 무용, 대중가요, 성악, 합창, 풍물, 어쿠스틱밴드, 팝페라, 학술세미나 등 다양한 장르로 문화교류 추진
사업기간	2011. 2 ~ 2011. 12
예산	499,000천원
대상	국내 - 광주광역시민 및 전국의 문화예술인 국외 - 중국 하얼빈 시민 및 근교의 문화예술인
추진방식	- 국내외 유명 음악인들을 초청하여 대규모 음악회 개최 - 광주·전남지역예술가들의 중국 파견공연을 통한 광주광역시 홍보 - 국내외 정율성 전문가를 초청하여 국제학술세미나 개최 - 중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공연개최를 통해 발전적 문화교류 진행 - 협업 필요에 따라 관련 전문단체 혹은 기관과 공동주관 추진

01 개요

본 사업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돋움하는 광주광역시가 아시아와 만나는 매개로서 축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정율성은 현재 신중국 건설 100대 영웅으로 추앙받는 걸출한 인물로 중국인들의 가슴속에 스며있는 인물이다. 10억의 중국인에게 사랑받는 광주출신 중국최고의 음악가인 정율성을 매개로 중국인의 가슴을 열고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특화된 음악제로 자리매김하여, 점진적으로 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광주 공연 예술축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02 추진내용

· 세계적인 음악가들 한자리에 모이다

본 사업은 소통·열정·비상·화합·평화를 주제로 세계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과 각종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해 촉망받는 젊은 아티스트, 세계적인 지휘자 등을 한자리에 모아 진행하였다. 먼저 전문가로 구성된 프로그램 추천위원회를 조직하여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구성하였고, 주제에 걸맞은 출연자들을 선정하였다. 공연에는 첼리스트 양성원과 바이올리니스트 양성식 형제, 런던로얄필하모닉 수석지휘자 그레고리 노박을 비롯해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는 실내악 그룹 ‘비엔나양상블’ 그리고 떠오르는 차세대 음악가로서 피아노 김태형, 바이올린 김지윤, 서민정, 비올라 서수민, 첼로 김민지 등이 초청되었다.

첫째 날은 지역단체인 양상블 루미나시아의 공연으로 지역친화도를 높였으며, 공연 내용에 있어서도 해설이 있는 음악회를 진행하여 일반인들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이란 평을 받았다.

둘째 날은 광주시립교향악단과 그레고리 노박, 양성식, 양성원의 협연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공연은 정율성의 오페라 ‘망부운’이 가진 “중국적인 소리들을 한국인의 열정에 의해 표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편곡한 연주와 브람스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이중 협주곡’ 및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4번’ 등을 선보였다.

셋째 날은 차세대 클래식 스타들의 공연으로 열정적인 무대를 보여줬으며, 마지막으로 호른을 포함한 ‘비엔나양상블’의 공연을 통해 정통 클래식의 현대적 해석을 선보였다. 전체 축제 관람객수가 5천여 명을 넘어섰고, 지역예술가들로 구성되어 진행했던 거리공연도 1천여 명이 관람했으며, 국제학술세미나 및 전시회 등에서도 천여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 성공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로 거듭났다.



· COME JOIN US HARBIN!

유네스코가 지정한 중국의 음악도시 하얼빈은 중국 정부의 주도로 정율성기념관이 세워진 곳이다. 양 도시가 정율성이라는 하나의 공통주제 아래 한마음으로 교류할 수 있는 적합한 도시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게다가 올 해로 개관 1주년을 맞는다는 점에서 하얼빈에서 한 중문화교류공연을 진행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일이었다. 이를 위해 하얼빈에서 소수민족단체 중 가장 영향력이 큰 조선민족예술관과 협력하여 사업 추진에 편의성을 더했다. 상호교류로 이뤄지는 공연이기에 양 국가에서 1회씩 공연을 개최하기로 하여 8월에 하얼빈에서 광주 공연단이 공연을 하고, 10월에는 정율성축제 기간에 중국측 공연단이 광주를 방문하여 공연하기로 하였다. 중국 공연에서는 첫날 1,700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전석 매진을 기록하였고, 둘째 날 역시 1천여명의 관람객이 몰려 대성황을 이루었다. 하얼빈 공연에 이어 한국에서 열린 10월 공연은 하얼빈 가극단원들을 중심으로 오페라, 민속무용, 중국 전통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져 중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 하얼빈에 한국 문화의 씨앗을 심는 도서관증식

흑룡강성은 조선족 수가 중국 전역에서 최고로 많은 성이며 그 중 하얼빈시는 흑룡강성의 성도이자 조선족 출신의 공무원이 있을 정도로 조선족의 사회 참여도가 높은 곳이다. 이를 증명하듯 소수민족 중 유일하게 민족예술관을 갖고 있으며 조선민족예술관에서는 조선족의 문화예술을 가르치며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하고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었다. 우리는 한글 도서 기증을 통해 도서관에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고 제안했고, 하얼빈 측에서도 반갑게 받아들였다. 광주문화재단 직원들과 전남일보사의 도움으로 300여권의 도서를 기증하였다. 온라인이나 각종 영상매체로 한류 같은 화려한 한국의 모습만을 보아온 이들에게 문자를 통해 한 층 더 깊이 있고 정감 있는 한국문화로의 접근 기회를 열게 되었다.

03 향후과제

이 축제는 정율성을 매개로 중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관건이다. 따라서 도시별로 개최되는 일회성 행사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류가 기반이 되어야 대규모 축제로 거듭날 수 있다. 중국내 거점 도시 확보 및 지속적 연계로 양국이 장기적인 신뢰와 믿음을 쌓아 문화교류의 기틀을 마련하고,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교류하면서 격년에 한 번씩 지역을 순회하는 등의 상호교류 공연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 더 나아가 정율성이 가진 혁명의 이미지를 적극 활용하여, 인권 도시 광주의 혁명정신을 연계한 다양한 공연작품들을 교류하는 등 중국 내 광주의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확장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아우를 수 있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하고, 프로그램 구성의 다양화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매년 초청되는 세계적인 공연자들의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서도 실험적인 새로운 공연 형식을 적극적으로 선보이는 무대가 되었으면 한다.

축제사업팀 권은애



7-6 페스티벌 오! 광주 - 여성합창축제



멋진 친구들 전국 최대 규모의 품격 있는 여성합창축제 개최로 문화수도 광주의 이미지를 고양하고 <페스티벌 오! 광주-정음성축제>와 연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꾀했다. 또한 합창을 통한 타 지역과 문화교류의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였으며 특별 프로젝트 합창단 운영과 해설이 있는 합창으로 시민 관심도를 고취 시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사업명	페스티벌 오! 광주 - 여성합창축제
사업내용	유명 강사의 합창교실, 서울시합창단 초청, 최정상 여성합창단 초청, 광주 주요합창단 초청, 각종 부대행사 등
사업기간	2011. 10. 21 ~ 2011. 10. 23
예산	90,000천원
장소	광주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및 광주전역
추진방식	- 프로그램추천위원단 운영을 통한 작품 선정의 공정성 확보 - 타 합창제 주체인 한국합창총연합 광주연합회의 '향토작곡가의 밤' 연계 - 1차년도 거점교류도시 서울특별시 대표 '서울시합창단' 초청 - 수상경력을 갖는 전국 최정상 여성합창단 초청 공연

01 개요

페스티벌 오! 광주-여성합창축제 「멋진 친구들」은 2008년부터 진행되어온 광주전국여성합창경연대회를 더욱 발전시켜 감흥과 공감을 바탕으로 지역 합창인들을 비롯한 시민과 함께 호흡하고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인권도시 광주에 내재된 여성인권을 문화와 연결 짓는 매개로 합창이란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광주(민주)+여성(인권)+합창(평화)의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드러남과 동시에 지역 여성합창단의 질적 수준 향상과 합창문화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하였다. 더불어 전국 각지에서 여성합창단이 참여함으로써 문화 교류의 장을 확장하였으며, 각 분야별 민간 교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02 추진내용



· 명칭 전환



· 멋진 서울 친구들 - 그곳에서 함께 하다

본 사업은 전국의 지방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여성축제로 특화된 합창축제이다. 첫 번째 브랜드공연은 '멋진 서울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서울시합창단 초청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상의 프로합창단으로써 풍부한 음색과 다양한 레퍼토리로 광주시민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다. 또한 문화재단 관계자, 각 구청장, 시민단체 대표, 지역 합창단 지휘자 등 16인으로 구성된 카메오합창단을 특별 게스트로 초대하였다. 여기에 별도로 서울시합창단 오세종 단장이 강사를 맡아 합창 세미나를 진행, 지역민과 음악 애호가들에게 합창 학습 기회 및 지식 제공을 하였고 광주지역 여성합창단체를 대거 초청, 관객이 함께하는 참여형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특히 시민 자원봉사자 참여로 경연대회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일조하였으며 다각적인 방법에 의한 홍보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전국적인 참여 유도로 시민들의 관심을 촉발시켰다. 여기에는 여러 장소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거리 공연 등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대외 인지도를 상승시키며 단단히 한몫을 한 통합홍보의 효과가 컸다고 판단된다.

· 멋진 여자 친구들 · 매력적인 그녀들의 이야기

두 번째 명품초청공연은 '멋진 여자 친구들'이라는 주제로 구리시여성합창단, 창원시그린여성합창단, GJ SINGERS, 엘여성합창단, 원주레이디싱어즈 등 각각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이름 있는 합창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5개 여성합창단이 참가했다. 또한 그들의 만남을 축하하기 위해 광주파파남성합창단이 특별 출연하였으며 프로그램추천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만큼 각각의 지휘자 스타일과 합창단 소리에 따른 여러 음악적 색깔을 겸비한 특색있는 공연이 한 무대에서 펼쳐졌다. 특히 이날의 공연에는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와 동구여성합창단을 이끌고 있는 변욱 지휘자가 사회를 맡아 합창단 소개와 더불어 전체 곡에 대한 설명 등으로 공연에 대한 집중을 높일 수 있게 하였다.

· 멋진 광주 친구들 · 지역 작곡가 작품 소개

'멋진 광주 친구들' 셋째 날은 <페스티벌 오! 광주>지역 축제연계의 일환으로 광주합창연합회가 매년 개최하는 '광주합창제-향토작곡가의 밤'을 공동주관하여 축제를 강화 발전시키고 축제문화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1차년도 시범적 운영 모델로 제시하였다. 합창문화의 인큐베이팅을 위해 수익적 측면보다는 축제의 프로그램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총 16개 단체가 참여했다.

<참가단체>

문맘스콰이어, 살레시오여중합창단,
광주여성합창단, KBS어린이합창단,
광주북구여성합창단, 광주서구여성합창단,
수피아여중합창단, 스쿨피아싱어즈,
광주CBS여성합창단, YMCA합창단,
아이필양상블, 꿈을품은메아리합창단,
광주레이디싱어즈, 광주아버지합창단,
광주남구여성합창단, 사랑의부부합창단



· 멋진 거리 친구들 ·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또한 축제기간 동안 합창단 대기실 및 시민들의 휴식처로 “멋진 카페”를 운영하였으며 놀이패 신명의 5·18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광주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표현 작품인 “언젠가 봄날에” 공연, 광주시민의 문화충족 욕구를 해소하고 본 행사를 홍보하기 위해 광주 전역에서 “게릴라 합창 거리공연”, 대사보다는 춤으로 모든 것을 표현, 문화를 향유하는 기쁨을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수준 높은 공연을 직접 체험하며 예술에 대한 호기심과 자긍심을 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박준희 무용단 “댄스 페스티벌”, 음반 및 악보, 서적 등의 제작·출판·유통 판매와 더불어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맞아 클래식 음악에 관한 매체개발을 통해 CD, 비디오 및 DVD 등의 다양한 제품을 제공하는 중앙아트 “멋진 합창 악보전”, 페스티벌 오! 광주-문화나무예술단인 윤만식 탈 전시 “광주의 얼굴전” 등이 ‘멋진 거리 친구들’이란 주제로 함께 하였다.

03 향후과제

이번 여성합창축제는 경쟁을 통한 발전의 긍정적 의미는 있으나 요강에 따른 제한적 참여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볼거리 즐길거리 등 콘텐츠 개발로 시민 참여형 축제로의 진행방식을 전환하였다. 특히 관객이 자유스럽게 시범합창단으로 참여한 합창 세미나와 지역 유명인으로 구성된 카메오합창단, 축제 참여 단체 모두가 함께한 연합합창단 등 3단계의 특별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따라 문화수도 광주의 홍보 및 대외적인 신뢰 구축으로 브랜드 가치 상승효과를 가져왔다.

추후 출연단체 선정에 있어서 지역 합창단체의 경우 객관적인 사항들로 항목을 작성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매년 연주팀을 선정하되 실적이나 연주 경력 등을 토대로 한다면 단기간 선의의 경쟁이 발생하여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이다. 또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부대행사를 구성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드레스 제작업체 디자이너가 참여하는 연주복 패션쇼, 여성합창 악보 및 CD 전시·판매하는 합창 악보전, 여성작곡가 및 작품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작곡경연대회 등 콘텐츠 개발로 축제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한하다. 합창이란 장르의 특성상 메니아들을 위한 공연 수준의 극대화, 일반 관객을 위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타 공연과의 차별화를 높이고 관객 선점이 용이토록 지역합창단과의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축제사업팀 송현민

7-7 페스티벌 오! 광주 - 아듀 2011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를 위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송년 행사를 마련하여 아쉬운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의 소망을 함께 염원하는 마당

사업명	페스티벌 오! 광주 - 아듀 2011
사업내용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아쉬움을 달래고 다가오는 새해 염원을 담아낸 페스티벌 오! 광주 아듀2011
사업기간	2011. 12. 31
예산	30,000천원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및 야외 주차장
추진방식	자체 추진을 원칙으로 하며, 내부 프로그램 구성 위원회를 조직하고 지역정서에 맞고 뜻깊은 송년 행사에 부합되는 단체를 섭외하고 야외 부대행사로 우리 고유 놀이문화를 재현하는 축제

01 개요

각계각층의 시민들에게 한해에 대한 회고와 창조적 희망의 새해를 축원하면서 문화중심도시 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는 축제의 한마당. 특히, 지역 내 문화 소외계층의 관람 및 참여를 중심으로 하여 문화를 통한 따뜻한 광주공동체를 구현함.

· 사업 진행 결과

– 관람객 현황

- 공연장 : 715석 중 880명 관람
- 부대행사 : 800여명 참석으로 달집태우기 및 떡국 나눔 행사실시

– 출연단체

- 공연장 : 8개 단체 100여명 참여(중앙국악관현악단 외 7단체)
- 부대행사 : 놀이패 신명 15명 참여

– 홍보결과

- 홍 보 물 : 프로그램북, 포스터, 리플릿, X배너, 초청장 등
- 언론매체 : KBS라디오 2회 인터뷰(사무처장), 보도기사 2회
GFN(광주영어방송국 인터뷰 : 박수현)

03 향후과제

페스티벌 오! 광주 · 아듀2011 사업은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실내 행사에서 더 많은 인원이 함께할 수 있는 야외행사를 요구 받고 있다, 더불어 동일한 날, 비슷한 시간에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 중복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송신년 행사”로 통합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다수의 의견을 쫓아 그 막을 내린다.

축제사업팀 박 주 호

08
국제문화교류확대

- 8-1 아시아도시간 문화교류 협력사업
- 8-2 해외레지던스&페스티벌 진출 지원사업
- 8-3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 운영
- 8-4 북해도 문화재단 연극 교류 공연
- 8-5 이탈리아 모자이크스쿨 워크숍

8-1 아시아도시간문화교류협력사업

광주, 아시아와 친구 되기

아시아 도시들과 나누고 채우다 광주지역 문화예술단체 소속 예술인 12명이 아시아 문화 도시인 중국 상해와 정주, 말레이시아 페낭,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알마티 등 4개국 5개도시를 방문해 도시 간, 기관·단체 간 문화교류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와 인적 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사업명	아시아도시간문화교류협력사업
사업내용	광주 문화예술인 12명이 아시아 4개국 5개 도시를 방문해 도시 간, 기관·단체 간 교류협력 도모
사업기간	2011. 6 ~ 2011. 12.
예산	36,000천원
추진방식	- 전문가 간담회 거쳐 교류대상 도시 및 방문기관 선정 - 문화예술단체 및 기관 파견자 선정 - 교류지역 방문 및 방문 귀국 보고회

01 개요

아시아 도시간 문화교류협력사업은 네트워크를 구축함과 동시에 다양한 정보와 인적 교류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국제적 브랜드를 제고하는 해외문화교류사업 중 하나. 광주문화예술인들이 아시아 문화도시를 방문해 광주를 홍보하는 것은 물론 방문도시와 MOU를 체결,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매년 주관단체가 바뀌어왔던 이 사업은 2011년도엔 광주문화재단 주관으로 광주지역 문화예술인 12명이 아시아 4개국 5개 도시를 방문해 교류협력활동을 한 것으로 진행됐다.



02 추진내용

· 문화예술인 12인, 아시아 4개국 5개 도시로

아시아의 어느 도시와 어떤 문화교류를 맺을까. 기존의 방문 도시와 겹치지 않으면서 광주와의 긴밀한 교류를 기대할 수 있는 도시와 기관을 선정해야 했다. 먼저 현대 중국의 상징인 상해시(인민대외우호협회)와 중국 역사·문화 중심지인 하남성 정주시(하남성 문화청 및 하남가무연예집단)가 결정됐다.

두 번째로 '동양의 진주'라 불리는 말레이시아 페낭의 '말리홀 레지던스'와 싱가포르의 에스플라네이드가 선정됐다. 페낭은 100년 이상 영국 식민지를 지내면서 중국계가 70%를 차지하는 야당 성향의 도시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지타운거리' 등 우수한 문화적 자산을 갖춘 곳이다. 싱가포르 에스플라네이드는 아름다운 조형미와 철저한 공연 기획으로 연 80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는 세계적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문화도시 랜드마크'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마지막으로 카자흐스탄의 옛 수도이자 문화·금융·출판 사업의 중심지인 카자흐스탄 알마티가 교류도시 리스트에 올랐다. 각 문화예술단체에 참가자들을 추천해 주도록 협조를 구했고, 자체 심사를 통해 11개 단체, 12명의 문화예술인들이 아시아 문화교류에 나섰다.

· 상해·정주에서 중국의 저력을 보다(2011. 12. 4 ~ 12. 8)

중국방문단은 상해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상해시 인민대외우호협회 직원들의 뜨거운 환대를 받았다. 상해의 관광, 경제, 문화, 교육 등 민간외교를 전담하는 국가기구인 인민대외우호협회는 향후 상해시 문화단체, 학교 등과 광주시 문화예술단체, 기관 간의 문화교류 가교역할에 적극 나서주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들이 2012년 광주문화재단을 방문해 상호 문화교류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업무협약 등 안정적 교류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상해시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상해도시전람관, 주택공업지구를 창의문화산업단지로 개조한 전자방 등은 구도심 활성화와 문화관광 우수 사례로서 깊은 인상을 남겼다.

하남성에서는 관내 모든 문화예술을 총관장하는 하남성 문화청과 지속적 문화예술교류를 위한 MOU 추진을 합의했다. 또한 교향악단, 민족악단 등 13개 단체 600여 명의 단원을 보유한 하남가무연예집단과 광주시 시립문화예술단과의 상호 교류를 추진하기로 하고 2012년 페스티벌 오!광주-정율성축제 시 상호방문공연을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방문단 명단〉 노창수(광주문인협회장)·김미숙(광주무용협회장)·선병식(광주예총)

· 페낭의 교훈 ‘허브 되기=친구 되기’ (2011. 12. 11 ~ 15)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방문단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 잡은 말리훔 레지던스에 도착하자마자 페낭의 매력에 푹 빠졌다. 특히 페낭 최고의 화교집안으로서 말리훔 레지던스, 페낭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을 운영하며 문화예술에 아낌없는 후원을 하고 있는 Yeap가문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받았다. 말리훔 레지던스는 아시아 작가들을 대상으로 6개월간 숙식과 일정 생활비를 제공하고 전시회까지 열어준다. 조지타운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중국문화협회 관계자들도 한결같이 ‘광주는 어떻게 문화도시가 되었나? 페낭도 광주처럼 되고 싶다’며 적극적으로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교류 방문을 청했다. 이들의 열정은 ‘페낭에서 과연 무엇을 얻어갈 것인가’에만 관심이 쏠려있던 방문단에게 ‘이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던져 주었다. ‘허브’가 된다는 것은 우리 중심으로 모이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 부족한 것은 채워주고, 넘치는 것은 나누는 것임을 깨달으면서 실질적인 교류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2012년부터 광주미술협회 소속 작가들을 말리훔 레지던스에 파견하고, 페낭 작가와 말리훔 관계자를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사업과 광주국제여성미술제 등에 초청하는 방안이 협의됐다. 이후에도 양 도시간 작가 교류 및 문화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동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MOU체결을 합의했다.

‘아트 허브’를 표방하며 싱가포르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에스플라네이드는 글로벌 아티스트들에게 널리 문호가 개방되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 광주 문화예술인들의 해외 진출을 위한 무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었다.

〈방문단 명단〉

류재웅(광주미술협회) · 노정숙(광주미술협회 여성정책팀장)
강대홍(광주문예회관 공연사업과장) · 김유정(광주음악협회 사무국장)
최영화(광주연극협회 회장)

· 만남이 교류의 시작, 카자흐스탄 알마티(2011. 12. 20 ~ 23)

‘카레이스키’ 고려인 강제이주의 아픈 역사가 있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방문은 참가 예술인들에게 많은 호기심과 벅찬 감정을 불러 일으켰다.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알마티 예술인모임을 통해 모진 역사 속에서도 주류사회에 당당히 자리잡은 고려인들을 만났고, 이들의 존재는 문화교류에 있어 큰 자산이 되리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소속 예술인들은 새로운 예술에 대한 욕구, 해외진출 의지와 문화소통에 대한 열정, 특히 한국의 예술지원시스템과 자유로운 창작활동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고려



인 3세로서 2010년 대인시장 레지던스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이 스타니슬라브 작가가 두 달 동안의 광주생활에서 느낀 조국에 대한 추억에서 교류의 작은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소하지만 자주 만나는 것, 그것이 교류의 시작이고 아시아도시간문화교류협력사업의 핵심임을 함께 공감하는 3박4일이였다. 그 시작으로 알마티-광주문화예술계 간 ‘알마티를 사랑하는 예술인’ 인터넷 카페 개설을 합의했다. 광주전남작가회의와 카자흐스탄 작가동맹 회원이 함께하는 문학 작품집 발간을 추진하고 사진협회도 광주-알마티 합동 촬영회 및 교류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거창한 행사보다 거미줄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꾸준한 접촉으로 상호 신뢰를 형성해 최종적으로 민간차원의 자생성 있는 소통을 이뤄갈 것을 기대한다.

〈방문단 명단〉

나종영(광주민예총 지회장) · 조정태(광주민미협 지회장) · 김경윤(광주전남작가회의 회장)
조정(광주사진협회 부회장)

03 향후과제

2011년 뿐 아니라 그동안의 사업 진행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광주시 문화국제교류의 구체적인 목표와 발전방향에 대한 충분한 공유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MOU를 통해 구축된 협력네트워크를 이후 광주시 문화국제교류와 어떻게 연결시키고 자원화할 것인가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방문한 도시가 몇군데이고 MOU 체결 건수는 몇 건이라는 수치상의 성과만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방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고 더불어 아시아문화포럼,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 등 타 국제교류사업과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올려야 한다. 광주를 방문하고 싶어하는 MOU체결 도시 문화예술인들과 어떤 식으로 교류를 이어갈 것인가도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다. ‘우리가 중심이다’며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도시와 진심으로 친구가 되어 나누고 채워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 향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광주가 아시아의 문화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의 문화도시로 웅비하는 꿈을 진정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현실화시켜야 한다.

홍보교류팀 강현미

8-2 해외 레지던스&페스티벌 진출 및 교류 지원

낮선 곳에서 작가의 감수성을 키우다

낮선 곳, 감수성 충만! 잠재력 폭발! 광주의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해외 도시들의 레지던스 및 국제적 공연예술 축제에 진출시킴으로써 지역 예술인(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위상을 전파



사업명	해외레지던스&페스티벌 진출 및 교류지원
사업내용	해외 레지던스 및 페스티벌 등으로부터 초청받은 지역예술인들의 참가지원을 통해 예술가 개인과 지역예술계 역량 도모
사업기간	2011. 8 ~ 2012. 2
예산	40,000천원
대상	내실있는 작품 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는 예술인과 단체로 활동 장르 제한 없음
추진방식	- 공모 통해 작가 2인과 예술단체 2팀 선정 - 선정된 예술인과 단체 대상 사업설명회 - 해외 활동 진행 및 귀국 보고회

01 개요

지역작가들이 활동하면서 부딪히는 문제점(지역성, 경제성, 다양성)을 인지하고, 개인차원에서 접근하기 힘든 해외 창작거점 개발을 통해 예술가들에게 예술창작환경을 제공한다. 작가들은 레지던스 및 공연예술축제 진출을 통해 그들의 내재되어 있는 충만한 감수성과 잠재력을 표출함으로써 지역 작가로서 자긍심을 갖고, 창작역량을 강화시킨다.

02 추진내용

· 낮선 곳에서 작가들의 창의력으로 광주를 알리다

지역작가들이 그들의 예술성을 해외에서 발산하고 보여줌으로써 자긍심을 갖게 하고, 다른 나라 작가와 교류함으로써 작품 활동에 창의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마련하였다. 공모를 통해 지역작가 혹은 예술단체를 모집했고 해외 주최사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작가 위주로 뽑았다. 2번의 심사(사업계획서 서류심사, 예산집행계획서가 포함된 서류심사)를 통해 작가 2인과 예술단체 2팀을 선정하였다. 작가 2인으로는 이설제(사진작가)가 일본 아트 커뮤니티케이션 웅아이 창작 작가 지원사업에 참가하였고, 김광철(퍼포먼스 작가)은 뉴욕 브루클린 퍼포먼스 아트페스티벌,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마이애미 바젤 아트페어”에 참가하여 독창성 있는 퍼포먼스로 해외인사들을 매료시켰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팀은 달빛오디세이(판소리, 성악 등)로 일본 교토 노인 고향의 집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공연에 참가하여 일본 어르신에게 한국의 고유의 맛을 전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트 스페이스 미테-우그로(전시 및 밴드공연)는 방콕 아트센터 갤러리 아토리에 방문하여 '2th AYAF(Bangkok-Asia Young Artist Festival)'를 통해 태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했다. 또한 우그로의 특색 있는 밴드공연(머지?MUZI?)을 통해 광주 지역 신진 작가들의 아시아 진출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 해외리포트(잠재력 · 독창성 · 창의성을 선보인 작가에게서 듣는 뒷이야기)

이설제(사진작가)는 2011. 11. 15 ~ 2012. 1. 25까지 해외 레지던스(일본 야치요시 아트 웅아 이 커뮤니케이션)로 일본 도쿄 및 야치요시를 방문하여 그의 사진작품을 전시하였다. 이 전시를 통해 일본 츠바키 갤러리 소속 해외 국제 교류전 아트페어 참여와 2012년 6월에 열리는 제1회 부산 국제 아트페어 츠바키 소속작가 참여를 확정지었다. 그의 작품 성향은 다소 담백하면서 모던한 작업으로 일본인의 관심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설제는 이번 기회를 통해 일본 아티스트와의 교류 및 전시를 하면서 다양한 문화적 교류와 교감을 하였다고 참가후기를 남겼다.

달빛오디세이(음악, 공연 분야)는 2011. 12. 17 ~ 12.31까지 일본 교토 양호 노인 홈 · 고향의 집에서 열린 크리스마스 콘서트에 초청되었다. 일본의 사회복지법인 '마음의 가족'이 운영하는 '특별양호노인 홈' 및 일본 교토 소재 양로요양시설인 '고향의 집'에 거주하는 재일동포와 일본인고령자 160여명과 시설직원 150여명, 인근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10여명 등에게 그들의 공연(시낭송, 성악, sand animation, 판소리, 한국전통무용 등)을 선보였다. 달빛오디세이가 준비한 특별한 공연을 보여주고, 들려줌으로써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어르신들에게는 향수를 전해주고 일본인 어르신들에게는 한국의 문화 · 음악을 소개해주었다.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전시, 공연 분야)는 2011. 12. 15 ~ 2012. 1. 10까지 방콕 아시아 영아트 페스티벌에 참가하였다. Luggage라는 제목으로 한국작가 12인과 태국작가 4인이 참여해 방콕-광주 교류전시를 진행하였고, "Thai&Korean Experimental Sound and performance Afternoon"의 실험적인 작업을 하는 태국 작가들과 교류했다. 아트스페이스 미테-우그로는 미술전시 행사에서 확장된 개념으로 사운드 페스티벌을 동시에 개최하고 예술의 소통영역을 다양한 방법론으로 실험하는 작가들 간의 공동모색의 기회로 삼았다.

〈참여작가〉

이설제(사진작가), 달빛오디세이 총11인(김현옥, 노윤준, 유형민, 김대수, 주 흥, 서울이, 김성철, 유시영, 윤진철, 이정숙, 무영스님), 아트 스페이스 미테 우그로 총14인(조승기, 김탁현, 이승일, 박성배, 설 박, 김강석, 김현돈, 김세진, 김선영, 김예지, 타시카, 박유영, 김현우, 로이스 영), 김광철(퍼포먼스 작가)



03 향후과제

본 사업을 통해 지역작가들의 역량제고에 일조를 했음은 분명하다. 해외에 진출함으로써 자금심을 높이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널리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러나 참여작가들은 익숙하지 않은 서류작성 · 절차에 사업의 초기단계에서 마무리 시점에 이르기까지 긴장감을 가졌다.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고 해외에 파견되기에 앞서 준비부터 정산작업에 이르는 전과정에 대해 보다 철저한 오리엔테이션이 필요하다.

레지던스 사업의 경우 주최 측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작가를 우선 선정했다. 해외 특정 레지던스 운영 기관과 협력관계를 통해 안정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관광팀 박수 현



8-3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사업

예술, 지역의 경계를 뛰어넘다



광주에 모인 아시아 작가들 아시아 각국에서 초청된 작가 5명(일본 2명, 태국 3명)과 한국 작가 6명이 한 달 동안 광주에서 함께 작업하며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문화 교류 사업을 수행

사업명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사업
사업내용	해외 작가와 국내 작가가 함께 광주에서 레지던시를 통해 공동창작 및 전시, 문화 답사, 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며 네트워크 형성
사업기간	2011. 8. 5. ~ 2011. 9. 5
예산	36,000천원
대상	작가 11명 (일본 2명, 태국 3명, 한국 6명)
추진방식	- 외국작가 5명과 한국 작가 6명이 한 달 동안 작업:작품 활동은 물론 푸드파티와 오픈스튜디오페스티벌 등 다양한 활동 - 기간 중 문화답사, 전시회 관람 등 해외작가의 광주 알기 프로그램 진행

01 개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의 문화적 위상을 해외 예술인들에게 알리고 국내외 작가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한 국제교류사업 중 하나. 동시대의 아시아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아시아예술인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게 이 사업의 취지다.

02 추진내용

· 한 달 간의 레지던스

총 30일의 레지던스, 각기 다른 국적을 가진 참여 작가 11명, '팝아트로 보는 아시아문화의 동시대성'이라는 주제 아래 모인 만화 · 드로잉팀, 공연팀, 라디오 방송팀, 요리팀, 영상팀의 다양한 구성.

오색 조각으로 만든 모자이크처럼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진 작가들은 광주에 함께 모여 작업하고, 전시를 준비하고, 답사를 가고, 워크숍을 열어 아름다운 조화를 만들어냈다.

8월 5일 외국 작가 5명이 광주에 도착한 것으로 레지던스가 시작되었다. 8일, 9일 이틀 동안 남도문화답사를 떠나 강진, 해남 일대의 윤두서 미술관, 미항사 등을 관광하며 남도 문화예술의 주요 장소를 소개했다. 특히 숙소인 설아다원에서 첫 공동 오리엔테이션을 겸하여 연 멀티컬티파티(Multikultiparty)는 참여 예술가들 간의 다양한 문화교류를 파티라는 형식으로 승화시켰다. 복합적이고 다원적인 문화를 의미하는 독일어인 '멀티컬티'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파티였다.

두 차례의 워크숍(8.13, 8.20)을 열어 작업 상황을 점검하며, 동시에 팀별행사도 진행되었다. 요리팀, 라디오팀, 공연팀이 예술의 거리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은 시민들과 함께하며 예술의 거리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요리팀은 푸드파티(8.20, 8.27, 9.3)를 열었고, 라디오팀은 거리에서 기습적으로 국민체조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공연팀이 거리에서 펼쳐 보인 즉흥퍼포먼스는 지나가던 시민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경이 되었다.

작업하는 틈틈이 작가들은 광주시립미술관, 신세계갤러리,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등 광주지역에서 펼쳐진 여러 전시를 관람했다. 이는 작가들에게 예술적 자극을 주었다는 평을 받았으며 또한 광주의 문화적 이미지와 환경을 해외에 홍보하는 기회도 만들었다.

레지던스 마지막 주에 개최된 오픈스튜디오페스티벌은 국제교류와 협업의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였다. 9월 3일부터 9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예술공방 가야미에서 작업 자료사진, 드로잉, 영상 등 작품의 과정과 성과를 전시했다. 3일 오후 5시에 열린 오프닝 행사는 공연팀의 오픈퍼포먼스와 요리팀의 다문화푸드파티로 구성되어 시민들의 호응을 얻었다. 8월 한 달 동안 광주의 여름 햇볕만큼이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진행된 레지던스는 9월 5일 외국 작가 5명이 출국하며 막을 내렸다.

· 작품컨셉 : 팝아트로 보는 아시아 문화의 동시대성

아시아의 복합적인 문화 상황들이 교류를 통해 조망되고 공유되는 계기가 마련된다면, 한류의 열풍이 부는 시점과 맞물려 상당히 가치 있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대중예술과 고급예술, 상업성과 순수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팝아트적인 예술활동’을 매개로 아시아의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가늠해 보는 일은 흥미롭다.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통해 아시아 팝아티스트들의 국제적인 교류와 협업을 행하고 작품을 발표의 장을 마련한 것은 아시아의 창조적인 문화 비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됐음에 틀림없다.

- 프리야찬옥+김광철=퍼포먼스 (Preeyachanok+Gwang-cheol Kim=Performance)

프리야찬옥과 김광철은 수차례의 ‘즉흥 퍼포먼스’를 통해 각자의 이야기를 대중들과 공유하는 실험을 하였다. 예술의 거리에서 두 작가가 펼친 즉흥 퍼포먼스들은 일상적 공간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발산했다.

- 완팬+권승찬=만화&드로잉 (Wanpen+Seung-chan Kwon=Cartoon& Drawing)

완팬과 권승찬은 만화와 드로잉을 통해 한국과 태국의 문화적 차이를 결합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완팬은 레지던스 공간 내부에 태국의 전통적인 회화와 한국의 만화캐릭터들을 혼합시킨 벽화를 그렸다. 그리고 권승찬은 ‘아’라는 음을 한국어와 태국어로 각각 쓰고 이를 센서가 달린 형광등으로 설치하였다.

- 아야카+양용=요리 (Ayaka+Yong Yang=Cooking)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에 아야카와 양용은 푸드파티를 열었다. 그들이 내세운 주제는 ‘쌈’이었다. 여러가지 문화를 하나로 혼합시킨다는 의미에서 깻잎, 김 등을 이용한 여러나라의 다양한 ‘쌈’ 요리를 선보였다. 한편으로 아야카는 음식과 관련된 이미지 중 닭을 소재로 삼아 다채로운 드로잉을 선보였다.

- 박지연&정광식+미와=라디오 (Ji-yeon Park & Kwang-sik Jung+Kyoko=Radio broadcast)

라디오를 매개체로 삼아 박지연, 정광식은 니나노 방송을 진행했으며 교코 미와는 국민체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특히 교코 미와는 불규칙적인 시각에 라디오 방송을 통해 국민체조 음악을 내보내고 예술의 거리에서 대중들과 함께 체조를 하였다. 일본인과 한국인이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지난날의 문화적인 기억을 되살리며 매체와 대중에 대한 관계를 낯설게 바라보게 만들었다.

- 시나+백종록=영상 (Sina+Jong-roek Baek=Video)

시나는 어두운 공간에서 오브제와 영상들을 이용하여 빛과 소리 그리고 색깔의 움직임을 표현하였다. 특히 2차원과 3차원이 시각적으로 다양하게 변화되는 느낌을 참신하게 보여주었다. 백종록은 레지던스 참여 작가들의 일상과 작업과정들을 잔잔하게 담은 다큐멘타리를 제작하였다.



03 향후과제

한달 간의 레지던스는 다양한 장르와 국적의 작가들이 교류·협업하며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다른 레지던스와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나아가 해외작가는 물론 국내 다른 지역 작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 또한 해외 레지던스 공간과의 협약을 통해 작가·공간 등을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홍보교류팀 김보람



8-4 북해도문화재단 연극교류공연사업

광주 관객, 젊은 삿포로 연극을 만나다

날카로운 위조자의 추억 일본 북해도문화재단과 문화예술 지원 및 축제 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 삿포로 극단 '천년왕국'의 연극 '위조자'를 광주평화연극제에서 상연하고 일본방문단을 대상으로 광주지역 및 남도문화투어를 실시해 양국간 문화이해 및 향후 교류확대의 기반을 다짐

사업명	북해도문화재단 연극교류공연사업
사업내용	광주문화재단-북해도문화재단 간 문화교류협력협정을 체결하고 삿포로 극단 '천년왕국'을 초청해 광주평화연극제 공연 참가 지원
사업기간	2011. 4 ~ 2011. 5
예산	12,650천원
대상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및 광주·전남지역 문화예술공간
추진방식	- 일본 사전답사단 방문 및 교류협력 업무 협의 - 북해도문화재단과 문화교류협정협약 체결 및 극단 '천년왕국' 광주평화연극제 초청공연(5.14~15, 2회 공연) - 일본 방문단 광주전남지역 문화투어



01 개요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008년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일본 북해도문화재단이 체결한 MOU를 발전적으로 승계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으로 매년 삿포로 극단과 광주 극단이 교대로 상대 지역을 방문해 연극공연을 갖기로 합의했다. 그에 따라 2011년 삿포로 극단 '천년왕국'이 5월 14~15일 광주평화연극제 무대에서 초청공연을 가졌다. 이와 함께 일본 방문단의 광주·전남지역 문화투어를 실시해 양국간 문화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기회를 가졌다.

02 추진내용

· 4월 북해도 사전답사단 방문

2011년 4월 20일, 광주문화재단과 북해도문화재단과의 문화교류협정 및 극단 '천년왕국'의 광주공연을 위한 사전답사단이 방문했다. 사호 수에오 북해도문화재단 사무국장과 천년왕국 하시구치 유키에 대표, 오자키 카나메 무대감독 등 방문단 4명은 이전 이메일 교환을 통해 조정해 왔던 MOU협정문의 문구를 수정·확인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하시구치 대표와 오자키 무대감독은 극단이 공연하게 될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을 방문해 무대와 조명장치 등을 확인했다. 이들은 '위조자' 공연에서 그들이 준비한 100%를 보여줄 수 있는 역동적인 무대를 위해 무대세트와 조명을 일본에서 직접 가져오기로 결정했다.

· 양 재단 간 문화교류협정 체결

2011년 5월 13일 이소다 겐이치 북해도문화재단 이사장, 후지무라 토모코 이사, 이치카와 히로야스 매니저와 노성대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최영화 광주연극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문화재단과 북해도문화재단 간 문화예술지원 및 축제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 구체적인 교류사업의 내용은 ▲양 지역의 문화예술 교류 활동 지원 ▲문화예술 정보 교환 ▲축제와 관광에 관한 협력 ▲양 재단의 직원 및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의 상호 교류 방문 등이다.

· 극단 천년왕국, 관객들 사로잡다

1999년 작가이자 연출가인 하시구치 유키에 대표를 중심으로 창립된 삿포로 극단 ‘천년왕국’은 화려하고 엔터테인먼트성이 강한 작품부터 역사나 신화를 소재로 한 예술성 있는 작품까지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여온 극단이다.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력, 배우들의 열연, 화려한 무대 세트와 개성 강한 음악으로 공연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특히 이번 평화연극제에서 선보인 ‘위조자’는 2009년 삿포로 무대예술상 연극대상을 받은 작품. 하시구치 유키에 대표와 배우 진, 기술진 등 공연팀 16명이 광주를 찾았다.

‘위조자’는 서양문물이 급격히 밀려드는 메이지 유신을 시대 배경으로 전통서화 유파를 지키려는 형과 천재적 감각으로 위작을 그리는 동생의 갈등을 그린 작품이다. 젊고 매력적인 배우들의 열정적인 연기, 톡톡 튀는 대사와 박진감 넘치는 전개, 역동적인 무대와 화려한 조명기술이 객석을 채운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북해도 연극의 성공적인 광주 입성을 알렸다.

· 역사·전통체험 광주·전남 문화답사

이소다 겐이치 북해도문화재단 이사장 등 방문단 일행은 MOU체결 후 예술의 거리, 대인예술시장, 5·18묘역, 담양 명옥헌 등 광주·전남지역 문화답사에 나섰다. 특히 이소다 이사장은 5·18민중항쟁에 큰 관심을 나타내며 광주가 문화로 승화될 수 있는 훌륭한 가치를 지닌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 깊은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5월 16일에는 ‘천년왕국’ 공연팀을 포함한 모든 방문단이 남도투어에 나서 나주천연염색관에서 전통 쪽빛 염색체험을 하며 한국전통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03 향후과제

북해도문화재단 연극교류공연사업은 2011년 양 재단 간의 MOU체결과 극단 초청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또한 그 성과로 지난해 8월 개최된 ‘2011아시아문화포럼’에 삿포로 지역의 세계적인 음악교육축제인 PMF(태평양음악제)의 실무자 다케츠 요시오를 발제자로 초청하기도 했다. 2012년도에는 광주지역 극단이 10월 삿포로 연극축제에 초청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연극교류공연에 한정된 사업범위를 북해도문화재단과의 보다 포괄적인 자매결연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북해도의 축제, 음악, 미술, 문학 등 다양한 분야와의 교류로 발전시켜 광주 문화예술계의 해외진출 및 선진 문화예술을 경험할 기회로 확대되어야 한다.

홍보교류팀 강현미



8-5 이탈리아 모자이크스쿨 워크숍 및 전시 사업

“서양 예술 기법과 동양미의 만남”

지역 예술인 11명과 ‘단청문양’ 제작 워크숍 및 공동작업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스쿨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국내 최초 유럽전통 모자이크 제작기법을 일대일 교육함. 광주에 술인은 그 배움을 토대로 작품을 제작-완성 가로등 부착을 함으로써 창의적 작품 활동영역을 확장함

사업명	이탈리아 모자이크스쿨 워크숍 및 전시사업
사업내용	유서 깊은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스쿨 관계자를 강사로 초청해 지역예술인 대상으로 워크숍 진행, 모자이크 기술을 전수
사업기간	2011. 5. 27 ~ 2011. 8. 31
예산	42,000천원(국비 30,000천원, 자부담 12,000천원)
대상	워크숍 참여자 및 광주·전남 지역의 미술 각 분야 전공자 11인
추진방식	○ 모자이크 워크숍 및 전시회(2011. 7. 1 ~ 10) -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스쿨 강사 초빙 워크숍 진행 ○ 모자이크 작품 제작(2011 .7. 1 ~ 8. 31) - 단청 문양 모자이크 제작 후 빛고을시민문화관 정문 계단 부착 (제작 개수 : 가로20cm×세로 60cm×18개) - 기둥 6개 삼각기둥 형태 18면 부착

01 개요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이탈리아 모자이크 스쿨 출신 강사를 초청하여 광주의 젊은 예술인들에게 모자이크 제작기술을 전수하고, 모자이크 작품을 완성·전시함으로써 광주 시민에게 세계적 수준의 모자이크 제작 기법 및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했다. 광주의 예술인들은 작품 표현기법의 확대로 창의적 작품 활동영역을 확장시키며, 공공미술 분야로 접목시킨다.



광주문화재단 백서
03 문화예술진흥 지원

02 추진내용

· 모자이크로 다시 태어난 동양의 전통문양

모자이크는 기본적으로 타일 등을 조각조각 나누어 ‘짜맞추기’ 기법으로 완성하는 작품을 일컫는다. 타일을 하나하나 조각내기 위해서는 강인함도 필요하지만 그 나뉜 조각들을 맞추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굉장한 섬세함이 필요한 작업이다. 이번 사업의 작품 컨셉은 한국의 전통문양을 서양의 모자이크 기법을 통해 새로운 느낌의 작품으로 완성 하는 것이었다. 지역 작가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타일을 망치로 쪼개고, 그 조각을 핀셋을 이용해 하나하나 옮겨 붙여 작품을 완성해 나가면서 섬세함과 정교함, 그리고 인내력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에서 온 차화선과 라우라 카라레 작가로부터 모자이크의 유래와 작품의 탄생과정을 학습한 후 작업에 들어가 혼신의 힘을 기울여 18개의 작품을 완성시켰다.

· 촘촘한 작품 사이로 새어 나오는 실낱같은 빛

완성된 작품은 빛고을시민문화관 계단의 기둥에 붙여졌다. 작품 제작 과정에서 뿐 아니라 설치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발생했다. 글루건을 이용해 가로등 3면에 모자이크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가로등의 위치, 가로등과 모자이크 작품 간의 접착성, 습한 날씨 등이 어려움을 초래했다. 가로등 3개면-기둥 6개에 작품을 붙인 다음 그 주위에 테이프를 감아 작품이 가로등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다려야 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서야 테이프를 제거하고 가로등의 조명을 밝혔다. 모자이크 작품의 촘촘한 틈 사이로 쏟아져 나온 가로등 불빛이 정말 아름다웠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을 찾는 시민들은 아름다운 빛이 쏟아지는 계단을 밟고 공연을 관람하게 된다.

〈참여작가〉

황인옥, 신성수, 이기원, 김 원, 유영선, 조사라, 안경미, 최신의, 박환성, 박은선, 박유복

03 향후과제

본 사업은 모자이크 제작기술을 전수받고 국제적 수준의 전시물을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획되었다. 아쉬운 점은 시민들은 단지 완성된 작품을 감상하는 역할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시민이 참여하는 체험형 워크숍을 마련하여 일반 시민들도 모자이크 제작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면 더 흥미로웠을 것 같다. 또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라는 유서 깊은 장인기술을 전수받을 수 있었던 것은 나름 의미 있는 일이다.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자이크 작가와 연계하여 서로의 기술과 기법을 공유 및 논의하는 과정도 의미가 있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든다.

문화관광팀 박수현



09 전시 및 공연

- 9-1 아트광주2011
- 9-2 미디어아트특화갤러리 운영
- 9-3 문화나무 창작공간 미디어프린터
- 9-4 목요상설무대 운영

9-1 아트광주11

새로운 개념의 아트페어로 공공성을 겨냥하다

상업적 기능과 공공성의 분동(分銅) 9월 1~4일까지 김대중 센터에서 열린「아트광주11」은 국내화랑 42개, 국외 19개, 뮤지엄 12개 총 73개 갤러리가 참여하여 국내외 우수 갤러리 유치를 통해 국제규모의 미술시장을 형성하고 동시에 지역예술의 국제적 역할 확장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음.



사업명	아트광주11 (2011광주국제아트페어)
사업내용	국내외 갤러리 및 대안 공간 등을 유치하여 아트마켓 운영
사업기간	2011. 1. ~ 2011. 12
예산	615,600천원
대상	국내외 갤러리, 콜렉터, 전국대상 관람객
추진방식	- 커미셔너제를 운용하여 지역별, 분야별 우수 갤러리 유치 - 행사 구성의 차별성, 공공성을 위해 특별전 및 토크프로그램 구성

01 개요

광주국제아트페어는 아트페어의 상업적인 기능과 전시문화의 공공성을 동시에 구현하여 아시아 미술시장을 대표하는 페어로 성장하고 지역미술시장의 새로운 문화 현장을 제공함으로써 국제적 아트페어의 문화교류적 기능을 통해 창조도시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세계 미술계의 주요 콜렉터, 디렉터, 큐레이터, 작가, 딜러들과의 교류 및 협력, 거래, 훈련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내 관련분야의 국제적 역량 강화하고 지속적인 개최를 통해 잠재 고객 개발, 콜렉터 양성, 딜러 다변화, 미술품 중개시스템 다양화를 통해 미술 시장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였다.

02 추진내용

· 9개국 73개 갤러리 참여

「아트광주11」은 유럽과 미주, 아시아, 한국 등 모두 9개국에서 참여하였으며, 기본적으로 아트페어의 근간을 이루는 상업 갤러리들의 개별 부스가 주를 이뤘다. 참여 갤러리의 다변화를 위하여 대안공간, 프로젝트 갤러리 등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확대를 위한 뮤지엄 아울렛, 더블데모크라시, 아트엔 컴퍼니 등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국내외 미술시장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아트마켓의 구조, 최근 흐름과 동향에 대한 강의와 토론을 실시했다.

· 뮤지엄 아웃렛 (Museum Outlet)

광주문화재단이 지원하는 아트페어라는 점에서 부터 기존 상업 화랑들이 자생적으로 구축한 아트페어와는 다르며, 따라서 「아트광주11」는 시장성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역량 있는 새로운 작가와 작품을 발굴하는 플랫폼 역할로서의 의지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의지적 개념에서 출발한 〈뮤지움 아웃렛〉 섹션은 지난 15년간 한국 현대 미술계를 이끈 ‘광주비엔날레’를 통한 ‘예술 도시 광주’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 동안 아트페어에서는 볼 수 없던 비영리 대안 공간 및 미술관들을 이례적으로 초청하여 특별 전시와 소장 에디션 을 소개했다. ‘좋은 작품을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반영된 〈뮤지움 아웃렛〉에는, 한국의 〈아트스페이스풀〉, 〈대안공간루프〉 그리고 스페인의 〈아르티움 미술관Artium Museum〉등 국내외 공공 미술관 및 비영리 미술 기관 13곳이 참여했다.

· 더블 데모크라시 (Double Democracy Project)

미술의 공공성과 상업성이 공존하는 문화적 민주화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더블 데모크라시〉는 광주가 문화적 민주화를 실현하는 실험적이고 도전적이며 진취적 도시로서의 시작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본 전시에는 한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 작가들의 작품, 광주 출신이며 나아가 국제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미디어, 회화, 퍼포먼스 작가들이 한 곳에 어우러지며 호흡하였다. 배병우, 조덕현, 신미경, 데뷔한, 정연두, 홍성철, 이이남, 황영성, 우재길 등의 한국 작가 및 특별 초청 갤러리 프로젝트로 구성되어 있다. 특별 갤러리 프로젝트로, 영국 화이트 큐브White Cube의 샘 테일러우드Sam Taylor Wood는 ‘Sigh’라는 8채널 비디오 컨서트 설치로 장대한 오케스트라 마임을 선보이며, 남아공 굿맨 갤러리Goodman Gallery의 윌리엄 켄트리지William Kentridge의 최신작 ‘Other Faces’, 중국 비타민 크리에이티브 스페이스Vitamin Creative Space의 차오 페이Cao Fei의 ‘Shadow Life’등 1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 아트 앤 컴퍼니 (Art & Company)

「아트광주11」에는 두 개의 기업, 크라운해태와 MCM이 참여했다. 「아트광주11」는 앞으로 현대 미술과의 진취적인 협업을 통한 창조적인 기업 브랜딩을 추구하며 21세기 문화적 산업 사회를 선도하는 기업들을 소개하는 장터를 추구할 예정이다. 21세기 산업을 인도하는 디자인 혁명과 신개념의 창조적 기업운영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대 미술과의 협업들이 소개되고, 그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장터가 되도록 하였다.

03 향후과제

국내외 우수 73개 갤러리가 참가하여 지역 미술시장 활성화와 공공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지만 몇 가지 개선과제를 남겼다. 아트페어의 상업적 특성상 시장 확대를 위한 콜렉터 유치가 절대적이다. 타도시나 해외의 콜렉터유치 뿐만 아니라 신규콜렉터와 잠재 콜렉터의 개발을 위한 접촉기회와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람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전시행사보다는 문화적 유희와 문화소비의 즐거움을 경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하다. 또,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과 기관의 후원이 성숙단계에 도달할 때 까지 제공되어 순수 후원과 작품 구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페어를 수행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조직의 구축 역시 당면한 과제이다. 국제행사를 갤러리를 섭외하고 선정 하는데는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고, 특히 광주국제아트페어 사무국의 취약점인 마케팅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향후과제 남겼다.

아트광주사무국

9-2 미디어아트 특화 갤러리 운영

광주의 미디어아트란 무엇이나?

미디어아트 전문 갤러리 미디어큐브338오픈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에 미디어아트 전문갤러리를 표방한 미디어큐브338전시장을 새롭게 오픈함에 따라 '광주 미디어아트Now' 전시를 시작으로 광주 지역미디어아트 분야 네트워크 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광주지역 중진과 신진작가의 연합전 등 광주의 미디어 미술문화의 비전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전시 및 행사를 추진



사업명	미디어아트 특화 갤러리 미디어큐브338 설치 및 운영
사업기간	2011. 11 ~ 2011. 12
내용	- 기획전 〈최옥수의 호남예술가 사진전〉=11.17~11.26 - 〈광주 미디어아트 NOW〉전=12.8~12.18 - 미디어라이트쇼 〈미디어프런티어 멘토링〉전=12.29~2012.1.19
장소	미디어큐브338(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예산	17,000천원

01 개요

미디어아트가 대세 미디어아트가 대세다. 광주가 빛고을이기 때문이다. LED를 포함한 광산업은 광주의 주력산업이 되었고, 광주시는 한 발 더 나아가 미디어시티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창조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하려고 준비 중이다. 광주문화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시민문화관 내에 미디어아트 특화 갤러리인 '미디어큐브 338'을 설치하고, 미디어아티스트들을 초청해 '문화나무 창작공간 미디어 프런티어'란 이름으로 아티스트레지던스를 시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업이 모두 유네스코 창의도시 가입만을 목표로 한 것은 아니다. 국내 미디어아트 분야에서 이이남, 손봉채, 진시영 등 지역출신 작가들이 세계적 미디어아티스트로 발돋움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고, 광주지역 전략산업 중 하나인 광산업이 미디어아트 분야의 발전을 위한 촉매제로 상호작용을 하고있다. 미디어아트 특화 공간인 '미디어큐브 338'을 통해 광주지역작가들이 더욱 전국화와 세계화가 되기를 도모하고 아울러 광주가 미디어아트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의지를 담고 있다.

02 추진내용

· 기획전시-〈최옥수의 호남 예술가 사진전〉

미디어큐브338을 개관하고 첫 번째 전시로 광주의 대표적인 인물사진 작가인 최옥수의 작품을 모은 '최옥수의 호남 예술가 사진전'을 개최하였다.

시인 범대순 송수권, 국악인 송순섭, 서양화가 조규일 김영태 오승우 오승윤, 무용인 박금자 엄영자, 조각가 박양선, 한국화가 조방원 김형수, 무용인 이매방, 구례향제 줄풍류 김무규, 소설가 송기숙, 문순태...

광주·전남이 낳은 20~21세기 현대 예술사의 거목들을 앵글에 담은 소중한 사진들을 만날 수 있는 전시였다.

사진작가 최옥수 씨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광주·전남 지역 예술인들의 인물 사진을 앵글에 담아 온 국내 최고의 사진작가다. 작가 최옥수씨가 광주문화재단 출범을 기념해 80년대 월간 '금호문화' 시절부터 만났던 인물을 담은 사진 120여 점을 광주문화재단에 기증하기로 했고, 광주문화재단은 이를 기념하여 전시를 마련한 것.

그의 앵글에 담긴 예술인은 차범석 오승윤 최종섭 양인옥 조기정 선생 등 작고 예술인을 비롯해 오승우, 조방원, 송기숙, 조정래, 김영태, 범대순 선생 등 현직 원로 예술인, 국민 여동생으로 불린 광주 출신 연예계 스타 문근영 씨 등 120여 명이 망라돼 있다.

전시는 광주문화재단이 지역의 예술인들과 함께 호흡하고 지역 문화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는 데서 큰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 광주미디어아트Now-미디어아트를 펼치는 10인의 시각전

현대미술에서 미디어아트는 더 이상 하나의 장르가 아닌 현대미술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미디어아트 분야 특화 공간 개관전인 '광주미디어아트Now-미디어아트를 펼치는 10인의 시각전'은 광주지역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펼치는 광주미디어아트 중견 작가 10인의 작업을 보여주는 전시였다.

'광주미디어아트Now' 즉 지금 이 시대라는 말은 현재적 상황의 시간성과 사회 문화적 현상들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10인의 시각은 지금 이 시대의 사회문화적 현상들을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 시각화 한 결과물을 전시를 통해 보여 주고자 했다. 참여 작가들의 다양한 전시 작품을 통해 광주미디어아트의 현주소를 살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생각이다.

전시에 참여한 10인은 나명규, 박상화, 방우송, 손봉채, 신도원, 이이남, 정선희, 조용신, 진시영 등. 저마다 회화, 조각 등에서 출발하여 미디어아트의 영역에 도전하여 국내외에서 인정을 받는 작가들이며, 광주비엔날레, 크리스티 경매 등 국제적 규모의 전시에 참여한 이력을 지니고 있는 광주의 대표적인 미디어아티스트들로 꼽힌다.



· 광주미디어아트Now-관계를 열다 워크숍 개최

'광주미디어아트NOW'와 연계하여 전시 연계 워크숍 '광주미디어아트Now-관계를 열다'를 2011년 12월 15일에 미디어큐브338 전시장 내에서 개최했다. 전시 참여 작가인 박상화, 방우송, 신도원, 정선희, 정운학, 조용신, 진시영 등 전시 참여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프리젠테이션하고 윤진섭(호남대 교수), 이지윤(2011아트광주 아트디렉터)이 작품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 평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정성구(광주발전연구원 도시환경 연구실장), 윤익(광주시립미술관 학예실장) 등 이지역 미술관계자 및 관련 기관 전문가들과의 오픈대화를 시도 했다. 작품에 대한 허심탄회한 소통과 교감을 통해 광주미디어아트 분야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발전을 도모 한다는 취지였다.

03 향후과제

‘미디어아트란 무엇일까’ 미디어큐브338을 개관하고 일련의 전시가 진행되면서 광주시민들에게는 미디어아트가 여전히 조금은 낯설고 이해가 어려운 장르임을 확인했다. 개관초기 미디어큐브338이 '광주시민들의 일상과 미디어아트를 잇는 예술정거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공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지만 그간의 전시를 통해서 이에 대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아직 미흡함이 많았다. 미디어큐브338이 일반 상업갤러리가 아닌 광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미디어아트 전문 갤러리인 만큼 기본적으로 일반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시해야 함에도 여전히 미디어아트전문가, 관계자, 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서만 강조된 느낌이 없지 않다. 미디어아트를 위한 소통의 공간이 되었지만 여전히 시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에는 미흡함이 많았다는 의미이다. 앞으로 시민의 소통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미디어아트 기획전 및 상설전, 공모전 등의 추진을 통해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의 미디어아트 전시문화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시민 속의 미디어아트'를 만들어나가는 공간이 되기 위한 더 깊은 고민과 노력이 요구된다.

공연전시팀 이유진

9-3 문화나무창작공간 미디어프런티어 사업 지역미디어아트 작가 육성 위해 레지던스 공간 운영

미디어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미디어아트 작가 육성과 작품전시가 함께 이뤄지는 작품생산과 교육의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진행.



사업명	문화나무창작공간 미디어-프런티어
추진방식	광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레지던스 프로그램을 개발을 위해 기획전시 및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개발 및 시범운영
사업기간	2011. 11 ~ 2012. 1
세부사업	- 문화나무창작공간 미디어프런티어 레지던스 운영 - 기획전시 미디어 라이트쇼-미디어프런티어 멘토링전 - 커뮤니티 프로그램(오픈 스튜디오 운영)
장소	빛고을시민문화관 미디어큐브338 및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예산	30,000천원



01 개요

미디어아트 창작공간? 미디어아트를 특화한 레지던스 사업으로 우리지역의 미디어아트 작가로 주목받고 있는 박상화, 이이남, 정운학, 진시영씨 등 4명과 스토리텔링 분야 김인정, 최은영, 조영임, 장상은, 정재경, 박미현씨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미디어아티스트와 스토리텔링 작가를 한 곳에 작업하게 한 것은 광주가 최초로 시도한 레지던스프로그램으로 지역의 역사와 전통, 이야기를 미디어아트와 연결시켜 콘텐츠화한다는 작업이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미술계로부터는 조금은 이상한 시선을 받기도 했다.

레지던스 사업의 첫 기획전시로는 '미디어프런티어 멘토링전'을 열었다. 이 전시는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이 미디어 작가를 꿈꾸는 제자들의 멘토가 되어 애정과 조언으로 이끌어 낸 결과물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지역 미디어아티스트의 층을 두텁게 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또한 시민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으로는 작가들의 작업공간을 오픈하고 작품을 설명하는 오픈스튜디오 행사를 개최, 시민들이 어린이 손잡고 미디어아티스트들의 작업실을 돌아보는 내내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고, 깊은 관심을 보였다.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진행되었지만 미디어아트 분야의 전문작가들을 육성 지원함과 동시에 이 분야에 관심을 갖는 젊은 작가군을 발굴하는 등 이곳 미디어프런티어 공간을 통해 질적, 양적으로 미디어아트가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02 추진내용

· 미디어프런티어 멘토링전

미디어프런티어 멘토링전의 특별한 점은 레지던스 입주작가들이 미디어작가를 꿈꾸는 제자들의 멘토가 되어 애정과 조언으로 이끌어 낸 결과물을 보여줬다는 점이다.

진시영 작가는 특유의 화려한 빛의 흐름을 담은 'Flow'를, 멘티들은 'Breath time', '소유와 착시', '마법의 구두' 등 총 4점의 작품을 설치했다. 박상화 작가는 'Human'을 주제로 삼아 박지현, 최영준, 노경희 학생들과 환상의 호흡을 자랑 했다. 다이아몬드 몬스터(박지현 작)는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해 있는 현대인들의 욕망을 다이아몬드 조각에 비취 표현했고, 최영준 멘티는 인간이 결국 자연의 하나라는 메시지를 작품을 통해 전달했다. 또 밀러 기법을 활용한 노경희 멘티의 '불꽃놀이'는 축제의 주인공은 '나'라는 이야기를 전하며 감각적으로 의미를 표현했다.

정운학 작가는 'Story of book'을, 멘티 조장현은 'Musicscape', 석금선은 'Run Run'의 작품을 설치했다. 특히 이이남 작가는 작가가 강의를 하는 조선대 서양화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멘티4명과 함께 공동작품 '페인팅 시점 연구'를 선보였다. 참여 멘티였던 성혜림은 "세계가 주목하는 이이남 선생님과 한 공간에서 작업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설 하지만 잘 모르는 새로운 분야라 조금 두렵기도 했다"고 말하기도... 점점 미디어아트의 매력에 빠져드는 멘티들의 반응이 느껴졌다.

media light show

“미디어 프런티어 멘토링展”

미디어 프런티어 멘토링展은 '문화나루 창작공간 미디어 프런티어 레지던스' 프로그램의 활동 보고展이다. 이번 전시는 레지던스기간 동안 Mento멘토와 Mentee멘티가 함께 고민하고 작업한 결과물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장이다. 척박한 환경에서도 묵묵히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온 멘토들이 미디어를 꿈꾸는 멘티들에게 아낌없는 애정과 조언으로 함께 만들어온 작품을 관객 여러분께 선 보이는 자리이다.

2011. 12. 29* _ 2012. 01. 19*

opening 12:29 pm5

빛고을시민문화관 1층 미디어큐브338

참여작가

박상화
노경희, 최영준, 박지현

이이남
김민유, 고마음, 성혜림, 안희주

정운학
조장현, 석금선

진시영
ARTCREW, 김도윤, 정자철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오픈 스튜디오

시민들이 입주작가들의 작업공간을 직접 둘러보며 작가와의 대화를 나누도록 기획된 오픈 스튜디오에는 50여명의 시민 및 관계자들이 모였다. 관람객들은 먼저 미디어큐브338에서 열리고 있는 미디어아트 멘토링전 관람을 통해 참여 작가들로부터 작품 설명을 들은 뒤 레지던스 공간으로 이동, 작가들의 작품진행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시민들 가운데는 특히 어린아이들의 손을 잡고 일일이 작가 작업실을 찾아가 작품을 꼼꼼히 관람하고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작가들에게 작품에 대해 물으면 작가들 역시 세심하게 설명하면서 시민과 미디어아트, 미디어아티스트 사이의 관계가 깊어지는 모습을 연출했다.



03 향후과제

미디어아트는 광주시의 현안 사업 중 하나인 유네스코 창조도시네트워크(미디어시티) 가입의 일환으로서 광주문화재단은 이를 선도하기 위하여 아티스트레지던스 공간과 미디어특화 갤러리(미디어큐브 338)을 개설 운영한 것이다.

빛(LIGHT)의 도시 광주가 광산업과 함께 미디어아트를 내세워 창조도시네트워크에 가입하고자 한 시도는 지극히 자연스러우면서 당연해 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이 미디어아트 전용 레지던스 공간 활용을 통해 유네스코 창조도시 미디어아트시티 가입을 위한 노력을 펼쳐나갈 계획인 만큼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두 개의 공간을 운영하면서 점차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것이다.

2011년 미디어아트레지던스는 3개월의 시범적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작가와 운영주체인 광주문화재단과의 관계, 작가와 시민 등의 접점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운영할 전문성의 부족, 시간의 절대 부족 등은 스스로 반성할 대목으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2012년 사업은 재단 입장에서 광범위한 작가군과의 접촉, 작가와 시민과의 접촉 기회 확대 및 커뮤니티프로그램 운영 등 공공기관 운영 아티스트레지던스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미디어아트 원래적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주변 사업과의 연계, 광주 지역 내의 다양한 문화세력들과의 협업 등에 대해서도 고민하여 지속적 프로그램, 광주만의 특징을 갖는 특화된 레지던스로 성장해 나가야할 것이다.

공연전시팀 이유진

9-4 2011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목요상설무대

목요일마다 문화예술을 즐겨요~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획 특별 초청공연을 매 목요일마다 열어 시민들과 예술가와 소통하는 장 마련

사업명	2011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목요상설무대
사업내용	무료 상설공연을 통해 예술가와 상호 교류하는 문화체험의 장 마련
사업기간	2011. 11. 17 ~ 2011. 12. 22
추진방식	- 6회의 특별초청공연 진행 - 6개 단체 총 60명 출연, 총 543명 관람
장소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
예산	11,800천원

01 개요

문화로 탈바꿈한 빛고을아트스페이스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인 빛고을아트스페이스를 문화공간으로 변화시켜 활성화시키고 시민들에게 새로운 공간을 널리 알리고자 5층 소공연장에서 11월부터 매주 기획 특별초청공연 ‘목요상설무대’를 열었다. 목요상설무대는 매주 목요일 창작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예술 단체 및 개인에게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 및 발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시민누구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시설로, 또한 상설공연을 통해 예술가와 상호 교류하는 장으로서의 새 길을 열게 했다.

02 추진내용

· 다양한 장르의 특별초청무대 6회 공연

광주문화재단은 빛고을시민문화관 별관(舊전남도 체육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복합문화공간인 빛고을아트스페이스를 조성했다. 체육시설이자 근린생활시설로 활용되던 30년 된 붉은 벽돌조 건물이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 것이다. 지하 1층 지상 6층의 빛고을아트스페이스 건물에는 2011년 현재 임방울국악진흥재단, 국악전용 연습실,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 등이 입주해 있었으며, 그 아래로는 4 개의 노인회 사무실과 아트광주 사무국 등이 들어서 있다. 특히 이 건물 5층 대연습실 옆에는 46석 규모의 아담한 소극장이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고 있었다. 이 소극장은 사실 공연자들에게는 다양한 장르를 소화해내기에는 부족한 아담한 공간일 뿐이었다. 광주문화재단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 임방울국악진흥재단, 국악관현악단 등이 입주해 있음에 착안하여 이 공간을 소규모 공연을 위한 전용공연장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목요상설무대'를 실험적으로 가동했다. 12월 한 달 동안 지역 내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소규모 공연단체들을 초청해 무대에 올림으로써 공연장의 존재를 예술애호가들에게 알리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특히 첫 번째 특별 초청무대는 현대와 전통, 춤과 소리, 힙합과 국악의 만남으로 널리 알려진 비보이 팝핀현준과 신세대 소리꾼 명창 박애리 부부가 특별하고 이색적인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와 열기 속에 오픈공연을 마쳤다. 작은 공간의 특성에 맞게 2인이 무대를 채우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판소리와 비보이를 결합한 것이 객석의 반응을 얻은 것이다.

뒤를 이어 앙상블 ARCO,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성악그룹 한소리회,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퓨전국악그룹 아이리아 등 다양한 장르와 레퍼토리의 공연단을 초청하여 따뜻한 문화체험의 장을 만들었다.



· 2011 목요상설무대 프로그램

일시	공연단체	공연명
11월 17일 19:00	팝핀현준과 박애리 부부	'그와 그녀의 이야기'
11월 24일 19:30	Ensemble ARCO	'가을 공감'
12월 01일 19:30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ECSTATIC 콘서트'
12월 08일 19:30	한소리회	'웃음꽃을 뿌리는 겨울 음악회'
12월 15일 19:30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실내악 음악회'
12월 22일 19:30	아이리아	송년콘서트 얼씨구, 메리크리스마스 '겨울연가'



03 향후과제

다양한 장르로 구성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빛고을아트스페이스는 매주 목요일마다 공연을 찾는 시민들로 가득 채워졌다. 아직은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광주문화재단에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겨준 듯하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공연장으로서 갖춰야 할 몇 가지 시설 기준들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관람객이나 공연자 모두에게 아쉬움으로 남았다. 조명, 부족한 객석 수, 높은 무대 등은 공연자를 힘들게 했고, 특히 분장실, 대기실, 무대 후면 통로 등이 구비되지 않아 무대 앞 옆으로 연희자들이 등·퇴장하는 모습은 조금은 안쓰럽고 재단 관계자들을 부끄럽게 한 대목이다.

아울러 보다 더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즐길 수 있도록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창작 발표의 기회를 갖지 못한 신진예술 단체 및 개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을 통한 작품 선정도 고민해야할 대목이다.

공연전시팀 한영주

10
홍보활성화

10-1 문화재단 기획홍보 활성화

10-1 홍보활성화

‘문화나무 키우는 농부’ 광주문화재단을 알리다

출범 첫째, 재단의 인지도를 높여라 재단의 출범 의의와 비전, 사업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공유하는 홍보사업. 홈페이지, 브로슈어, 리플렛, 매거진, 홍보부스 등 매체별 특성에 따른 다양한 홍보방법을 개발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재단의 정체성을 담은 소장가치, 활용가치 있는 다양한 문화기획 홍보물 제작

사업명	C.I 및 운영매뉴얼 제작, 홈페이지 제작운영, 광주문화재단 홍보브로슈어제작, 문화재단 기획홍보활성화, 문화예술행사 리플렛 제작, 문화매거진 ‘문화나무’ 발간
사업내용	광주문화재단이 가진 공식성과 문화성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방법을 찾아 적시적소에 필요한 홍보 활동 운영
사업기간	2011. 1 ~ 2011. 12
예산	157,370천원
대상	광주시민, 문화예술인 및 관련 단체·기관 등
추진방식	- 재단 상징 C.I개발 및 홈페이지 운영 - 홍보 브로슈어·동영상 제작, 외벽 현수막, 언론사 연계홍보 및 홍보부스 운영 등 다양한 매체 활용한 기획 홍보 - 매월 광주지역 문화예술행사 일정 및 내용 수합 ‘문화마실’ 제작 - 제작업체 공개입찰 및 분야별 전문가 편집위 구성해 문화매거진 발간

01 개요

‘**문화의 나무를 키우는 농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첫걸음을 내딛은 광주문화재단의 첫 일성이다. 광주문화재단은 시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예술인이 마음껏 창작하고, 문화로 소통하는 도시 광주를 꿈꾼다. 이를 위해 시민이 행복한 창조문화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민과 함께 ‘빛고을을 행복한 문화의 숲으로’ 가꾸기 위해 출범 첫째, 재단의 인지도를 높이고 재단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것에 홍보의 초점을 두었다. 여타 기관과 차별화된 문화적 기획홍보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했다.



02 추진내용

· 재단 C.I 개발 및 선포

광주문화재단은 2011년 1월, 재단의 영문표기(Gwangju Cultural Foundation) 이니셜 GCF를 소나무 형상으로 재조합한 C.I를 개발해 대내외적으로 선포했다. 소나무는 예로부터 사계절 푸르고, 역경에도 흔들림 없는 푸른 정신의 상징으로서 광주문화재단도 소나무처럼 장기적인 관점과 신선한 정책으로 광주 문화의 나무를 가꾸고 광주를 울창한 문화의 숲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C.I는 보도자료 및 인쇄물, 영상물 등 다양한 내외부 업무 및 홍보에 적용되어 재단의 이미지를 통일하고 인지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 대연론 집중 홍보

2011년 한 해 동안 총 140건의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주요 일간지 및 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에 1,400건 이상 기사화하는 등 성공적인 홍보실적을 달성, 출범 1년 만에 인쇄 및 방송 언론매체의 주요 뉴스원으로 자리매김했다. 개별사업 홍보에 그치지 않고 언론매체와 연계한 지역 문화예술의 저변확대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다. 광주일보와 공동기획한 ‘문화나무 상상강좌’, 광주매일과 공동진행한 ‘스토리텔링 공모’, 광주MBC와 함께한 ‘무등산 사랑 산테마스토리텔링’ 캠페인 등을 통해 문화정책 생산 및 실행기관으로서의 재단 이미지를 자리매김하는 토대가 되었다.

· 자체 홍보매체 개발

일방적인 정보전달식 홍보에서 벗어나 시민과 문화예술인들에게 다가가는 소통의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광주지역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총망라한 월간 리플렛 ‘문화마실’은 11회에 걸쳐 8만3천부를 제작, 주요 문화예술공간 및 관광안내소, 지역주민센터 등 120여 곳에 배포돼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계간 매거진 ‘문화나무’는 지역문화계 이슈와 숨겨진 문화공간, 주요 문화예술프로젝트, 시민공모원고 등 다양한 기획을 반영해 2회, 8천5백부를 제작 배포했다. 특히 지역 문인화가에 게 의뢰한 예술작품을 표지로 활용해 문화매거진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드러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외에도 엽서형 브로슈어, 문화에 관한 좋은 글귀를 발췌한 캘린더, 시민이 직접 그린 그림들을 응용한 수첩 등 차별화된 내용과 형식의 홍보물을 제작했다. 지역작가 한희원의 글과 그림 등 재단 이미지 광고를 담은 대형 현수막을 재단 외벽에 릴레이로 내걸어 재단 건물의 문화적 상징성을 부여하고 시민들에게 도심 속 명상의 여유를 제공했다.

· 전문화 · 세분화된 홍보전략

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맞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해 효과적인 홍보를 수행했다. 재단 홈페이지는 사업공고 및 재단 소식을 발빠르게 게재하고, 지역 문화예술계 정보를 올리는 문화사랑방을 운영, 한달 평균 1만여명이 접속하며 주요 문화예술 정보사이트로 자리매김했다. 이와함께 문화장터와 홍보부스 운영을 통해 시민과 일대일로 만나는 홍보의 장을 마련했다. 지진피해 센다이 시민돕기 문화장터는 문화예술공연 및 재미장터, 문화예술품 판매가 어우러져 특성 있는 기획홍보 실행의 장으로 평가받았다. 2011년 10월 나눔대축제 홍보부스에서는 어린이 · 장애인 등 시민 7백여 명이 나눔에코백 그리기, 문화나무 소원지 달기 등 체험에 참여하는 등 문화나눔사업을 적극 홍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 앉아서 접하는 광주문화예술소식

인터넷 웹진 형태로 광주문화재단이 진행하는 사업과 광주의 문화예술행사 정보를 한눈에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메일링 서비스인 인터넷 웹진을 운영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했다. 웹진의 내용구성은 1. ~말해봐(서로 다른 장르의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한 주제에 대해 나누는 솔직 담백 수다, 광주의 문화환경, 상대 장르에 대한 직격 조언, 재단에 대한 기대 등을 자유롭게 풀어내는 자리), 2. 광주탐험(광주의 숨겨진 문화공간, 명인, 명품 등 문화관광자원 찾기), 3. 상상칼럼(광주의 문화미래나 장르 발전에 대한 외부 전문가 칼럼), 4. 해외리포트(현지 통신원이 전하는 해외 문화예술현장 소식), 5. 맛흥밋(재단 문화사업 서포터나 문화나무 회원 수기, 재단 직원 문화답사 후기 등) 로 구성되어 상황에 따라 내용구성을 조절했다. 특히 ~말해봐 는 서로 다른 장르의 문화예술인들이 같은 주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눈 것을 글로 풀어 독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03 향후과제

설립 초기 조직의 시스템이 자리잡아가는 시점에서 재단의 현안사업 및 재단 홍보에 중점을 둬으로써 대외 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했다. 앞으로는 기존의 홍보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와 더불어 더 행복한 광주’ 이미지와 문화예술정책 중심기관으로서의 이미지를 창출하는 전략적인 접근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홍보영역을 확장시키기 보다는 재단의 ‘팬층’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전문화, 세분화, 집중화, 체계화함으로써 홍보성과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 재단의 중점 프로그램을 기획기사, 언론과의 공동기획 등을 통해 집중 홍보하고, SNS를 활용한 일상적 홍보 등을 통해 광주문화재단이라는 브랜드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홍보교류팀 강현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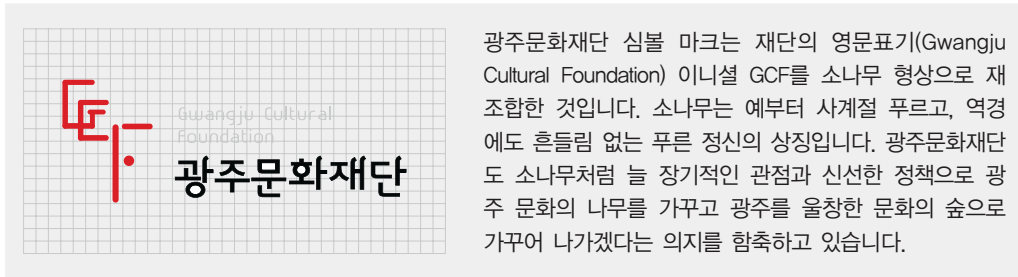


- 기본현황
- 예산현황
- 광주문화재단 이사명단
-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 명단
-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협약체결기관
-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 2011 주요 축제 프로그램 현황
- 문화나무 예술단 현황
- 문화광주 스토리텔링 인터넷 공모사업 수상자 현황
- 2011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탐험대원
- 2011 광주문화재단 사업일지
- 사진으로 보는 광주문화재단 노마드 탐방기

01 기본현황

○ 가. 설립현황

- **설립** 2011. 1. 1.
- **명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GCF (Gwangju Cultural Foundation)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구동12번지)
- **기금목표** 500억 원 (2011년 최초출연 80억)
- **연간운영비** 30억 원
- **임원** 이사 15인, 감사 2인

○ 나. 설립 근거 및 설립 목적

- **설립근거**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문화예술진흥법 4조 및 민법 제32조
- **설립목적** 시민의 창조적 문화활동과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
문화예술진흥 정책을 개발함으로써 문화예술 창조도시 구현

○ 다. 주요사업

- **자체사업** 문화나무 함께꾸기사업, 문화나무 상상강좌 등
- **보조사업**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거점프로그램,
사직공원 공공예술프로젝트, 페스티벌 오! 광주 정울성축제,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문화체육관광부 지정)운영 등
- **위탁사업** 빛고을시민문화관, 전통문화관

○ 라.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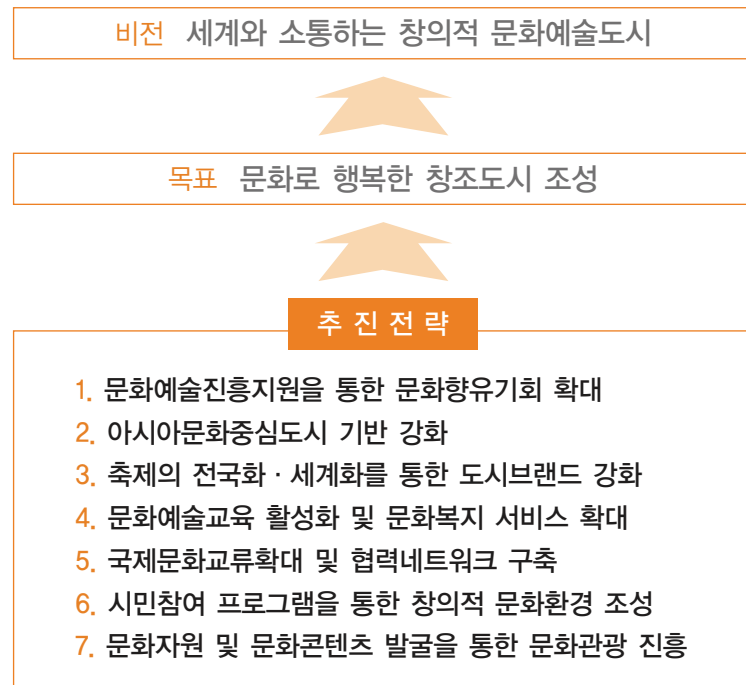
2010

- 7월~12 광주문화재단 설립준비단 활동
- 7월 광주문화재단 설립 TF팀 회의 시작
- 9월14~16 시민공청회 및 시의회 설명회
- 10월 광주문화재단 설립준비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정책간담회
광주문화재단 설립준비단 사무실 설치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및 공연예술재단 해산
- 11월15일 광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공포
광주문화재단 창립 발기인 대회, 노성대 대표이사 선임
- 12월2일 광주문화재단 제1차 이사회 개최
- 17일 광주문화재단 법인설립허가
- 23일 직원 공개채용
- 26일 광주문화재단 비전창출을 위한 워크숍

2011

- 1월 1일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출범
- 7일 광주문화재단 법인등기
- 9일 광주문화재단 CI 확정
- 13일 광주문화재단 출범기념 공연 및 전시

○ 광주문화재단의 비전과 목표



비전 : “세계와 소통하는 창의적 문화예술도시”

- 예향, 민주화의 성지 광주가 문화예술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결집하여 세계와 교류하고 감성과 지혜를 공유하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의 문화예술도시로 웅비한다는 의미

목표 : “문화로 행복한 창조도시 조성”

- 예술가는 마음껏 창작하고, 시민은 누구나 예술가가 되며, 일상에서 공연과 전시 그리고 축제의 즐거움 만끽하는 행복한 문화공동체 조성을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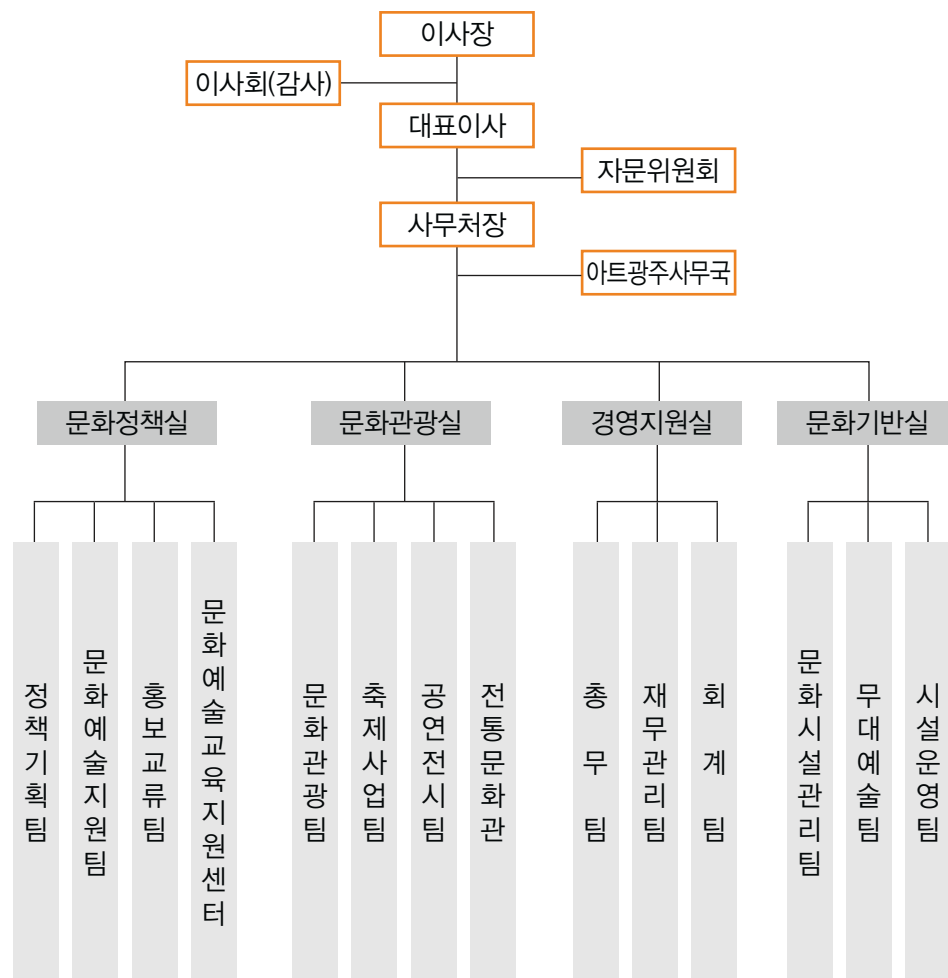
7대 추진전략

- ① 문화예술진흥지원을 통한 문화향유기회 확대
: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시켜 활력 있는 문화도시 조성
- ②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기반강화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사업과 연계된 공공예술프로젝트, 국제포럼, 전당주변 활성화 프로그램, 국제교류 사업 등을 추진
- ③ 축제의 전국화·세계화를 통한 도시브랜드 강화
: 광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의 전국화 세계화를 통해 예향 광주의 도시 브랜드 강화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이미지 제고
- ④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
: 저소득층 등 문화향유 사각지대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 등 문화복지 서비스 강화
- ⑤ 국제문화교류확대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예술인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사업 추진 및 협력네트워크 구축
- ⑥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창의적 문화 환경 조성
: 문화예술 행사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행복한 창조도시 광주의 발전 동력으로 견인하는 대중강좌, 기업메세나, 예술적 재능기부 사업 추진
- ⑦ 문화자원 및 문화콘텐츠 발굴을 통한 문화관광 진흥
: 광주의 명소, 명인, 명품 발굴 등 광주만의 독창적인 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해 문화관광 진흥에 기여

○ 조직 및 인력(2012. 2. 현재)

· 건물조직 : 1차 4실 12팀 1센터 1관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기구표



1. 정원현황 - 2011. 12월말 기준

구분	합계	임명직	일반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5급	6급	7급
합계	58	2	48	1	3	11	13	12	8	8	3	3	2
임명직	대표이사	1	1										
	사무처장	1	1										
일반직	사무처	27	25		2	8	7	5	3	2			2
문화시설	소계	29	23	1	1	3	6	7	5	6	3	3	
	빛고을문화관	21	15	1	1	2	5	5	1	6	3	3	
	전통문화관	8	8			1	1	2	4				

2. 현원현황 - 2011. 12월말 기준

구분	합계	임명직	일반직							기능직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소계	5급	6급	7급
합계	49	2	39	1	3	10	11	10	4	8	3	3	2
임명직	대표이사	1	1										
	사무처장	1	1										
일반직	사무처	27	25		2	8	7	5	3	2			2
문화시설	소계	20	14	1	1	2	4	5	1	6	3	3	
	빛고을문화관	20	14	1	1	2	4	5	1	6	3	3	
	전통문화관	0											

○ 분장사무

부 서 별	분 장 사 무
문화정책실	▪ 재단업무의 종합 기획 및 평가업무 총괄 ▪ 재단운영 방향 기획, 중단기 전략과제 및 사업계획 수립 ▪ 재단 수행 지역문화예술 관련 학술연구·조사사업의 수행 ▪ 재단 업무계획 수립 및 백서 관리 ▪ 광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과제 개발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관련 정책 개발 ▪ 광주 창조도시 조성 관련 정책과제 개발 및 수립 ▪ 광주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개발, 도시이미지 관리, 공간구성 프로젝트 개발·보급 ▪ 광주 지역문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정책개발 ▪ 재단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재단사업 홍보 지원, 재단 간행물 제작 및 발간, CI 관리, 온라인 홍보 지원(소식지, 웹진 발간), 홈페이지 관리 ▪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교류사업, 전시기획 및 운영관리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금사업 ▪ 문화예술 유관 기관 네트워킹 및 협력과제 수행 ▪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업무 ▪ 문화예술육성지원금 등 지역협력형사업 및 문화복지(바우처) 사업 ▪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지원사업 공모 등 총괄 ▪ 시민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기초예술진흥사업의 개발·보급 ▪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기타 업무
문화관광실	▪ 광주 문화관광자원 및 콘텐츠 개발 ▪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및 시행 ▪ 역사문화유산 발굴·보존과 대중화 사업 지원 ▪ 전통문화 보전 전승 및 개발 ▪ 시 문화관광행사(국제공연예술제, 정음성음악제 등)와 지역 축제 기획 및 운영 ▪ 공연예술정책 과제 개발 및 보급 ▪ 문화예술행사 전시기획 및 운영관리 ▪ 아트페어(아트광주)지원 ▪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활성화 및 보존 기여 ▪ 전통문화관을 기반으로 공연·관광·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 광주 문화예술현황 정보화 사업 지원 및 정보 서비스 사업 ▪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기타 업무

부 서 별	분 장 사 무
경영지원실	▪ 이사회 운영 및 감사 관련 업무, 사무실 및 부속실 유지·관리, 대표이사 비서 업무·문서관리 ▪ 주간계획 등 업무보고 관리, 자산·기자재·물품관리 ▪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및 전자문서시스템 관리 ▪ 전문예술법인 지정 신청 및 시의회 등 대외협력 사무관리 ▪ 회계·지출·결산·계약·세무 관리, 급여, 사회보험 ▪ 재단 조직 및 정원 관리, 법제 사무총괄 ▪ 경영평가 및 자체 혁신 관리 ▪ 예산 편성 및 운용 관리, 기금운용계획 수립 ▪ 기부금 및 후원금 관리 ▪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기타 업무
문화기반실	▪ 시민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관리 ▪ 보안관리 및 내·외부청소, 경비용역 관리 ▪ 무대 소품 유지 관리 ▪ 분장실 유지 관리, 전시실 유지 관리 ▪ 연습장, 다목적실 운영 관리 ▪ 공연장, 전시실, 대관 및 운영 ▪ 문화관 및 별관 냉·난방 유지 관리 ▪ 중앙감시실 운영 ▪ 공연장 무대, 무대기계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물 유지 관리 ▪ 문화시설관리계획 수립 및 총괄, 문화시설 위·수탁 관련 업무 ▪ 문화관 및 별관 건축, 전기, 통신, 승강기, 조경, 소방시설, 재난시설 유지관리 ▪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기타업무
광주문화 예술교육 지원센터	▪ 시민문화예술강좌 기획 및 운영 ▪ 문화예술교육 정책사업 위탁 운영 ▪ 지역 문화예술교육 정보인프라 구축 및 홍보 ▪ 지역 문화예술교육 인력 양성 및 연수 기획·운영 ▪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 ▪ 지역 문화예술교육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협력망 구축 사업 ▪ 문화예술교육 업무 총괄, 센터 운영 방향 기획, 중단기 전략 과제 및 사업계획 수립 ▪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연계한 학교 및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지원사업 ▪ 대표이사가 지정하는 기타업무

○ 주요 시설물 현황

1. 빛고을시민문화관 일반현황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7(구동12번지)
- 건립년도 2010년 2월
-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일부자연녹지지역
- 부지면적 5,477.50m²
- 건물개요
 - 용 도 : 복합건축물
 - 공연객석 : 715석(장애인석 포함)
 - 건물규모 :건축면적 3,018.46m², 연 면 적 14,083.32m²
 - 지하2층, 지상4층, 최고높이 29.45m
 - 건 폐 율 : 55.41%(56.95%이하)
 - 용 적 률 : 139.92%(374.23%이하)
- 승강기 4대(24인용1, 17인용2, 15인용1)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1700인용)
- 주차대수 114대(장애인주차 6대, 임산부전용 3대, 대형차량 3대포함)
- 조경면적 950.20m²(법정면적 817.13m²)



빛고을시민문화관 전경



내부 공연장

2.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일반현황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7(구동12번지)
- 건립년도 1985년 6월
- 지역·지구 준주거지역, 일부자연녹지지역
- 부지면적 3,868.90m²
- 건물개요
 - 용 도 : 체육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 건물규모 :건축면적 2,090.41m², 연 면 적 6,175.06m²
 - 층 수 : 지하1층, 지상6층
- 전기설비
 - 수전설비 : 750KW, 전압 22,900V
 - 발전설비 : 159KW, 전압 380V
- 냉·난방 설비
 - EHP(전기히트펌프) 설비, 바닥 전기온돌 판넬
- 승강기 1대(17인용 장애인 전용)
- 정화조 오수처리시설(부패탱크방식900인용)
- 주차대수 부설주차장 인근설치(주차장법 제19조4항, 주차장법시행령7조)
- 조경면적 657.54m²(법정면적 580.34m²)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외관



빛고을아트스페이스 전경

3.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일반현황

- 위치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177-35
- 건립년도 1979년 2월
- 대지면적 995.8㎡
- 건물개요
 - 용도 : 교육원
 - 건물규모 :연 면 적 1,062.9㎡
 - 층 수 : 지하1층, 지상4층
- 전기설비
 - 수전설비 : 한전 저압수전
- 방재설비
 - 자동화재수신기 : P형 수신기 1대
 - 소방펌프 : 옥내소화전용 가압펌프 1대
 - 소화기 : 분말소화기 25개
 - 소화전 : 옥내소화전 4개
 - 물탱크 : 옥내소화전용 물탱크 1조
- 냉·난방 설비
 - 냉난방기(천정형) 6대
 - 냉난방기(스탠드형) 1대
- 정화조 정화조 1조
- 주차대수 8대 이상



광주문화예술교육센터 전경



4. 전통문화관

- 위치 광주광역시 동구 의재로 222 (운림동 323번지)
- 부지면적 6,471.㎡
- 건물개요
 - 공연장 : 소리마당(야외), 국악당
 - 전시장 : 서석당, 새인당, 무형문화재전시관
 - 체험장 : 예능전수실, 기능전수실
 - 건물규모 :건축면적 852.18㎡, 연면적 2,618.18.㎡(무송원 포함)
 - 지하 1층(1,859.79㎡), 지상 1층(399.24㎡), 무송원(359.15㎡)
- 승강기 2대(15인승, 장애인용)
- 주차대수 24대(장애우 5, 경차 3대 포함)



전통문화관 전경



02 예산현황

가. 예산 규모

1. 2011년 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분	본예산 (A)	제1회 추경(B)		제2회 추경(C)	
			증감(B-A)		증감(C-B)
계	19,433,000	22,910,000	3,477,000	23,429,000	519,000
일반회계	16,813,000	18,920,000	2,107,000	19,268,000	348,000
특별회계	2,620,000	3,990,000	1,370,000	4,161,000	171,000

2. 2011년 수입과 지출예산

세입예산(재원별) (단위: 천원)

구분	계	세외수입	자본적수입	보조금
계	23,429,727	1,322,673	13,815,764	8,291,290
일반회계	19,268,680	774,390	12,282,000	6,212,290
특별회계	4,161,047	548,283	1,533,764	2,079,000

세출예산(항목별) (단위: 천원)

구분	계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내부거래	예비비 및 기타
계	23,429,727	2,197,173	5,862,206	4,389,620	2,071,825	8,530,000	378,903
일반회계	19,268,680	1,468,651	3,579,428	3,783,164	1,614,287	8,530,000	293,150
특별회계	4,161,047	728,522	2,282,778	606,456	457,538	-	85,753

나. 재무제표

1. 2011년 결산내역

대차대조표 총괄 (단위: 천원)

년도별	총자산(A+B)	부채(A)	자본(B)	부채비율(A/B)
2011	11,203,000	2,419,000	8,784,000	27.5%

대차대조표 세부내역

재무상태표
(제1기 : 2011년 12월 31일 현재)

광주문화재단 (단위 : 원)

과목	제1기	
	금	액
자산		
I. 유동자산		11,055,186,439
(1) 당좌자산		11,055,186,439
1. 현금및현금성자산(주식 3)	2,278,257,118	
2. 단기투자자산	8,640,300,280	
3. 미수금	73,356,540	
4. 미수수익	21,040,795	
5. 선급비용	5,665,623	
6. 선급법인세	35,418,750	
7. 기타의당좌자산	1,147,333	
II. 비유동자산		147,862,369
(1) 유형자산(주식 4,8)		147,862,369
1. 비품	306,552,226	
감가상각누계액	(69,011,322)	
국고보조금	(94,666,028)	
2. 시설장치	301,288,077	
감가상각누계액	(32,391,444)	
국고보조금	(263,909,140)	
자산총계		11,203,048,808
부채		
I. 유동부채		2,300,496,414
1. 미지급금	841,619,807	
2. 선수금	1,352,460,342	
3. 예수금	37,382,663	
4. 부가세예수금	5,156,577	
5. 미지급비용	63,877,025	
II. 비유동부채		118,440,280
1. 퇴직급여충당부채(주식 5)	118,440,280	
부채총계		2,418,936,694
자본		
I. 자본금(주식 6)		8,210,175,000
1. 출연금	8,210,175,000	
II. 이익잉여금		573,937,114
1. 미처분이익잉여금	573,937,114	
자본총계		8,784,112,114
부채와자본총계		11,203,048,808

손익계산서 총괄 (단위: 백만원)

년도별	수익			비용				손익 (A-B)
	매출액	영업외 수익	소계(A)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외 비용	소계(B)	
2011	12,844	199	13,043	7,302	5,162	5	12,469	574

손익계산서 세부내역

손익계산서 (제1기 :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광주문화재단 (단위 : 원)

과목	제1기	
	금	액
I. 사업수익		12,844,041,584
1. 이자수익	274,152,288	
2. 수탁사업수익	7,883,324,505	
3. 기부금수익	680,000,000	
4. 보조금수익	3,603,965,127	
5. 임대료수입	13,759,516	
6. 빛고을문화관대관료수입	121,641,732	
7. 아트광주수입	30,675,000	
8. 브랜드공연축제수입	36,099,600	
9. 공공미술화사업수입	187,590,900	
10. 여성합창축제수입	1,014,175	
11. 에든버러수입	976,241	
12. 정율성수입	9,595,500	
13. 사랑의티켓수입	1,247,000	
II. 사업비용		7,301,957,270
1. 산테마아시아사업	197,060,820	
2. 방학예술캠프지원사업	59,999,725	
3. 여행비우체사업	113,269,000	
4. 교육지원센터지역사회교육사업	434,000,000	
5. 프리울리모자이크사업	40,447,288	
6. 광주폴리유지관리사업	10,000,000	
7. 재단" 자체사업" 관리비용	707,052,890	
8. 빛고을시민문화대학운영사업	10,000,000	
9. 한국밸리외교수립사업	3,000,000	
10. 아시아도시간문화교류협력사업	36,000,000	
11. 자스민수입지원사업	10,000,000	
12. 프론티어사업	29,022,500	
13. 꿈꾸라오케스트라사업	50,000,000	
14. 아듀2011사업	30,000,000	
15. 송신년시인사업	113,950,000	
16. 바이어시티투어사업	4,000,000	
17.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사업	35,870,500	

과목	제1기	
	금	액
18. 아시아문화포럼사업	194,870,888	
19. 문화예술활성화거점사업	800,000,000	
20. 교육지원센터예술강사지원사업	990,932,802	
21. 광주브랜드공연개발사업	496,524,627	
22.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	200,000,000	
23.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740,750,000	
24. 문화바우처지원사업	300,000,000	
25.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500,000,000	
26. 사직공원공공예술프로젝트사업	224,462,680	
27.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200,000,000	
28. 교육지원센터운영사업	280,275,350	
29. 시민문화예술상위크숍사업	20,000,000	
30.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402,000,000	
31. 예술동아리공연활동지원사업	43,500,000	
32. 도청리모델링사업	24,968,200	
III. 사업총이익		5,542,084,314
IV. 일반관리비		5,161,479,881
1. 급여	1,941,350,900	
2. 퇴직급여	110,300,280	
3. 복리후생비	114,898,570	
4. 여비교통비	82,677,260	
5. 통신비	33,508,975	
6. 수도광열비	164,811,136	
7. 세금과공과금	47,503,610	
8. 감가상각비	56,799,201	
9. 지급임차료	13,307,335	
10. 수선비	46,904,714	
11. 보험료	26,240,157	
12. 차량유지비	11,099,980	
13. 도서인쇄비	50,666,751	
14. 운반비	1,754,400	
15. 교육훈련비	1,134,000	
16. 회의비	18,932,800	
17. 사무용품비	5,850,120	
18. 소모품비	143,516,539	
19. 지급수수료	91,157,292	
20. 광고선전비	27,433,682	
21. 업무추진비	61,175,396	
22. 행사운영비	2,107,390,303	
23. 잡비	3,066,480	
V. 사업이익		380,604,433
VI. 사업외수익		198,769,915
1. 잡이익	198,769,915	
VII. 사업외비용		5,437,234
1. 잡손실	5,437,234	
VIII. 경상이익		573,937,114
IX. 당기순이익		573,934,117

03 광주문화재단 제1기 이사명단 (11. 12. 31일 기준)

다. 자체 수입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자체수입(A)		-	-	-	-	1,125,856	1,367,931
	영업 수입	-	-	-	-	주1) 997,000	주2) 1,169,161
	영업외 수입	-	-	-	-	128,856	198,770
운영비(B)		-	-	-	-	2,514,685	1,970,936
영 업 비 용	매출원가	-	-	-	-	0	0
	판매비 및 관리비	-	-	-	-	2,514,685	1,970,896
	영업외 비용	-	-	-	-	0	40
자체수입비율(A/B)		-	-	-	-	0.4477	0.6940

주1)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p.14 ‘손익계산서’ 중
“Ⅰ. 사업수익 - 수탁사업수익 - 보조금수익 - 공공미술화사업수입”
주2) 법인운영비 손익계산서 명시금액

라. 국비 수주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옛전남도청리모델링 공사차단막예술작품화사업		-	-	-	-	25,000	25,000
꿈꾸리오케스트라		-	-	-	-	150,000	150,000
문화전당공사장 보호막 공공예술		-	-	-	-	209,090	209,090
합 계		-	-	-	-	384,090	384,090

번호	직위	성명	임기	주요약력
1	이사장	강운태	2010.12.31 ~ 재직시	현 광주광역시장
2	대표이사	노성대	2010.12.31 ~ 3년	前 MBC사장 前 방송통신위원장
3	선임직 이 사	강봉규	〃	前 광주예총 회장
4	〃	강숙자	〃	전남대학교 예술대교수
5	〃	김국웅	〃	(주)무등, 우리로광통신(주) 대표이사
6	〃	김응서	〃	(주)남해종합개발 회장 (사)광주미술관회 회장
7	〃	김재규	〃	前 광주비엔날레 사무총장
8	〃	김 종	〃	광주시문화원연합회 회장
9	〃	김포천	〃	前 광주공연예술재단 이사장
10	〃	김하림	〃	조선대학교 기획조정실장 前 광주전남문화연대 상임대표
11	〃	문순태	〃	소설가, 前 광주대 교수
12	〃	윤장현	〃	한국 YMCA 이사장
13	〃	이정애	〃	전남대학교 의대 교수 광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14	〃	황영성	〃	조선대학교 미대 교수
15	당연직 이 사	노희용	2010.12.31 ~ 재직시	현 광주광역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
16	감사 (당연직)	임영일	〃	현 광주광역시 문화수도예술과장
17	감사 (선임직)	문정현	2010.12.31 ~ 3년	법무법인 바른길 대표변호사 광주예총 기획정책위원

04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 명단 (2011. 12. 31일 기준)

성명	현 직책	주요경력	비고
박만우	백남준 아트센터 관장	前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 前부산비엔날레 예술감독	전시기획
김윤기	아트광주조직위원회 디렉터	前 송원갤러리 관장 前 광주비엔날레 홍보사업부장	전시기획
박명성	신시 뮤지컬 컴퍼니 대표	한일연극교류협회 회장 한국뮤지컬대상 프로듀서상	공연기획
박강의	놀이패 신명 상임연출	前 놀이패 신명 대표 민족극한마당 집행위원장	공연기획
이무용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축제기획
윤성진	안양대 겸임교수	前 전남대문화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0전주아태무형문화유산축제 예술감독	축제기획
문병남	국립발레단 부예술 감독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대학 박사 성균관대 무용학과 겸임교수	무용
윤진철	시립국극단 예술감독	중요무형문화재 판소리교법 이수자 전남대학교 예술대 겸임교수	전통예술
이이남	미디어 아티스트	G20정상회의 작품설치 예일대 특강	미술
허달용	한국화가	광주민예총 회장	미술
정현수	전남대 예술대 교수	국제현대음악협회 한국위원회 사무총장 정율성 국제음악제 조직위원	음악
안톤 솔츠	조선대 초빙교수	코리아컨설팅 대표 쿤스트 할레 스페셜 어드바이저	관광
박종찬	광주대 관광학부 교수	광주시 관광협의회 위원 (사)한국호텔관광학회 부회장	관광
박윤모	전남대 예술대 겸임교수	2000비엔날레 프로그래머 2002월드컵 문화행사 총감독	연극
박홍근	건축사	포유건축사 사무소 대표 참여자치21 운영위원	건축
전용호	소설가	광주 스토리텔링 작가협회장 메이엔터테인먼트 대표	문학
최옥수	대동문화재단 사진국장	前 동신대 전임강사 前 금호문화재단 사진담당	사진
송진희	호남대 산업디자인과 교수	광주디자인센터 이사 문화컨텐츠진흥원 지역문화센터장	디자인
이승권	조선대 프랑스어과 교수	조선대 국제문화연구원 통번역센터장	문화예술교육
정 철	동신대 방송연예학과 교수	광주예총 수석부회장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광주전남위원장	문화예술교육
민문식	교육문화공동체 “결” 상임위원	푸른광주 21협의회 자문위원 무등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PM	문화예술교육
김원중	가수	달거리 공연기획, 연출 지역감정 없애기 전국 49개 도시 순회공연	대중문화
강 원	문화중심도시추진단 전문위원	前 의재미술관 학예실장	문화정책
정성구	광주발전연구원 도시환경실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자문위원	도시계획
황풍년	전라도닷컴 편집장	前 전남일보 기자	문화콘텐츠
임수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과정과 문화예술팀 장학사	미협회원,광주시문화예술협회회원, 광엑스포자문위원	문화예술교육

05 문화나무 함께 가꾸기 협약체결기관

일 시	협약기관	비고
2011.3.09	조선대학교	
2011.3.31	전남대학교인문대학 전남대학교문화전문대학원	
2011.4.07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2011.4.07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사) 대동문화재단	3자간 협약
2011.4.13	(사)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2011.4.20	광주발전연구원	
2011.5.06	광주대학교	
2011.5.11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011.6.15	광주예술고	
2011.6.24	광주디자인센터	
2011.7.05	5·18기념재단	
2011.10.21	호남대학교	
2011.11.16	(재) 빛고을노인복지재단	
2011.12.26	광주광역시 교육청	다자간 교육기부 협약

06 문화예술지원사업 현황

① 2011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의 지원결정 내역

분야	접수		선정결과	
	건수	금액 (단위 : 천원)	건수	금액 (단위 : 천원)
계	420건	2,962,825	198건	719,350
연극	30건	337,000	12건	59,000
무용	36건	390,000	14건	90,000
음악	57건	377,704	27건	102,000
국악	45건	378,450	23건	94,000
문학	88건	399,341	43건	113,350
미술	96건	463,310	50건	141,000
사진	19건	90,000	11건	32,000
다원예술	49건	527,020	18건	88,000

② 2011 지역문화예술기획지원사업의 지원결정 내역

구분	구 분		
	단체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다원	(사)문화터미널	빵만드는 공연 ‘김원중의 달거리’	60,000
음악	광주오페라단	음악극 ‘김치’	60,000
연극	박준희 무용단	그리고 나도 늙는다...	30,000
연극	놀이패 신명	동네방네 5,18 예술보따리	25,000
무용	(사)지역문화마케팅전략개발	공존을 위한 그린프로젝트 녹색 몸짓	20,000
계			195,000

③ 2011 레지던스프로그램지원사업

장르	구 분			
	단체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비고
다원	아트스페이스미테-우그로	놀고 먹는 레지던스	60,000	
시각	의재문화재단	의재창작스튜디오	50,000	
시각	(사)미협	문화지하철나눔레지던시	42,000	
연극	아트컴퍼니원	플레이 공작소	40,000	
계			192,000	

④ 2011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장르	구 분			
	단체명	사 업 명	지원액 (천원)	비고
무용	서영무용단	한국적 감성의 세계화를 위한 창작무용 공연	47,000	
음악	강숙자 오페라라인	지역협력사업 3차년도 프로젝트 "도악"	47,000	
연극	극단 진달래피네	사랑 나눔 페스티벌	73,000	
연극	극단 푸른연극마을	신나는 연극여행	53,000	
무용	임지형광주현대무용단	2011 공연장상주단체프로그램	90,000	
음악	한소리회	2011 공연장상주육성지원	73,000	
전통	퓨전국악 아이이라	신나는 국악여행	50,000	
음악	광주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빨간날 4시 음악회 (광주다문화음악학교 운영)	50,000	
계			483,000	

⑤ 2011 문화예술활동단체(사회보조금-문화예술분야) 지원결정내역

재원(사업명)	장르	선정건수	지원액 (단위:천원)
사회단체보조금 (문화예술분야)지원사업	전시	21	147,500
	전통	17	71,500
문화예술활동단체지원사업	공연	27	170,000
	문학	12	80,500
	기타	21	136,500
합 계	-	98	606,000

⑥ 2011 청소년예술동아리활동지원사업

구분	접 수		선 정 결 과		
	건 수	금 액 (단위:천원)	건 수	금 액 (단위:천원)	공연회수
음 악	10	32,926	6	8,500	7
연 극	11	33,254	8	11,500	10
무 용	7	24,000	5	8,000	5
국 악	1	4,000	1	1,000	1
다 원	11	35,254	11	12,500	13
합 계	40	129,434	31	41,500	36

07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현황

구분	수혜대상	신청단체명	사 업 명	대표자	사업기간 항유기관
			사업내용		
1	아동청소년	풍물연희예술단 광대	꿈씨앗이 자라나는 키작은 책상 목공작업을 통한 자기 예술책상 만들기	장호준	2011. 4.~11. 새희망 지역아동센터
2	아동청소년	문화행동 S#ARP	무지개빛 접시에 담긴 아시아요리교실 국제이해교육, 아시아요리 문화예술교육	정민기	2011. 4.~12.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3	아동청소년	무등현대미술관	성촌마을3 -할아버지의 예술서당 이야기 예절교육, 마을자원발굴, 그림문자도 만들기	정송규	2011. 4.~12. 성촌마을
4	아동청소년	실내악단 마하나임	음악과 함께하는 세계여행 세계민속음악으로 이해하는 각 나라의 문화예술	김윤미	2011. 4.~12. 빛고을풍성한 공부방
5	아동청소년	전통연희놀이 연구소	교과서 속 민화이야기 민화 그리기, 교과서 내용 관련 연희극 만들기	정재일	2011. 4.~12. 하버드 지역아동센터 등
6	아동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결	우리동네 음악을 입다 동네이야기 찾기, 노래만들기, 뮤직비디오 만들기	민문식	2011. 4.~12. 우성지역아동센터
7	장애인	광주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도담도담 ‘en-ABLE’ 극놀이 학교 교육연극, 연극만들기 및 공연	최용운	2011. 4.~12. 정보문화 종합지원센터
8	아동청소년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숨겨진 나를 찾아가는 신화여행 신화를 활용한 인문학, 미술, 음악교육	조동련	2011. 4.~12. 로템지역아동센터
9	아동청소년	광주민족예술인 총연합	진주마을에서 행복한 꿈을 잡자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나종영	2011. 4.~12.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10	아동청소년	지역문화교류 호남재단	몸짓으로 말하는 “친구야 함께 놀자” 신화를 활용한 인문학, 미술, 음악교육	문병란	2011. 4.~12. 어울림공부방

구분	수혜대상	신청단체명	사 업 명	대표자	사업기간 항유기관
			사업내용		
11	노인	농성문화의집	독거노인들의 감성프로젝트 ‘여기에 시인이 산다’ 문화예술체험, 시 창작 및 낭송, 시화전, 시집 출판	서광준	2011. 4.~12. 농성문화의집
12	장애인	아트컴퍼니 원	이제 시작이야! “드림 메이킹!” 발성, 노래, 춤, 연기 등 연극교육	원광연	2011. 3.~12. 엠마우스 산업 연합회
13	아동청소년	태이움직임 교육연구소	지역아동센터 통합프로그램 “몸아! 놀자” 무용 및 음악 통합교육	신희홍	2011. 4.~12. 해돋이 지역아동센터
14	장애인	광주전남 놀이문화공동체 꿈꾸는 다락방	세상을 향해 두드리다 Dream Beat 난타 퍼포먼스 교육	소윤정	2011. 4.~12. 홀더 지역아동센터
15	아동청소년	광주북구 장애인재활센터& 각화문화의 집	빛고을 장등마을 불 밝혀라 마을조사, 마을놀이터 및 마을가이드북 만들기	장상습	2011. 4.~12. 장운 지역아동센터
16	아동청소년	여디디야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들강달강 어린엄마씨” 미술과 도예, 음악와 동작치료	이은나	2011. 3.~12. 미혼모 쉼터 ‘우리집’
17	통합	광주시민소리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사업단	스토리텔링 사진 교육 우리동네 사진촬영, 스토리텔링, 전시	문상기	2011. 4.~12. 양림동방림동 주민
18	통합	(사)우리문화 예술원	2011 광주푸른길 창의적소통 네트워크 통합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동화, 아카펠라, 국악, 영상 등) 참여기관 워크숍, 컨설팅, 연구모임 푸른길 문화장터 개최, 푸른길 동화책 발간	김태훈	2011. 4.~12. 산수도서관, 늘푸른 지역아동센터, 행복한 지역아동센터, 광주동부지역 사랑 아동모임
19	통합	아이숲 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 문화예술 네트워크 작은도서관 문화예술 네트워크 운영(워크숍, 탐방)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 (그림책, 연극, 아카펠라 교육)	정봉남	2011. 4.~12. 함께할 새누리공부방 홀더 지역아동센터

08 2011 주요 축제 프로그램 현황

축제명	장르	장소	축제기간
브랜드공연축제	연극, 무용	빛고을시민문화관	7. 1~31
한중전통문화교류	복합	중국 하얼빈 환구극장	8. 22~23
에든버러	공연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센터	8. 13~19
정율성축제	클래식	빛고을시민문화관, 광주문화예술회관	10. 12~16
여성합창축제	합창	빛고을시민문화관	10. 21~23
아듀 2011	복합	빛고을시민문화관	12. 31
문화나무예술단 '작은 음악회'	모든 문화예술 총집합	광주 전역	7~12

① 페스티벌 오! 광주 브랜드공연축제 프로그램 구성

일 자	공연명	작품명	장르
7. 2(토)~3(일)	브랜드공연 : 광주문화재단	Jasmine 광주	복합
7. 9(토)~10(일)	광주지역브랜드 : 놀이패신명	일어서는 사람들	연극
7. 12(화)~13(수)	광주지역브랜드 : 타악그룹얼쑤	인수화풍	복합
7. 16(토)~17(일)	광주지역브랜드 : 극단진달레피네	몽연	연극
7. 19(화)~20(수)	광주지역브랜드 : 김미숙&임지형	연의 노래	무용
7. 23(토)~24(일)	타지역브랜드 : 사다리움직임연구소	보이책	연극
7. 27(수)	국립무용단	코리안 판타지	무용
7. 30(토)~31(일)	타지역브랜드 : 더 패트론 컴퍼니	카르마	복합

프로그램 구성 위원 : 박선정(사무처장), 선재규(문화관광실장), 김홍석(축제사업팀장), 최영화(연극협회장), 김미숙(김미숙뿌리무용단대표)

② 페스티벌 오! 광주 정율성축제 프로그램 구성

일시	행사명	참가단체	장소
6월 7일	지역관광 활성화 음악회	광주광역시 시립합창단	광산구 노인복지관
8월 23일	정율성국제학술 세미나(하얼빈) “조선족 현대음악가와 문화교류 방안”	-	중국 흑룡강성 하얼빈시 조선민족 예술관
10월 12일~16일	정율성 삶과 음악展	-	광주 문화예술회관 빛고을 시민문화관
10월 14일	정율성국제학술세미나(광주) “향일음악전 정율성 국제학술토론회”	-	빛고을 시민문화관
10월 12일	정율성 음악회	소통/疏通/Interac -이야기가 있는 음악회	양상블 루미나시아
10월 13일		열정/熱情/ Passion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대가들의 향연	광주시립교향악단, 그레고리 노박, 양성식, 양성원
10월 14일		비상/飛上/Soar - 차세대 클래식 스타	김태형피아노, 김지윤바이올린, 서민정바이올린, 서수민비올라, 김민지첼로
10월 15일		화합/和合/ Harmony - 한·중 문화교류의 밤	하얼빈가극원, 박수용 재즈오케스트라
10월 16일		평화 / 平和 / Peace - 비엔나양상블	비엔나양상블

프로그램구성위원 : 박선정(사무처장), 선재규(문화관광실장), 김홍석(축제사업팀장), 김성광(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 김성훈(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겸임교수), 서영화(조선대학교 음악교육과 교수), 정현수(전남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윤재근(광주음악협회장)

09 문화나무예술단 현황

9-1. 2011년 페스티벌 오! 광주-문화나무예술단 현황

2011년 12월 31일 기준

연번	장르	세부장르	단체명	대표자명
1	음악	퓨전국악	아이리아	강혜경
2	공연	댄스	광주PTS댄스팀	김순화
3	음악	악기	하모니테라피	조상호
4	음악	퓨전국악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	홍윤진
5	음악	퓨전국악	퓨전국악그룹 늘숨	김지혜
6	공연	인형극	교육극단 파랑새	비공개
7	음악	밴드음악	후라스타	김진성
8	음악	밴드음악	나라얀(조선대학교)	박진주
9	음악	밴드음악	락드래곤(조선대학교)	정동길
10	음악	통기타	하모닉스	김경현
11	공연	댄스	Big Size	문대근
12	공연, 전시	통기타, 악보	한보리 노래전시회	한보리
13	공연	마술	유레카 ‘Dream of Magic’	정웅섭
14	전시	설치미술	조선대IS동아리	권은미
15	음악	관악합주	전남공고 관악합주단	정기완
16	음악	가수	가수 고미남	고광영
17	기타	촬영	문화TV 김성철	김성철
18	공연	무용	굿패 마루(진현지)	진준한
19	공연	댄스	South Clown	최보배
20	공연	마술	오월 마술사 ‘이세상’	이지현
21	전시	사진	김은주 오월어머니 사진전	김은주
22	음악	밴드음악	팡팡밴드 난발델세	손성훈
23	음악	요델	광주엔시안요델클럽	김성준
24	음악	요델	광주오버란트요델클럽	김재광
25	음악	통기타	G공감	김재광
26	음악	가수	신인전문가수 김승온	김승온
27	음악	중창	노이 깐띠아모	임대근
28	음악	첼로	여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김유정
29	음악	가수	가객 정용주	정용주
30	음악	색소폰	돌체 음악동호회	김성천

③ 페스티벌 오! 광주 여성합창축제 프로그램 구성

일자	행 사 명	참가단체	장소
10.21 (금)	“오세종지휘자의 합창세미나”	광주여성합창단원, 음악전공학생	빛고을공연장
	“마당놀이” - 놀이패 ‘신명’ 초청	광주여성합창단원, 일반시민	야외공연장
	멋진서울친구들 “서울시립합창단 초청 공연”	광주여성합창단원, 일반시민	빛고을공연장
10.22 (토)	“합창 거리공연”	참가합창단 + 지역합창단	도심주요거리
	멋진여자친구들 “전문 합창단 초청 공연”	구리시여성합창단, 창원시그린여성합창단 엘여성합창단, 원주레이디스싱어즈 GJ SINGERS, 광주파파남성합창단	빛고을공연장
10.23 (일)	멋진광주친구들 “광주합창제”	문막스카이어, 살레시오여중합창단 광주여성합창단, KBS어린이합창단 광주북구여성합창단, 광주서구여성합창단 수피아여중합창단, 스콜피아싱어즈 광주CBS여성합창단, YMCA합창단 아이필양상블, 꿈을품은메아리합창단 광주레이디싱어즈, 광주아버지합창단 광주남구여성합창단, 사랑의부부합창단	빛고을공연장

프로그램구성위원 : 오세종(부산시립합창단 지휘자), 구천(울산시립합창단 지휘자),
이병직(순천시립합창단 지휘자), 김성국(광주교대 음악교육과 교수),
윤영문(한국합창총연합 광주연합회 회장)

④ 아듀-2011 프로그램 구성

구분	참 여 단 체	작 품 명	장 르
1	이광수	비나리	판굿
2	강명진	베토벤 바이러스	전자바이올린
3	아이리아	배뛰워라, Replay	퓨전국악
4	류장현과 친구들	아! 대한민국	현대무용
5	이원국	뉴욕! 뉴욕!	발레
6	박지은	댄스올라이트	스포츠 댄스
7	임현빈, 박애리	춘향가, 심청가	국악
8	중앙국악관현악단	춤추는 관현악	관현악
9	부대행사	달집태우기, 떡국나눔	야외주차장

프로그램 구성 위원 : 박선정(사무처장), 선재규(문화관광실장), 김홍석(축제사업팀장),
최영화(연극협회장), 김미숙(김미숙뿌리무용단대표)

연번	장르	세부장르	단체명	대표자명
31	음악	Video, mixing	80's mix	윤열이
32	음악	Violin, Trumpet	Presto	서민지
33	공연	댄스	비앤시스터즈	박다운
34	전시	탈전시	윤만식	윤만식
35	무용	무용	박주희무용단	박주희
36	음악	국악	가온누리	한인선
37	전시	사진	정용호 사진전시	정용호
38	전시	사진	박현정 사진전시	박현정
39	음악	복합	소리모아봉사단	김신갑
40	전시	도자,사진	김곤선 도자문화	김곤선
41	음악	노래	Milky twilight	안지은
42	음악	악기	All the music	최의묵
43	음악	난타	태극퓨전난타	최광일
44	공연	기타연주	라라음악사	임형규
45	음악	성악	최한나	최한나
46	음악	합창	은파실버합창단	최금자
47	댄스	퍼포먼스	제우스키다리 퍼포먼스	김학성
48	공연	퍼레이드	천국악단(天國樂團)	전영우
49	공연	전통연희	놀이패 신명	김호준
50	무용	무용단	박준희 무용단	박준희
51	음악	통기타	광주포크기타그룹	김철운
52	음악	통기타	김복룡	김복룡
53	음악	악기	광주베누스토오케스트라	강재진
54	기술	음향	가나엔터프라이즈	고진영
55	기술	기획	대원 C&C	조성용
56	기술	기획	(주) UNI	송양근
57	기술	영상촬영	고추잡자리	김진현
58	기술	사진촬영	고추잡자리	이진주
59	음악	악기	이소현 앙상블	이소현
60	음악	성악	베이스 송	송현민
61	음악	국악	산울림(문성고)	박종찬
62	사회	MC	김재석	김재석
63	음악	민요, 가야금병창	송추월	송추월
64	음악	밴드	낭만우주	이장석
65	마술	마술	김태현	김태현
66	기타	변호사	조기선	조기선

9-2. 작은 음악회 개최 현황

구분	일시	구분	참여단원	장소	참가자
제1회	20110701 (금) 20:00	브랜드 공연축제	굿패마루, South Clown, 늘숨, 루트머지, 빅사이즈, 오월마술사, 아이리아	빛고을 시민문화관 야외 상설 무대	300
제2회	20110702 (토) 14:00	브랜드 공연축제	유레카,SouthClown, 빅사이즈	빛고을 시민문화관 야외 상설 무대	250
제3회	20110712 (화) 18:00	브랜드 공연축제	한보리, 박양희, 이진진, 모이즈 앙상블, 김원중, 양종세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457
제4회	20110716 (토) 16:00	브랜드 공연축제	한보리, 이진진, 박양희, 바닥프로젝트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368
제5회	20110720 (수) 18:30	브랜드 공연축제	노이칸티아모, 박승원&박승유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350
제6회	20110721 (목) 17:00	브랜드 공연축제	황소희, 홍영, 다음스님, 가객 정용주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280
제7회	20110723 (토) 17:00	브랜드 공연축제	하모니테라피, 노이칸띠아모, 색소폰 김성천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176
제8회	20110724 (일) 17:00	브랜드 공연축제	광주 PTS댄스팀, 고미남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75
제9회	20110727 (수) 18:30	브랜드 공연축제	아이리아, 노이 칸띠아모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280
제10회	20110730 (토) 17:00	브랜드 공연축제	80's mix, PRESTO, FRASUE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258
제11회	20110731 (일) 17:00	브랜드 공연축제	김성천, 오지희&김지현, 노이칸띠아모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132
제12회	20110831 (수) 16:50	아트페어 아트광주11	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퓨전국악 아이리아	김대중 컨벤션센터 콘구스홀	200
제13회	20110902 (금) 14:00	아트페어 아트광주11	김신갑, 노혜영, 이현아, 김용인, 박소현, 민지희, 조아영 등	상무지구 상설금요시장	50
제14회	20110902 (금) 17:00	아트페어 아트광주11	PTS댄스팀, 빅사이즈, 비앤시스터즈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야외공연장	340
제15회	20110903 (토) 17:00	아트페어 아트광주11	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노이칸띠아모, 가온누리	김대중 컨벤션센터 콘구스홀	160

구분	일시	구분	참여단원	장소	참가자
제16회	20110904 (일) 16:00	아트페어 아트광주11	박주희 그랑무용단, 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루트머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콘구스홀	120
제17회	20110923 (금) 17:00	총장7080 축제	고미남, 김철운, 김복룡	광천터미널 유스퀘어 야외공연장	80
제18회	20111007 (금) 13:00	나눔대축제	빅사이즈, South Clown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80
제19회	20111007 (금) 17:00	나눔대축제	태극퓨전난타, 가객 정용주, 나라얀, In2tantsor, 락드래곤 등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70
제20회	20111008 (토) 14:00	나눔대축제	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팡팡밴드 난발델세, 노이 깐띠아모, 늘숨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60
제21회	20111012 (수) 18:00	정율성축제	은파실버합창단, 은파오카리나, 김철운, 하모닉스	빛고을 시민문화관	120
제22회	20111013 (목) 18:30	정율성축제	빅사이즈, 박주희그랑무용단, 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문화예술회관	215
제23회	20111014 (금) 10:00	정율성축제	〈특별 정율성 연주〉 여성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빛고을 시민문화관 다목적실	158
제24회	20111014 (금) 18:00	정율성축제	빅사이즈, 노이깐띠아모, Presto	문화예술회관	188
제25회	20111015 (토) 18:00	정율성축제	In2tantsor, 가온누리, 진현지	빛고을 시민문화관	160
제26회	20111016 (일) 18:00	정율성축제	〈특별 정율성 연주〉 최의묵, G공감	빛고을 시민문화관	96
제27회	20111016 (일) 18:30	나주 예술인마을 지원공연	빅사이즈, In2tantsor, 가객 정용주	나주 예술인마을	120
제28회	20111021 (금) 11:50	일자리 취업박람회	빅사이즈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	300
제29회	20111021 (금) 15:30	일자리 취업박람회	제우스키다리퍼포먼스	김대중 컨벤션센터 전시장	300
제30회	20111021 (금) 18:00	여성합창축제	놀이패 신명 "언제가 봄날에"	빛고을 시민문화관	296
제31회	20111022 (토) 10:00	여성합창축제	광주사랑의부부합창단, 광주여성합창단, 광주아버지합창단, 북구여성합창단	증심사 탐방센터 앞	588
제32회	20111022 (토) 18:00	여성합창축제	광주레이디싱어즈, YMCA합창단, 서구여성합창단	유스퀘어 야외공연장	479
제33회	20111022 (토) 18:00	여성합창축제	문맘스카이어, 남구여성합창단, CBS여성합창단	광주공원 남구민방위센터	298

구분	일시	구분	참여단원	장소	참가자
제34회	20111022 (토) 17:00	여성합창축제	박준희무용단	빛고을 시민문화관	267
제35회	20111022 (토) 17:00	여성합창축제	은파실버합창단	빛고을 시민문화관	439
제36회	20111023 (일) 13:00	광주FC 폐막전	빅사이즈, 노이깐띠아모, In2tantsor, 가온누리	월드컵경기장 롯데마트쪽 야외무대	12,000
제37회	20111023 (일) 15:45	광주FC 폐막전	태극퓨전난타	월드컵경기장	24,778
제38회	20111024 (월) 19:00	관광뷰로 학술회의	루트머지	김대중 컨벤션센터	100
제39회	20111028 (금) 14:00	경신예술제	빅사이즈, South Clown	경신여중	3,000
제40회	20111119 (토) 14:00	문화농부 페스티벌	루트머지, 빅사이즈, In2tantsor, 노이깐띠아모, 팡팡밴드 난발델세	구도청	566
총 계					48,554

9-3. 특별 전시 개최 현황

구분	기간	출연팀수(인원)	작품수	참석자	장소
제1회	20110630 ~0710	모자이크스쿨 시민체험전	10여개	2,560	빛고을 시민문화관 1층 전시실
제2회	20110711 ~0720	한보리 노래 전시회	40여개	2,856	
제3회	20110721 ~0731	김은주 오월어머니 사진전 "여기,여기..."	30여개	3,250	
제4회	20110727 ~0731	Installation 人+間=소통	6개	1,830	
제5회	20110727 ~0731	IS, 조형과 축제의 만남	6개	1,760	
제6회	20111013 ~1022	윤만식, 광주의 얼굴전	40개	2,600	
총 계				14,856	

10 문화광주 스토리텔링 인터넷 공모사업 수상자 현황

수 상		수상자	소속	수상작
대상	광주광역시 교육감상	김수빈	설월여자고등학교	할머니와 골목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상	박은정	보문고등학교	보물산
	광주매일신문 사장상	김지혜	조선대학교	도심 속 푸름, 내 안의 푸름
우수상		문정현	장덕고등학교	사랑할 만한, 사랑해야 할 광주극장
		박한얼	호남삼육중학교	흘러온 이야기, 흘러가는 이야기
		김미진	국제고등학교	가까운 곳의 행복, 시화마을
		백재열	원광대학교	산 속의 집
		김보배	동국대학교	새로운 마음의 바람이 부는 곳, 수박등로 바람터
입상		김은	광주제일고등학교	두 선비의 편지
		김지현	설월여자고등학교	사람냄새 자연냄새 가득한 우리 동네
		김재형	국제고등학교	나의 유년과 함께 해온 장소
		심현지	문정여자고등학교	오치골 옛터 거리의 시간 여행
		김민찬	동신중학교	의향의 중심 공간-포충사
		박영준	동성고등학교	호수를 품은 건강한 동네
		문향기	설월여자고등학교	추억이 흐르는 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장소
		박보미	동아여자고등학교	절대 마인드, NEVERMIND!
		박채연	고양예술고등학교	빛고을 속의 미술관
		위수연	서석초등학교	아름다운 거리, 충장로 화이팅!!!
		황진	광주여자고등학교	광주의 Cinema paradiso
		김민정	경신여자고등학교	꿈에 날개를 달기위해 가는 곳
		성영선	고려대학교	가끔은 지친 청춘에게 햇볕을 쬐어주세요!
		김영우	전남대학교	다시 가고 싶은 무등산 팔각정
		정혜리		이름처럼 “기분 좋은 극장”

11 2011 광주문화재단 문화관광탐험대원 (2011. 12. 31일 현재)

연번	성명	나이	소속
1	박미형(여)	23	호남대학교 학생
2	김하나(여)	22	호남대학교 학생
3	이대석(남)	39	함평 나산고등학교 역사 교사
4	강선영(여)	28	광주 디자인센터 연구원
5	김영대(남)	31	마을 운동가
6	박재완(남)	61	사진작가
7	조선미(여)	44	문화관광해설사
8	신장용(남)	55	기독교병원 임상병리과
9	이춘홍(남)	67	사진작가
10	박종오(남)	39	목포대학교 연구원
11	엘비스김(남)	48	미디어아티스트
12	박해옥(여)	47	주부

12 2011 광주문화재단 사업일지

2011

1. 1월 1일 (재)광주광역시 광주문화재단 출범

3일 광주문화재단 시무식

7일 광주문화재단 법인등기완료

9일 광주문화재단 CI 확정

13일 광주문화재단 출범기념 공연 및 전시

광주문화재단 정책자문위원 26명 위촉

26일 광주문화재단 출범 기자회견

28일~11월 24일 문화나무상상강좌 운영(매달 마지막 목요일, 연간 10강)

2. 2월 지역문화예술 지원사업,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사업 등 공모 및 사업자 선정

문화예술행사리플렛 ‘문화마실’ 발행(2월~12월)

3. 3월 2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수탁 관리 시작

3일 사직공공예술프로젝트 TF팀 구성 및 운영(3월~6월)

14일 조선대학교와 상호교류협약(MOU)체결

22일 광주문화재단 임직원 화합 산행

29일 광주문화재단 정기이사회 개최(세입 및 세출예산안 확정 의결)

31일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 문화전문대학원과 상호교류협약(MOU)체결

4. 4월 3일, 9일 센다이시 돕기 자선음악회 및 문화장터를 개최 수익금 센다이시에 전달

7일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과 상호교류협약(MOU)체결

8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전국 최우수’ 센터로 선정

9일 광주문화재단 기획공연 ‘산도 30년쯤 바라봐야 산이다’ 개최

13일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 대동문화재단과 상호교류협약(MOU)체결

15일 협약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18일 아트광주11 이지윤 아트 디렉터 선임

20일 광주발전연구원과 상호교류협약(MOU)체결

25일 제2회 임시이사회 개최(규정 일부 개정)

26일~27일 옛 전남도청 예술 차단막 합작워크숍 개최

5. 5월 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광주 유치를 위한 문화예술인 결의대회를 개최

6일 광주대학교와 상호교류협약(MOU)체결

11일 전남대호남학연구원과 상호교류협약(MOU)체결

13일 일본 북해도문화재단과 문화교류협정 체결

14~15일 삿포로 극단 ‘천년왕국’ 평화연극제 참가 ‘위조자’ 2회 공연

17일 일본 최대 민간합창단 ‘우타고에 합창단’ 재단 방문 및 문화교류 협의

28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시민보고대회 및 축하공연

28일 시민+문화+예술 상상워크숍 ‘치고-받는 타악노리’ 개최

6. 6월 15일 광주예술고등학교 상호교류협약(MOU)체결

19일 英 에든버러 기자단 광주 방문

20일 ‘자스민 광주’ 서울지역 기자간담회 개최

24일 광주디자인센터와 상호교류협약(MOU)체결

29일 제3회 임시이사회 개최(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

29일 페스티벌 오!광주-문화나무예술단 위촉식

7. 7월 1일~ 페스티벌 오! 광주 개막식 및 ‘자스민 광주’ 공연

1일~10일 제2회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작품전 및 워크숍 개최

5일 5 · 18기념재단과 상호교류협약(MOU)체결

11일 옛 전남도청 예술 차단막 ‘광주, 일상과 꿈’ 설치 완료

20일 예술창작활동지원 맞춤형선풂 서비스 시작

27일~28일 시민사회와 소통을 위한 간담회 개최(대동문화재단, 광주문화도시협의회)

8. 8월 1일 사직공공예술프로젝트 작가 5인 선정

1일 광주문화재단 사우회 출범(초대회장 김지원)

5일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사업 레지던시 진행(8월~9월)

8~12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교육연수 ‘학교에 간 스토리텔링’ 실시

10일 사직공공예술프로젝트 작가워크숍 실시(8월~11월, 총 5회)

10~12일 2011방학예술캠프 in 광주 ‘창의디자인 예술캠프’ 개최

18일 자스민 광주’ 에든버러 프린지 공식평가기관서 ‘5스타’ 최고 영예 수상

22~23일 광주문화예술인, 중국 하얼빈시 초청 ‘한중문화교류의 밤’ 행사 공연

22~24일 2011아시아문화포럼 ‘하나의 아시아, 다양성 그리고 축제’ 개최

22~27일 2011년 데굴데굴 문화기행 ‘정율성 중국역사문화탐방’ 실시

31일 아트광주11(2011광주국제아트페어) 개최(9.1.~4)

9. 9월 3일~9일 아시아문화예술인레지던스사업 오픈스튜디오페스티벌 진행

19일 이탈리아 프리울리 모자이크 작품 빛고을시민문화관 앞 가로등 설치

22일 ACE FAIR 2011 바이어 시티투어 실시

26일 ‘한국-벨기에 외교수립 110주년 기념 축하음악회’ 개최

26일~10월 23일 기업 메세나 기부 ‘커피북는집’ 과 제1차 전시회 개최

27일 이후쿠오카현 문화단체연합회와 교류간담회

28일 “지역문화재단 무엇을 할 것인가”란 주제로 광주문화재단·전남문화예술재단
공동포럼 개최

28일~11월 광주문화재단 자체 조직진단 및 조직 개편안 마련

10. 10월 1일 기업 메세나 활성화 ‘커피북는집’ 과 기획공연 개최

1일 시민+문화+예술 상상워크숍 전통문화놀이 ‘달노리’ 개최

7~9일 아시아문화예술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대인예술야시장 개막

8~9일 문화바우처 전통문화캠프

8~10일 김연자와 함께하는 오감만족 광주여행

가수 김연자씨를 광주문화재단 제1호 홍보대사로 위촉

9일 2011오감만족광주여행 김연자 콘서트 개최

12일~16일 페스티벌 오!광주 정율성 축제

18일 식영정·환벽당 일대 ‘성산계류탁월도’ 재현행사 개최

21일~23일 페스티벌 오!광주-여성합창축제

21일 호남대학교와 상호교류협약(MOU)체결

28일 광주문화재단 직원 체육행사

29일 시민+문화+예술 상상워크숍 ‘애들노리’ 개최

29일 산테마아시아문화스토리텔링구축사업단 행사 추진

‘무등산 산행체험, 무등의 품에 깃들다’

31일 협약기관 실무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11. 11월 1일~30일 문화광주스토리텔링 인터넷 공모 진행

3일~6일 사직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 기본 구상 공개, “기억과 예술 숨쉬는

‘공원풍경’ 으로” 주제로 시민보고회 및 전시회 개최

7일~12월 31일 기업 메세나 기부 ‘커피북는집’ 과 제2차 전시회 개최

8일 사직공공예술프로젝트 도시공원심의(3회) 통과(11월~12월)

11일 문화예술단체 대표자 간담회

11~12월 22일 목요상설무대 운영(매주 목요일, 총 6회)

17~26일 미디어특화 갤러리 운영(최옥수의 호남예술가전)

12일~12월 20일 ‘13번지 드로잉 페스타’ 개최 (아시아 문화전당 공사장 주변 보호
막을 예술화하는 공공미술 작업)

14일 광주문화재단 정책집담회 개최

16일 재)빛고을노인복지재단과 상호교류협약(MOU)체결

17일 광주문화재단 ‘꿈꾸리 오케스트라’ 발대식

(소외아동 등 35명 선발 ‘엘시스테마’ 형 음악교육)

17일 ‘목요 상설 무대’ 특별초청 공연 개최. 팝핀현준과 국악계 프리마돈나
박애리 부부의 ‘그와 그녀의 이야기’

19일 광주 폴리 투어 개최(10.27, 11.7, 11.19)

19일 문화농부 회원의 날 행사 개최(연간 문화농부 회원 5,455명 모집)

21일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

24일 해외 레지던스 및 페스티벌 진출 지원

(공모 선정 4개팀 미국 일본 등 공연·전시활동 지원)

26일 시민+문화+예술 상상워크숍 ‘뚝딱노리’ 개최

28일~12.12 임직원 소양교육(성희롱 예방, 일상감사, 문화서비스 교육)

29일 무등산테마스토리텔링 시민공모전 시상식

12. 12월 8~18일 광주문화재단 ‘광주 미디어아트 Now’ 전시·워크숍 개최

“지금 이 시대, 광주 미디어아트는?”란 주제

4일~8일 아시아도시간문화교류협력사업 중국 상해·정주 방문

9일~10일 정책자문위원·문화정책실 합동워크숍 개최

11일~15일 아시아도시간문화교류협력사업 말레이시아 페낭·싱가포르 방문

13 사진으로 보는 광주문화재단 노마드 탐방기

- 12일 사직공공예술프로젝트 작품기본설계안 최종확정
- 13일 광주문화관광탐험대 1년 탐험 모은 '광주견문록 I' 발간 출판기념회·사진전
- 14~16일 광주폴리 해설사 양성과정 운영(총 43명 양성)
- 14일 문화나무 함께가꾸기 협약기관 실무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 15일 제4회 임시이사회 개최(2012년도 예산 심의 의결)
- 16일 문화광주스토리텔링 인터넷공모 시상식 개최
- 19~25일 문화바우처 결과 전시회 개최
- 20일 광주문화재단 매거진 '문화나무' 창간호 발간
- 20일~23일 아시아도시간문화교류협력사업 카자흐스탄 알마티 방문
- 22일 광주문화재단 임직원 송년회
- 25일 광주다문화M오케스트라&곰두리 아카데미 송년의 밤 개최
- 26일 광주광역시 교육청과 교육기부 협약(MOU)체결
- 28일 제5회 임시이사회 개최(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
- 31일 페스티벌 오!광주-Adieu2011 개최 및 송신년 축제



노마드
군산탐방기
(2011. 3. 12)





광주문화재단 백서
부록



노마드
전주
탐방
(2011. 6. 18)

노마드 통영 탐방
(2011. 4. 16)





노마드 경주 탐방 (2011.9.17~18)



노마드 대구 탐방 (2011.12.17)





노마드 부산 탐방 (2012. 2. 24~25)



| 편집 후기 |

광주문화재단 백서는 지난 1년간 광주문화재단이 추진해온 주요사업을 정리한 기록물이며, 재단 임직원의 지난 1년의 노고와 결실이 응축된 결과물이다. 백서의 출발은 단순하다.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은 활발한데 반해, 성과와 자료를 축적하고 기록한 것은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이 현실이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본 사업은 시작되었다.

발간과정을 간단히 서술하면 먼저 편집위원회(문화정책실장 박호재, 홍보교류팀장 김영순, 문화관광팀장 전고필, 홍보교류팀 강현미, 정책기획팀 김주은)를 구성하여 백서의 목차구성 및 방향을 기획하고, 각 사업부서와 담당자들이 원고 초안을 작성해주었다. 편집위원회는 1차 자료를 선별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백서의 체계를 잡아나갔다. 하지만 50여개의 단위 사업에 대한 성과정리 과정에서 담당자들 간 문체의 차이 때문에 편집과 교정 작업이 만만치 않았다. 특히 각자의 업무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수정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했고, 감금형 워크숍이라는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었다. 1박2일간 재단인근 모처에 편집위원을 감금하여 원고교정과 편집 작업이 진행되었다. 다들 불만인데 모실장과 모팀장만 내심 감금이 된 것을 기뻐하는 눈치였다. 집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일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며 업무에 대한 책임감과 재단에 대한 애정에 감동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역시 사회생활은 힘든 것 같다.

본 백서의 성격이 추진 사업에 대한 성과정리인 만큼 지원부서의 노고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사업부서와 가장 많이 부딪치며 서로에 대한 애환관계가 형성된 회계팀, 음지에서 총괄 지원하는 총무팀, 재단의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문화기반실의 사업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러한 것은 앞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다.

아무튼 백서를 편집하고 교정하는 것은 물리적인 시간과 애정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여러 명이 반복해서 볼수록 더 아름답고 완결성 있는 결과물이 된다. 결국 공동의 창작물이 백서인 것이다. 시간이 더 있었다라면, 예산이 좀 더 많아서 디자인에 신경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지만, 어찌되었건 소박한 결과물을 냈다는 것에 의미부여를 해야겠다. 원고를 써주신 사업 담당자들, 그리고 감금을 불사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해 준 편집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광주문화재단 백서 담당자 박경동·김주은

2011 광주문화재단 백서

기획 및 편집 : 광주문화재단 정책기획팀

발행일 : 2012년 6월

발행인 : 노성대

발행처 : 광주문화재단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길 7, 빛고을시민문화관 3층

문 의 : 670-7423 Fax. 062-670-7429

홈페이지 : www.gjcf.or.kr

디자인인쇄 : (주)한길인터라인

※ 수록된 내용을 전재하거나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광주문화재단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